

청년 사회·경제 실태 및 정책방안 연구Ⅳ

- 전년도 공개데이터 심층분석보고서

책임연구원 김형주

공동연구원 연보라 유설희



연구보고 19-R02-1

청년 사회·경제 실태 및 정책방안 연구 IV

- 전년도 공개데이터 심층분석보고서

책임연구원_ 김형주(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선임연구위원)

공동연구원_ 연보라(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부연구위원)

유설희(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전문연구원)

연구보조원_ 배진우(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연구사업운영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

국문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 사회 청년의 일과 삶의 전반을 파악할 수 있는 핵심지표를 조사하고 중장기적 관점에서의 정책방향과 과제를 도출하는데 있다.

본 연구의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는 2017년 7월에 국가승인통계(제402004호)로 지정되었고, 매년 이루어지는 실태조사 결과는 다음해 초에 국가통계포털(KOSIS)에 공개되어 누구나 열람할 수 있다. 이에 따라 2018년 조사결과는 2019년 초에 일반에 공개되었다.

2018년에 시행한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의 모집단은 전국 17개 시·도에 거주하는 만15~39세 일반국민이고, 표본규모는 2018년에는 전년 대비 300명 늘어난 3,000명, 올해는 전년 대비 500명 늘어난 3,500명으로 조사규모를 확대, 청년층 조사의 중요성을 반영하고 보다 정확한 결과를 기하고자 하였다.

올해 연구에서는 기본적인 연구목적인 전국 실태조사를 하는 것과 더불어 전년도 조사결과 데이터를 활용하여 청년 분야의 현안이 되는 주제를 선정하고 심층분석하는 소연구들을 진행하였다. 이에 따라 본고에서는 첫째, 청년의 경제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연구, 둘째, 청년의 사회참여에 관한 연구, 셋째, 청년 세대 행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연구라는 세 가지 소연구의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청년 사회·경제 실태
및 정책방안 연구 IV

- 전년도 공개데이터 심층분석보고서

연구보고 19-R02-1

I. 청년의 경제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연구

: 개인, 사회요인을 중심으로

1. 서론 3

2. 이론적 배경 5

3. 연구방법 17

4. 연구결과 분석 22

5. 결론 및 정책 제언 29

II. 청년의 사회참여에 관한 연구

: 예코세대와 Z세대 비교

1. 서론 35

2. 이론적 배경 39

3. 연구방법 46

4. 연구결과 52

5. 결론 및 시사점 60

Ⅲ. 청년 세대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1. 서론	69
2.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71
3. 연구방법	77
4. 연구결과	82
5. 논의 및 결론	95

참고문헌	99
-------------------	-----------

표 목차

표 I-1 연도별 우리나라 청년 인구수	6
표 I-2 우리나라 청년 인구 추계	6
표 I-3 주요 국가별 연도별 청년층(15~24세) 실업률 추이	8
표 I-4 청년층(15~29세) 졸업·중퇴자의 연도별 첫 일자리 직업별 취업 분포율	9
표 I-5 청년층(15~29세) 졸업·중퇴자의 연도별 첫 일자리 임금 수준	10
표 I-6 청년층(15~29세) 졸업·중퇴자의 연도별 첫 일자리 근로형태별 분포율	11
표 I-7 청년층(15~29세) 졸업·중퇴자 중 현재 미취업자의 연도별 미취업 기간 분포율	13
표 I-8 청년층(15~29세) 졸업·중퇴자 중 현재 미취업자의 연도별 미취업 기간 중 주된 활동	13
표 I-9 분석대상 현황	20
표 I-10 주요 변수의 측정 문항	21
표 I-11 연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23
표 I-12 연구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경제활동	24
표 I-13 주요 변수의 기술통계량	26
표 I-14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28
표 II-1 세대별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47
표 II-2 Cohen의 효과크기 계산식	51
표 II-3 측정변수의 상호상관행렬 및 기술통계치	53
표 II-4 측정모형의 부합도 검증결과	54
표 II-5 측정모형의 경로계수 추정치	54
표 II-6 구조모형의 부합도 검증결과	55
표 II-7 구조모형의 경로계수 추정치	56
표 II-8 동일성 검증에 대한 부합도 지수	57

표 II-9	에코세대와 Z세대의 잠재평균과 효과 크기	59
표 III-1	분석에 사용된 변수들의 기술통계	80
표 III-2	독립변수 간 상관관계	82
표 III-3	청년 세대의 행복 수준 영향 요인 분석	83
표 III-4	10대 청년 세대의 행복 수준 영향 요인 분석	84
표 III-5	20대 청년 세대의 행복 수준 영향 요인 분석	85
표 III-6	30대 청년 세대의 행복 수준 영향 요인 분석	86
표 III-7	청년 세대의 행복 요건 충족 인식 영향 요인 분석	88
표 III-8	10대 청년 세대의 행복 요건 충족 인식 영향 요인 분석	89
표 III-9	20대 청년 세대의 행복 요건 충족 인식 영향 요인 분석	90
표 III-10	30대 청년 세대의 행복 요건 충족 인식 영향 요인 분석	91
표 III-11	청년 세대의 행복 수준 및 행복 요건 충족 인식 영향 요인 분석	93
표 III-12	청년 세대의 행복 수준 영향 요인 분석 종합	94
표 III-13	청년 세대의 행복 요건 충족 인식 영향 요인 분석 종합	95

그림 목차

그림 I-1. 15~29세 청년의 고용률 및 실업률	7
그림 I-2. 청년층(15~29세) 졸업·중퇴자의 연도별 첫 일자리 직업별 취업 분포 추이	10
그림 I-3. 청년층(15~29세) 졸업·중퇴자의 연도별 첫 일자리 근무형태별 분포율	12
그림 I-4. 2017년 국가별 청년 NEET 비율(15~29세 기준)	14
그림 I-5. 연구모형	18
그림 II-1. 구조모형의 표준화 경로계수	56
그림 II-2. 에코세대와 Z세대의 차이	59



I. 청년의 경제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연구

: 개인, 사회요인을 중심으로

- 1. 서론
- 2. 이론적 배경
- 3. 연구방법
- 4. 연구결과 분석
- 5. 결론 및 정책 제언



청년의 경제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연구 : 개인, 사회요인을 중심으로¹⁾

1. 서론

우리나라는 저성장 문제와 기술발전에 의한 일자리 양극화 현상을 경험하고 있으며 이는 세계의 다수 국가에서도 발생하고 있는 문제이다(김수혜, 2018). 직업환경 변화 가운데 청년층의 고용과 실업은 사회문제화되고 있다. 우리나라 청년 실업률은 1990년 5.5%에서 2013년 8%로 증가하였으며, 2014년 9%로 증가한 뒤 2018년까지 9% 후반대의 실업률을 보이고 있다(통계청, 2018a). 청년 취업 환경의 악화로 인해 고용상태가 아님에도 교육이나 직업훈련을 받지 않는 니트족(Not in Employment, Education or Training)이 새롭게 등장하였으며, 저숙련 청년층, 비공식 부문 종사자 청년층의 지속적 증가 또한 사회문제로 이슈화 되고 있다(김수혜, 2019). 특히 우리나라 청년의 니트족 비율은 2017년 기준으로 OECD 평균 14.2%보다 높은 16.1%이며, 이러한 비율에 의거했을 때 청년인구(15~29세) 990만명 중 150만명이 니트족으로 추산되고 있다(김기현, 배상률, 성재민, 2018).

청년이 사회 진출 초기에 안정적인 일자리와 소득을 갖지 못할 경우 청년의 결혼과 출산, 직업생활 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청년이 노동시장으로 신속히 진입하지 못하고 실업상태에 빠질 경우 직업생활을 통한

1) 이 장은 서보람(평택복지재단), 김미선(인천여성가족재단)이 집필하였음

인적자본을 축적하지 못하게 되며 청년의 노동시장 진입이 더욱더 어려워지는 악순환이 발생한다(정주호, 조민효, 2018). 노동시장에서 배제되는 것은 사회보험에서 배제되는 것과 동일한 의미이며, 노동시장 배제 청년층이 장년층과 노년층으로 이동할 경우 사회보험에서 제공하는 보호를 전혀 받지 못하게 된다(이승윤, 백승호, 김미경, 김윤영, 2017). 청년들 중 상당수는 노동시장 진입의 어려움, 고용 불안정성 등으로 인해 빈곤에 처하게 되고 사회적 취약계층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높다.

청년층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는 고학력자임에도 불구하고 잠재적 실업상태에 빠지거나, 시간제, 비정규직 노동자로 불안정한 노동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이다(변금선, 2018; 이승윤, 이정아, 백승호, 2016). 이로 인해 청년들은 취업을 포기하거나 낮은 임금으로 인한 빈곤, 열악한 주거환경, 부채 증가, 출산 및 결혼 포기 등 청년기 이후 성인기의 불안정한 생활로 이행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 청년의 경제활동 참여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와 더불어 청년이 고용현장에 안정적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청년의 경제활동에 미치는 요인들을 분석한 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청년의 경제활동 참여와 관련된 연구들은 주로 고용, 노동시장 진입 및 고용정책의 효과성 측정과 관련되어 진행되고 있다. 청년 고용과 관련된 연구로는 청년고용 현황 및 환경과 관련된 연구(김소라, 2019; 박홍철, 이주형, 2013; 박수명, 2013), 노동시장 진입 영향요인과 진입 과정에 대한 연구(최요한, 2018; 이상욱, 권철우, 남윤미, 2018; 장효진, 2017; 이시균, 양수경, 2012; 박미희, 홍백의, 2014), 청년 고용 관련 정책 개선 방안 연구(채창균, 2018; 정주호, 조민효, 2018; 이울경, 2017; 양승광, 2017) 등이 이루어져 왔다. 특히 청년 고용 정책과 관련해서는 지자체별로 청년고용정책에 대한 평가가 진행될 만큼 청년 고용 및 경제활동 참여의 중요성이 인식되고 있다(황덕순, 주진우, 최봉, 이병희, 이주환, 정경은, 우상범 2016; 오재호, 이현우, 천영석, 2018).

이러한 연구들은 청년을 둘러싼 고용 환경을 파악하고 노동시장 진입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파악하여 청년의 경제활동 참여에 필요한 정책들을 제안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청년 경제활동 참여에 있어 특정 요인의 영향력을 파악하고 있고, 정책의 효과성 또한 청년 고용·실업률, 청년이 인식하는 정책의 만족도 수준, 청년고용정책 참여 대상자들의 인터뷰 내용을 중심으로 분석되고 있다는 한계점을 지니고 있다. 곧 청년층의 경제활동을 둘러싼 개인적, 사회적 요인의 통합적 분석을 실시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청년층의 경제활동 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요인과 사회요인을 다각도로 분석하여, 청년층의 경제활동 참여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청년 실업문제의 원인은 개인요인과 사회요인의 관계 속에서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청년층의 취업 활동과 노동시장 진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발견하여 청년 고용문제와 관련된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2. 이론적 배경

본 장에서는 청년의 경제활동 참여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청년층의 취업률, 실업률, 근로조건과 관련된 특성을 살펴보고, 청년의 개인요인, 사회요인과 경제활동 참여와의 관계에 대해 고찰하고자 한다. 또한 청년의 경제활동 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 선행연구 고찰을 하고자 한다.

1) 청년 인구 및 경제활동 참여

(1) 청년 인구 현황 및 추계

우리나라 청년 인구수를 살펴보면, 20~29세는 2011년 6,727,416명에서 2013년 6,589,529명으로 감소하다 2015년 6,699,048명으로 증가하여 2019년

5월 기준으로 6,823,072명이다. 그러나 20대와는 다르게 15~19세는 2011년 3,546,594명에서 2019년 5월 2,744,041명으로 802,553명이 감소하여 향후 20대 인구수 또한 감소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30~39세의 경우 2011년 8,254,786명에서 2019년 5월 7,198,993명으로 1,055,793명이 감소하였다. 20~39세의 인구 변화는 2011년 14,982,202명에서 2019년 5월 14,022,065명으로 960,137명이 감소하였다.

표 1-1 연도별 우리나라 청년 인구수

구분	2011	2013	2015	2017	2019.5
15~19세	3,546,594	3,420,530	3,257,264	2,953,658	2,744,041
20~29세	6,727,416	6,589,529	6,699,048	6,810,967	6,823,072
30~39세	8,254,786	8,015,414	7,670,966	7,368,649	7,198,993
15~29세	10,274,010	10,010,059	9,956,312	9,764,625	9,567,113
20~39세	14,982,202	14,604,943	14,370,014	14,179,616	14,022,065

* 출처: 행정안전부(각 년도), 주민등록인구현황_행정구역(읍면동)별/5세별 주민등록인구(2011년~), KOSIS 국가통계포털 웹사이트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04005N&conn_path=12에서 2019년 6월 10일 인출.

* 주: 국가통계포털 상 「주민등록인구현황」의 연령별 인구수를 본 연구 목적에 맞게 재구성함.

표 1-2 우리나라 청년 인구 추계

구분	2025	2030	2040	2050	2060
15~19세	2,238,045	2,258,580	1,485,604	1,697,306	1,405,952
20~29세	5,922,205	4,789,213	4,019,395	3,216,682	3,242,234
30~39세	7,006,128	7,112,504	4,871,787	4,104,372	3,301,426
15~29세	8,160,250	7,047,793	5,504,999	4,913,988	4,648,186
20~39세	12,928,333	11,901,717	8,891,182	7,321,054	6,543,660

* 출처: 통계청 (각 년도), 장래인구추계_성 및 연령별 추계인구(1세별, 5세별)/전국, KOSIS 국가통계포털 웹사이트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PA001&conn_path=12에서 2019년 6월 10일 인출.

* 주: 중위 추계(기본 추계: 출산율-중위/기대수명-중위/국제순이동-중위) 자료를 사용했으며 연령별로 본 연구 목적에 맞게 재구성함.

청년 인구수의 변화는 지속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우리나라 청년 인구 추계를 분석한 결과 20~29세 인구는 2025년 5,922,205명에서 2040년 4,019,395명으로 감소하며, 2060년에는 3,242,234명으로 2025년 대비 약 270만 명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0~39세는 20대보다도 감소폭이 큰데, 2025년 7,006,128명에서 2060년 3,301,426명으로 약 370만 명이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20~39세 청년 인구수는 2025년 12,928,333명에서 2060년 6,543,660명으로 49.4% 감소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2) 청년 취업률 및 실업률

청년의 경제활동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청년 인구층의 취업률과 실업률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림 I-1에서 제시된 우리나라 만 15세부터 29세 청년 고용률 및 실업률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청년층의 고용률은 2009년부터 2012년까지는 40.3~40.6% 사이를 보이다가 2013년 39.5%로 감소한 후 2014년부터 증가추세로 2018년에는 42.7%로 상승하였다. 실업률의 경우 2009년 8%였던 것이 2012년에는 7.5%로 가장 낮았으며 2013년 8%를 기점으로 증가하여 2014년 9%, 2016년 9.8%였다가 2019년 9.5%로 소폭 감소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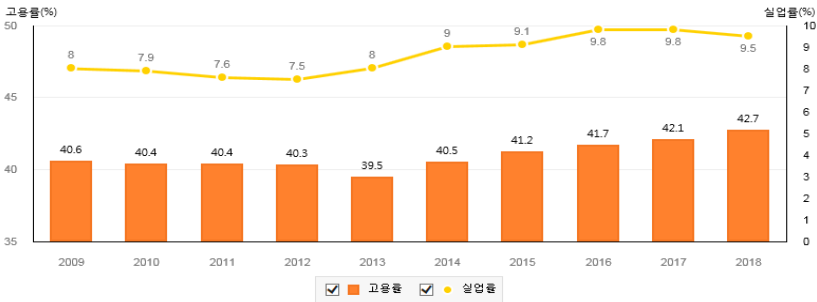


그림 I-1. 15~29세 청년의 고용률 및 실업률

* 출처: 고용노동부(각 년도). 청년 고용동향, e-나라지표 웹사이트 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495에서 2019년 6월 10일 인출.

표 1 -3 주요 국가별 연도별 청년층(15~24세) 실업률 추이

(단위: %)

구 분	프랑스	독일	일본	영국	미국	OECD 평균	대한민국
2014	23.5	7.8	6.3	16.3	13.4	19.3	10.0
2015	24.0	7.2	5.5	15.4	11.6	17.8	10.5
2016	24.1	7.0	5.1	13.2	10.4	16.4	10.7
2017	21.6	4.6	4.6	11.8	9.2	15.1	10.3

* 출처: 고용노동부(각 년도). 청년 고용동향, e-나라지표 웹사이트 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495에서 2019년 6월 10일 인출.

OECD 주요 국가들은 청년 실업률 대상을 15~24세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청년 실업률의 국제비교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15~24세의 실업률을 파악해야 한다. 우리나라 15~24세의 2017년 평균 실업률은 10.3%로 OECD 평균 15.1%, 영국 11.8%, 프랑스 21.6%보다 낮으며 독일과 일본 4.6%, 미국 9.2%보다 높은 수준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청년 실업률을 10%대로 유지하고 있으나, 프랑스, 독일, 일본, 영국, 미국은 실업률이 꾸준히 감소되고 있다.

(3) 청년의 경제활동 경험

청년의 경제활동 경험을 세부적으로 알아보기 위해서 청년이 최종학교를 졸업하거나 중퇴한 후 진입하는 첫 일자리는 무엇인지, 첫 일자리(직장)에서 취업할 당시 임금, 근로형태를 분석하고자 한다. 또한 첫 일자리 진입시 미취업 기간도 함께 알아보하고자 한다. 첫 일자리의 질은 청년이 향후 이직을 하고 경력을 개발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이시균 외, 2012). 이를 분석하기 위해 통계청에서 매해 5월마다 발표하는 「경제활동인구조사」의 청년층(19~29세) 부가조사 결과를 활용하였다.

먼저 우리나라 청년층(15~29세) 중 최종학교 졸업·중퇴자의 첫 일자리 직업별 취업 분포율을 분석한 결과, 2018년 기준으로 서비스·판매종사자가 31.8%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관리자·전문가 24.1%, 사무종사자 22.6%, 기능·기계조작종사자 12.1%, 단순노무종사자 9.1%, 농림어업숙련종사자 0.3%였다. 직업별 취업 분포율 추이를 살펴보면 서비스·판매종사자는 2011년 19.8%에서 2018년 31.8%로, 단순노무종사자는 2011년 6.2%에서 2018년 9.1%로 지속적으로 증가한 반면, 관리자·전문가는 2011년 32.2%에서 2018년 24.1%로, 사무종사자는 2011년 28.9%에서 2018년 22.6%로 지속적으로 감소한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청년층의 첫 일자리 진입 직업이 관리자, 전문가, 사무직과 같이 안정적인 일자리에서 서비스 및 판매종사자, 단순노무종사자와 같은 불안정한 일자리로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표 1-4 청년층(15~29세) 졸업·중퇴자의 연도별 첫 일자리 직업별 취업 분포율

(단위: %)

구 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관리자·전문가	32.2	31.2	31.8	31.0	30.2	30.1	24.7	24.1
사무종사자	28.9	27.9	26.7	27.3	26.0	25.5	23.3	22.6
서비스·판매종사자	19.8	20.7	20.1	21.0	22.3	22.7	31.2	31.8
농림어업숙련종사자	0.5	0.9	1.0	1.1	0.8	0.5	0.3	0.3
기능·기계조작종사자	12.5	13.5	13.5	13.4	14.3	14.2	12.5	12.1
단순노무종사자	6.2	5.9	6.8	6.2	6.4	6.9	7.9	9.1

* 출처: 통계청(2011~2016). 경제활동인구조사: 각 연도별 5월 청년층 및 고령자 부가조사 결과(보도자료), 통계청(2017~2018a). 경제활동인구조사: 각 연도별 5월 청년층 부가조사 결과(보도자료).

* 주: 2011~2018년 「경제활동인구조사」의 청년층 부가조사 결과 중 첫 일자리 직업별 분포율을 취합하여 재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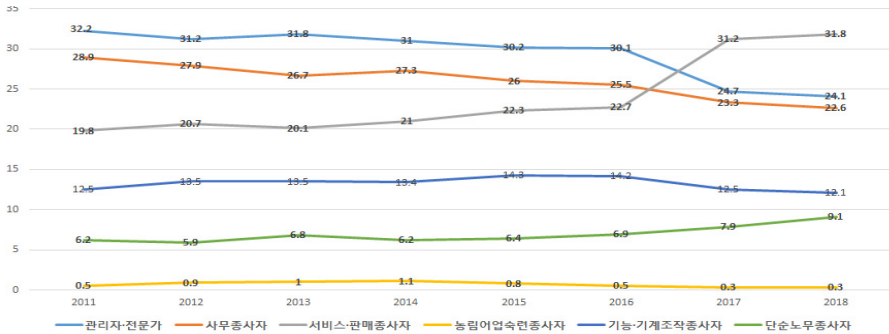


그림 1-2. 청년층(15~29세) 졸업·중퇴자의 연도별 첫 일자리 직업별 취업 분포 추이

표 1-5 청년층(15~29세) 졸업·중퇴자의 연도별 첫 일자리 임금 수준

(단위: %)

구 분	2017	2018
50만원 미만	4.3	4.2
50만원~100만원 미만	12.7	13.5
100만원~150만원 미만	31.8	31.1
150만원~200만원 미만	30.4	33.8
200만원~300만원 미만	17.5	15.3
300만원 이상	3.3	2.0

* 출처: 통계청 (2018a), 2018년 5월 경제활동인구조사: 청년층 부가조사 결과 보도자료, p.16, 통계청 웹사이트 http://kostat.go.kr/portal/korea/kor_nw/1/3/1/index.board?bmode=read&aSeq=368927에서 2019년 6월 10일 인출.

청년층의 첫 일자리 임금수준은 2018년 기준으로 ‘150만원~200만원 미만’이 33.8%로 가장 높았으며, ‘100만원~150만원 미만’ 31.1%, ‘200만원~300만원 미만’ 15.3% 순이었으며, 5명 중 3명은 첫 일자리에서 ‘100만원~200만원 미만’의 임금을 받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2017년에서 2018년 첫 일자리 임금수준 추이를 살펴보면, ‘150만원~200만원 미만’은 3.4%p 정도 증가하였지만 ‘200만원~300만원 미만’은 2.2%p, ‘300만원 이상’은 1.3%p 정도 감소하였고 ‘50만원~100만원 미만’은 0.8%p 증가하여 임금 수준이 소폭 하향 조정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표 1 -6 청년층(15~29세) 졸업·중퇴자의 연도별 첫 일자리 근로형태별 분포율

(단위: %)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 전 체 〉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임금근로자		96.7	96.8	97.3	97.0	96.5	96.9	97.8	97.9
계약 여부	계약기간 정함	23.6	22.8	24.4	22.6	24.3	26.4	25.0	25.0
	1년 이하	20.2	19.9	21.1	19.5	20.3	22.2	21.0	21.2
	1년 초과	3.4	2.9	3.3	3.0	4.0	4.1	4.0	3.9
	계약기간 정하지 않음	73.1	74.0	72.9	74.4	72.2	70.5	72.8	72.9
	계속근무 가능	60.6	62.6	60.5	62.1	60.4	58.0	60.8	61.2
	일시적 일자리	12.5	11.4	12.5	12.3	11.8	12.5	12.0	11.7
근무 형태	전일제	85.9	85.2	85.9	84.9	83.0	82.9	82.0	81.1
	시간제	10.8	11.6	11.5	12.1	13.4	14.0	15.8	16.9
◦자영업자		1.8	2.0	1.2	1.6	2.0	1.9	1.3	1.3
◦무급가족종사자		1.5	1.3	1.4	1.4	1.6	1.1	0.8	0.8

* 출처: 통계청(2011~2016). 경제활동인구조사: 각 연도별 5월 청년층 및 고령자 부가조사 결과(보도자료).
통계청(2017~2018a). 경제활동인구조사: 각 연도별 5월 청년층 부가조사 결과(보도자료).

* 주: 2011~2018년 「경제활동인구조사」의 청년층 부가조사 결과 중 첫 일자리 근로형태별 분포율을 취합하여 재구성

청년층의 최종학교 졸업·중퇴자의 첫 일자리 근로형태별 분포율을 살펴보면, 임금근로자 비율은 2011년부터 2018년까지 96.7%에서 97.9% 사이에 위치하고 있었다. 임금근로자의 계약여부별 분포율은 계약기간을 정하는 경우는 2011년 23.6%에서 2018년 25%로 서서히 증가하고 있으며, 계약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는 2011년 73.1%에서 2018년 72.9%로 서서히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계약기간을 정하는 경우 1년 이하로 계약하는 경우는 각 연도별로 20.2%에서 22.2% 사이에 위치하고 있으며, 1년 초과는 3.4%에서 3.9% 사이로 1년 이하의 계약 기간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계약기간을 정하지 않는 경우 계속 근무가 가능한 일자리는 대부분의 연도에서 60~63% 사이에 위치하고 있으며, 일시적인 일자리의 경우 11.4~12.5%의 사이에 위치해 있다.

근무형태별 연도별 추이를 살펴보면 전일제의 경우 2011년 85.9%에서 2018년 81.1%로 감소추세에 있으며, 시간제의 경우 2011년 10.8%에서 2018년 16.9%로 증가추세에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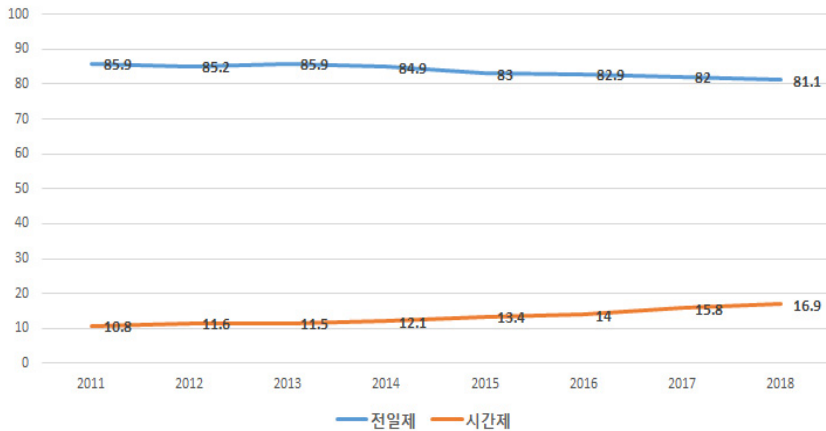


그림 1-3. 청년층(15~29세) 졸업·중퇴자의 연도별 첫 일자리 근무형태별 분포율

청년층 중 현재 미취업자의 미취업 기간 연도별 추이를 분석한 결과, ‘1년 미만’의 경우 2013년 53.8%에서 2018년 57%로 3.2%p 증가했으며 ‘1년 이상’은 46.2%에서 43%로 3.2%p 감소하였다. ‘1년 미만’을 ‘6개월 미만’과 ‘6개월에서 1년 미만’으로 구분해 분석한 결과, ‘6개월 미만’은 2013년 43.6%에서 2016년 45.6% 증가하다가 2018년 43.7%로 감소했으며, ‘6개월~1년 미만’의 경우 2013년 10.2%에서 2015년 9.8%로 감소했으나 2016년 이후 증가하여 2018년 13.3%를 보였다. ‘1년 이상’을 세분화해 분석한 결과, ‘1년~2년 미만’은 2013년 18.7%에서 2018년 17.8%로 소폭 감소했으며, ‘2년~3년 미만’은 8.7%에서 10%로 증가하였고 ‘3년 이상’은 2013년 18.8%에서 2018년 15.3%로 감소하였다.

청년층 중 현재 미취업자의 미취업기간을 분석한 결과 미취업자 5명 중 3명은 미취업 기간이 1년 미만이며 2명은 1년 이상의 미취업 기간을 경험하고 있으며 6명 중 1명은 3년 이상의 미취업 기간을 경험하고 있었다.

표 1-7 청년층(15~29세) 졸업·중퇴자 중 현재 미취업자의 연도별 미취업 기간 분포율

(단위: %)

연도	1년 미만	6개월 미만	6개월~1년 미만	1년 이상	1년~2년 미만	2년~3년 미만	3년 이상
2013	53.8	43.6	10.2	46.2	18.7	8.7	18.8
2014	57.1	44.7	12.4	42.9	15.3	9.9	17.7
2015	54.3	44.5	9.8	44.7	18.2	9.7	17.8
2016	56.8	45.6	11.2	43.1	16.9	8.9	17.3
2017	55.6	44.7	10.9	44.4	20.4	8.3	15.6
2018	57.0	43.7	13.3	43.0	17.8	10.0	15.3

* 출처: 통계청(2013~2016). 경제활동인구조사: 각 연도별 5월 청년층 및 고령자 부가조사 결과(보도자료).
통계청(2017~2018a). 경제활동인구조사: 각 연도별 5월 청년층 부가조사 결과(보도자료).

* 주: 2013~2018년 「경제활동인구조사」의 청년층 부가조사 결과 중 졸업·중퇴자의 첫 일자리 진입 전 미취업 기간분포율을 취합하여 재구성

표 1-8 청년층(15~29세) 졸업·중퇴자 중 현재 미취업자의 연도별 미취업 기간 중 주된 활동

(단위: %)

연도	직업교육, 취업시험 준비	그냥 시간보냄	구직활동	육아, 가사	그 외
2013	30.8	19.0	12.5	22.3	15.5
2014	32.0	18.5	15.4	19.3	14.8
2015	33.2	18.7	13.0	19.8	15.3
2016	36.6	17.8	12.9	15.4	17.4
2017	38.5	17.5	12.7	14.6	16.7
2018	35.9	19.5	15.4	12.1	17.1

* 출처: 통계청(2013~2016). 경제활동인구조사: 각 연도별 5월 청년층 및 고령자 부가조사 결과(보도자료).
통계청(2017~2018a). 경제활동인구조사: 각 연도별 5월 청년층 부가조사 결과(보도자료).

* 주: 2011~2018년 「경제활동인구조사」의 청년층 부가조사 결과 중 졸업·중퇴자의 첫 일자리 진입 전 미취업 기간 중 주된 활동 비율을 취합하여 재구성

청년층 미취업자의 미취업 기간 중 주된 활동을 분석한 결과 직업교육, 취업시험 준비는 2013년 30.8%에서 2018년 35.9%로, 구직활동은 2013년 12.5%에서

2018년 15.4%로 증가 추세였으며, 그냥 시간을 보내는 경우는 17.5%에서 19.5% 사이를 보였다. 육아, 가사의 경우 2013년 22.3%에서 2018년 12.1%로 약 10% 정도 감소하였다.

2018년 기준으로 청년 미취업자 10명 중 5명은 직업교육이나 취업시험 준비를 하고 있었으며, 2명은 아무런 활동 없이 그냥 시간을 보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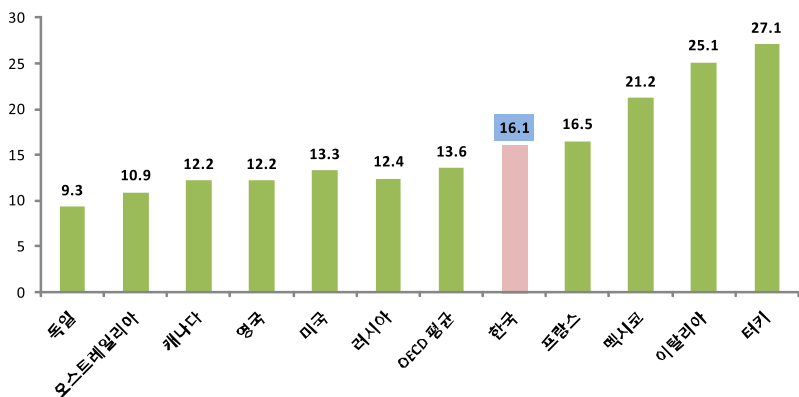


그림 I -4. 2017년 국가별 청년 NEET 비율(15~29세 기준)

* 출처: OECD(2019). Youth not in employment, education or training (NEET), OECD 웹사이트 <https://data.oecd.org/youthinac/youth-not-in-employment-education-or-training-neet.htm>에서 2019년 6월 10일 인출.

* 주: 2017년 한국 니트 비율은 김기현 외(2018)의 연구에서 제시한 비율을 제시함.

우리나라 청년 니트(NEET)의 분포를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김기현 외(2018)는 청년 니트(NEET)를 “학교나 직장에 다니지 않고 있으며 공식교육이든 아니든 직업훈련기관이나 학원에 통학 중인 경우를 제외한 만 15세 이상 29세 이하의 청년”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러한 정의에 의거했을 때 우리나라 청년 니트의 규모는 2017년 기준으로 약 150만명으로 추산할 수 있으며, 이 수치는 우리나라 15~29세 청년 인구 990만명의 16.1%에 해당한다(김기현 외, 2018). 이는 2017

년 OECD 평균 13.6%보다 2.5%p 높은 수준이며 프랑스(16.5%), 이탈리아(25.1%)보다는 낮고 독일(9.3%), 영국(12.2%)보다는 높은 수준이다(OECD, 2017).

2) 청년의 경제활동 참여 관련 영향 요인 분석

청년의 경제활동 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연구는 성별, 결혼여부, 임금노동 경험, 개인의 심리·정서적 요인 등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왔다(정현상, 2016; 주휘정, 김민석, 2018; 최요한, 2018; 김정숙, 2018; Zuccotti & O'Reilly, 2019; Bracke, van de Straat, & Missinne, 2014; Naafs, 2013; Salmela-Aro & Nurmi, 2007).

성별 특성은 나이, 결혼여부와 결합하여 청년 경제활동 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분석되고 있다(최요한, 2018; 정현상, 2016). 최요한(2018)의 연구에서는 여성의 경우 나이가 많을수록 비정규직 고용보다 미취업일 가능성이 높아졌으며, 남성의 경우는 반대일 확률이 더 높아졌는데 이는 남성의 경우 실업에 대한 대안으로 비정규직 고용을 선택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최요한(2018)은 성별로 결혼지위를 분석한 결과 여성은 결혼 상태인 경우 비정규직 고용보다 미취업일 가능성이 높았으며, 남성은 결혼지위의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현상(2016)의 연구에서는 여성보다는 남성인 경우 미취업과 실업 확률이 낮아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청년의 경제활동 참여에 있어 성별 차이를 분석한 국외 연구들은 아시아, 아프리카 국가 출신 이민자 청년에 대한 분석이 주로 이루어졌다(Zuccotti & O'Reilly, 2019; Naafs, 2013). 이들 연구들에서는 국가 내 노동시장 참여에 성별 차이가 존재하고 있으며, 여성의 경우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출신 여성들인 경우 경제활동 참여가 낮아졌는데 이는 보살핌과 가사노동에 대한 책임을 여성에게 지우는 문화와 연관되기 때문이며(Zuccotti & O'Reilly, 2019),

이슬람 문화권 출신의 경우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타문화권에 비해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Naafs, 2013).

청년의 결혼 여부는 경제활동 참여는 서로 영향을 주는 관계인데 취업상태, 특히 고용형태가 정규직인 경우 남성과 여성 모두에게 결혼 가능성이 높아졌으며(주취정, 김민석, 2018), 결혼 상태일 경우 미취업 및 실업 확률이 낮아졌다(정현상, 2016). 학교관련 변인으로는 수도권 지역과 비수도권 지역을 구분해 정규직과 비정규직 취업 가능성을 분석한 결과 비정규직 취업 가능성은 수도권 이외 소재 대학 졸업자들에게서 높았으며, 수도권 소재 대학 졸업자들은 정규직 진입 가능성이 높았다(김수혜, 2018).

청년의 심리적 건강상태는 청년의 경제활동 참여와 서로 영향을 주는 관계이다(김정숙, 2018; 김지경, 이윤주, 이민정, 2018; Bracke et al., 2014). 졸업 후 취업경험이 없고, 미취업 기간 및 취업 탈락 횟수가 많을수록 우울 수준이 높아지며(김지경 외, 2018), 자신의 교육 수준에 대응하는 임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 우울 수준이 높았다(Bracke et al., 2014; 김정숙, 2018에서 재인용). 자아존중감과 같은 자기 자신에 대한 긍정적 평가 또한 청년의 사회생활이나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며 진로 결정이나 취업 스트레스를 완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Salmela-Aro & Nurmi, 2007; 정현상, 2013에서 재인용). 심리적 건강상태는 취업을 위해 노력하거나 장기간 실업상태에 빠지게 하는 순환관계로 분석되고 있다(김정숙, 2018). 우울, 불안과 같은 정서적 요인은 청년의 취업 및 고용유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박은영, 2015), 외적 성공을 추구하는 삶은 우울감을 높이고, 취업을 통한 경제력 향상, 사회적 지원망은 청년의 행복감에 영향을 미친다(구혜란, 구서정, 2019).

청년이 주관적으로 인식하는 사회적 배제, 사회적 교류,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도 또한 청년의 심리 및 경제활동 참여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문재영, 정기수, 2018; 전병주, 2013). 전병주(2013)의 연구에서 청년 실업자가 인식하는 사회적

배제는 심리적 복지감에 부적 영향을 미치고 있었으며 실업기간이 길수록, 연령이 낮을수록, 정부정책에 대한 신뢰도가 높을수록 심리적 복지감은 높아졌다. 또한, 부모, 교수, 친구로부터 제공되는 사회적 지지는 청년의 진로결정역량을 증진시키며, 이는 취업을 계획하고 경력을 개발하며, 취업전략을 구축하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문재영, 정기수, 2018).

이상의 연구들은 성별 차이, 출신대학 소재지, 결혼지위 등의 인구사회학적 특징, 우울, 자아존중감과 같은 정서적 요인과 같은 개인적 요인들과 사회적 지지, 사회적 배제,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도 등의 사회적 요인들이 청년의 경제활동과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분석하고 있다. 이 연구들은 청년 고용 및 경제활동 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다각도로 분석함으로써 청년을 지원할 수 있는 정책의 방향을 제안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러나 이들 연구들은 청년의 경제활동 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특정 요인들에 국한해 분석했다는 점에서 한계를 가지고 있다. 청년의 경제활동 참여는 성별, 결혼지위, 정신건강, 사회관계망, 정부에 대한 신뢰, 사회참여 등 개인 및 사회적 요인을 종합적으로 파악해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다.

3. 연구방법

1) 연구의 설계

청년세대에 있어서 일자리를 선택하고 경제활동을 하는 것은 인생 일대에 매우 중요한 일이다. 하지만 최근 우리나라의 청년실업률은 역대 최고치를 갱신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에 대응하고자 이 연구에서는 경제활동이 가능한 청년층을 대상으로 경제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이 무엇인지 검증해보고자 한다. 물론 청년실업 문제가 지속되면서 이와 관련된 연구는 다수 선행연구에서 검증되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이 연구는 만15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층을 대상으로

전국단위로 많은 수의 샘플을 확보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며, 기존 연구에서 검증된 요인들을 재검증하여 일반성을 확보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특히 연구자에 따라 연구의 대상과 자료수집 방법이 다양하여 경제활동에 미치는 영향 요인도 다른 결과가 도출되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기존 연구에서 검증된 주요인을 개인적 요인과 사회적 요인으로 구분하여 경제활동에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고, 이로부터 청년층의 실업률을 완화할 수 있는 제도 및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이 연구의 연구 설계를 제시하면 다음 그림 1-5와 같다. 경제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적 요인(성별, 출신대학교 소재지, 결혼유무, 외모중요도, 정신건강)과 사회적 요인(사회관계망, 학벌중심사회, 정부의 청년세대 지원 인식, 사회참여의지, 정치적 효능감)을 독립변수로 설정하고, 지난주 수입을 목적으로 1시간 이상 일한 경험 유무를 경제활동으로 설정하고 이를 종속변수로 구성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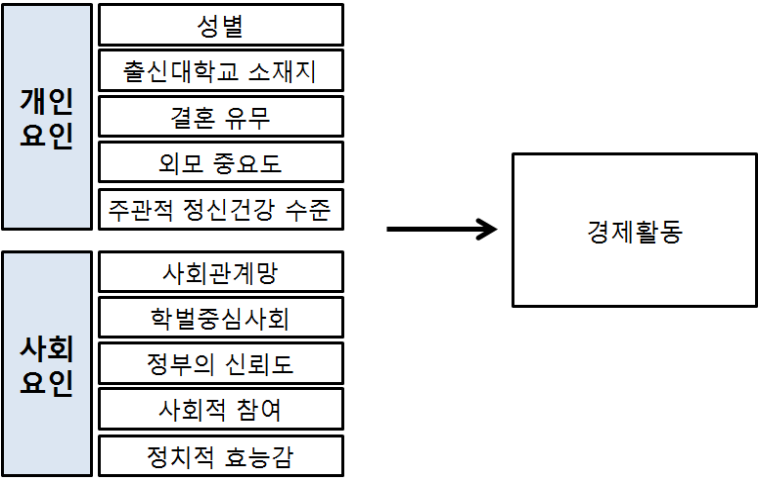


그림 1-5. 연구모형

2) 연구대상과 분석자료

이 연구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 의해 조사된 「청년 사회·경제 실태 및 정책 방안 연구(김형주, 임지연, 유설희, 2018)」의 원 자료이며 3차년도 자료를 활용하였다. 이 조사는 2016년 인구주택총조사를 기준으로 집계된 표본을 기준으로 표본을 추출하였으며, 전국 만15세 이상 39세 이하의 일반가구에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1:1 가구방문 대면조사를 통해 수집된 자료이다. 그리고 지역별 목표 표본 수를 총 3,000명으로 선정한 후, 2018년 7월 30일부터 약 5주간의 시간을 걸쳐서 자료가 조사되었으며, 유효 표본은 총 3,133명이다. 해당 표본에서의 만 15세 이상 18세 이하의 청소년 중 중·고등학생이 아닌 경우(현재 학교를 다니지 않는 경우 검정고시 준비, 재수생, 대학교에 입학한 경우, 현재 취업 중인 경우)만을 조사에 참여하도록 하였다.

따라서 이 연구는 청년층의 경제활동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도출하기 위해 원자료 3,133명 중에서 만19세 이상 39세 미만에 해당되는 청년층만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물론 최근 경제활동을 하는 만 15세 이상 18세 이하의 청소년 수가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만 15세 이상 18세 이하의 학령기로 학교와 가정의 보호하에 성장하는 청소년기로 경제활동보다는 학업에 집중해야 하는 사회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해당 연령의 경제활동은 2030세대의 청년층과는 다르게 접근해야 된다. 또한 김형주 외(2018) 연구에서도 밝혔듯이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청년에 대한 연령기준이나 정의가 명확하지 않고 사회적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2030세대 청년층에 한정하여 분석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고 판단된다.

김형주 외(2018)에서 조사된 원 자료는 청년용 설문지와 중·고등학생용 설문지로 구분하여 조사되었으며, 설문조사 시점에서 응답자의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만15세~만18세는 1999년 7월 1일부터 2003년 6월 30일의 출생자로 분류하였고, 만 19세~39세는 1978년 7월 1일부터 1999년 6월 30일의 출생자로 구분하

였다. 그 결과 조사대상자 3,133명 중에서 만 19세 이상 39세 미만에 해당되는 청년 2,689명을 조사대상자로 분류되었다. 세부적으로 남자는 1,406명, 여자는 1,283명으로 성별 구성비는 비슷하다.

표 1-9 분석대상 현황

(단위: 명)

구 분	남	여	전체
만15세~18세	241	203	444
만19세~39세	1,406	1,283	2,689
전체	1,647	1,486	3,133

3) 주요변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8년 청년 사회·경제 실태조사의 핵심지표 중 기존 선행연구에서 도출된 경제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일부 선정하여 주요 변수로 구성하였다. 이 연구에서 사용한 문항은 총 24개이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개인적 요인으로 분류한 성별과 대학소재지, 결혼유무는 인구사회학적 통계에 해당되며 명목변수로 변환하였다. ‘인생에서 외모가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하는지’ 알아본 외모의 중요도에 관한 측정항목은 리커드 5점 척도로 측정되었다. ‘주관적인 정신적 건강수준은 밝고 즐거운 기분을 느끼는 정도’, ‘차분하고 편안함을 느끼는 정도’ 등 5개 문항을 토대로 주관적 웰빙 지수(WHO, 1998)를 산출한 것으로 0점(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5점(항상 그렇다)까지 리커드 6점 척도로 측정되었다(김형주 외, 2018).

표 1 -10 주요 변수의 측정 문항

구분	변수	조사내용	문항번호
개인 요인	성별	남=1, 여=0	배경문항1
	대학 소재지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1, 기타=0	배경문항4
	결혼유무	결혼 유(배우자 있음, 사별·이혼)=1, 무=0	배경문항2
	외모중요도	인생에서 외모가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하는지	문69
	주관적 정신 건강 수준	나는 밝고 즐거운 기분임을 느낀다	문67 (1)~(5)
		나는 차분하고 편안함을 느낀다	
		나는 활동적이고 활기참을 느낀다	
		나는 잠에서 깨었을 때, 피로가 다 가시고 상쾌했다	
		나의 일상은 흥미로운 것들로 가득 차 있다	
사회 요인	사회관계망	어려운 상황에서 기댈 수 있는 친구(1=있음, 0=없음)	문74
	학벌(학력) 중심사회	대학은 반드시 나와야 한다	문14 (1)~(3)
		한국 사회에서 교육을 어디까지 받아야 하는지(학력)는 중요하다	
		한국 사회에서 어느 학교를 나왔는지(학벌)는 중요하다	
	정부의 신뢰도	정부 또는 지자체에서는 고등학교 졸업을 앞둔 청년세대를 위한 지원이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문32 (5)~(6)
		정부 또는 지자체에서는 대학교 졸업을 앞둔 청년세대를 위한 지원이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사회적 참여 수준	SNS 홈페이지, 블로그에 글을 올리거나 답변하기	문76 (1)~(5)
		개인 의견을 표현하기 위해 팔찌, 리본 등을 착용/부착	
		(온·오프라인으로) 서명에 참여하기	
		집회 및 시위에 참여하기	
		항의 전화하기	
	정치적 효능감	나는 정치적 문제를 이해하고 참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문77 (1)~(3)
		나는 가치관이나 신념이 다른 사람을 포용하고 이해할 수 있다	
		나는 선거나 캠페인 참여 등을 통해 정치발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종속 변수	경제활동 유무	지난주 수입을 목적으로 1시간 이상 일한 경험 (1=있음, 0=없음)	문36

둘째, 사회적 요인으로 분류한 사회적 관계망은 어려운 상황에서 서로 기댈 수 있는 친구가 있는지 유무를 묻는 문항을 활용하였고, 학벌(학력)중심사회는 우리사회 교육관행에 대한 의견을 묻는 문항으로 리커드 5점 척도로 측정되었다. 정부의 신뢰도는 정부의 청년세대 지원 인식을 묻는 2개의 문항을 발췌하여 사용하였다.

사회적 참여 수준은 ‘시민들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 일이 발생되었을 때 의견을 표명할 수 있는 5가지 방법에 대해 참여할 의향이 있는지 묻는 문항’으로 리커드 6점 척도(0=절대로 참여하지 않음, 5=확실히 참여함)이며, 정치적 효능감은 ‘정치적 그리고 사회적으로 자신이 어떠한 능력 혹은 역량을 갖고 있는가에 대한 개인의 인식을 물어보는 문항’(박진우, 김다은, 2018)으로서 리커드 5점 척도로 측정되었다.

셋째, 종속변수는 ‘지난 주 수입을 목적으로 1시간 일한 경험’을 묻는 질문으로 청년세대의 경제활동 상태를 확인하는 문항이다. 일을 하였다고 응답한 것과 휴가 및 일시휴직상태라고 응답한 유형은 일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재분류하였다.

4. 연구결과 분석

1) 연구대상자 일반적 특성

이 연구에서 사용된 표본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다음 <표 IV-1>과 같다. 먼저 연구대상자 총 2,689명이며, 남(52.3%)·여(47.7%)의 표집은 문제가 없을 정도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연령은 설문조사 당시의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20대는 1,219명(45.3%), 30대는 1,470명(54.7%)으로 30대가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결혼 유무를 보면 결혼을 한 집단(39.2%)보다는 결혼을 하지 않은 집단(60.8%)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최근 청년세대에서 적정 결혼 시기의 연령이 높아지고 있는 사회적 추세와 비슷한 결과라 할 수 있다. 부모의 소득수준은 최하 ①에서 최상 ⑩까지의 척도를 재분류하여 최하(①~③), 중간(④~⑦), 최상(⑧~⑩)으로 살펴본 결과, 최하는 124명(4.6%)으로 매우 낮은 비율로 나타났다. 연구대상자의 대학(교) 진학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자는 총 2,048명이며, 그 중에서 대학(교)의 소재지에 응답한 자는 총 2,046명이다. 서울, 경기, 인천을 수도권으로 재분류하여 살펴본 결과 총 1,079명(52.8%)이며, 그 외 지역은 967명(47.2%)이다.

표 I -11 연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구 분		빈도(명)	비율(%)
성별	남자	1,406	52.3
	여자	1,283	47.7
연령 (생년월일)	만19세~28세(89.6.30~99.6.30)	1,219	45.3
	만29세~39세(78.7.1~89.6.30)	1,470	54.7
결혼	경험 유	1,055	39.2
	경험 무	1,634	60.8
가족배경: 부모소득수준	최하	123	4.6
	중간	2,197	81.7
	최상	369	13.7
대학소재지	수도권	1,079	52.8
	수도권 외	967	47.2

* 주: 각 변수별 세부항목의 결측치(Missing Value)제외.

연구대상자인 2030 청년층의 인구사회학적 요인별 경제활동 경험 간의 관련성을 알아보기 위해 카이제곱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성별, 연령, 부모소득수준, 결혼유무, 대학소재지에 따른 청년의 경제활동에 유의적인 차이가 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남자 청년과 여자 청년 모두 경제활동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나, 남자 청년이 여자 청년보다 경제활동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였다($\chi^2 = 24.607, p < .001$). 둘째, 20대의 청년보다 30대의 청년이 경제활동을 많이 하고 있으며, 차이가 약 25%p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chi^2 = 227.866, p < .001$). 셋째, 결혼을 한 청년과 하지 않은 청년의 경제활동 간에도 분포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이며($\chi^2 = 97.491, p < .001$), 결혼을 한 청년의 경제활동 비율이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넷째, 부모의 소득수준에 따른 청년의 경제활동에 차이가 있는지 확인한 결과, 부모의 소득수준이 최하의 수준이라고 인식한 집단이 경제활동 간에는 분포의 차이가 가장 큰 것으로 확인된다($\chi^2 = 14.551, p < .01$). 다섯째, 청년 세대의 대학교 소재지가 수도권인지 유무에

다른 경제활동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지방권 보다는 수도권 대학교에 진학 경험이 있는 응답자들이 경제활동에 더 적극적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chi^2 = 7.409$, $p < .01$).

표 1-12 연구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경제활동

단위: 명(%)

구 분		경제활동 있음	경제활동 없음
성별	남자	833(75.6)	269(24.4)
	여자	620(65.6)	325(34.4)
	χ^2	24.607***	
연령 (생년월일)	만19세~28세(89.6.30~99.6.30)	719(59.0)	500(41.0)
	만29세~39세(78.7.1~89.6.30)	1,248(84.9)	222(15.1)
	χ^2	227.866***	
결혼	경험 유	631(84.0)	120(16.0)
	경험 무	822(63.5)	473(36.5)
	χ^2	97.491***	
가족배경: 부모소득수준	최하	57(87.7)	8(12.3)
	중간	1,161(70.0)	498(30.0)
	최상	235(72.8)	88(27.2)
	χ^2	14.551**	
대학소재지	수도권	794(73.6)	285(26.4)
	수도권 외	658(68.1)	308(31.9)
	χ^2	7.409**	

* 주: * $p < .05$, ** $p < .01$, *** $p < .001$

2) 주요 변수의 기술통계량

이 연구에서 사용된 주요 변수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기술통계량을 분석하였다. 명목척도에 해당되는 변수를 먼저 살펴보면 여자집단보다 남자집단이, 지방권보다는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에 진학한 집단이, 결혼을 하지 않은 집단이 더 많이 조사된 것으로 확인된다. 경제활동은 평균이 0.70에 분포하여 청년들이 경제활동에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설문문항 69번 문항을 통해 청년이 인식하는 외모의 중요도를 살펴본 결과, 평균이 4.10으로 외모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주관적인 정신건강 수준은 최근 2주간 일상생활을 보내면서 즐거움, 편안함, 활기참 등을 얼마나 느끼고 있는지를 5개의 문항을 통해 살펴봤으며, 그 결과 평균이 15.41로 평균 이상은 본인의 정신건강 수준이 괜찮다고 인식하고 있으나, 전반적으로 ‘보통’수준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사회요인으로 분류한 사회적 관계망은 ‘어려운 상황에서 서로 기댈 수 있는 친구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것으로 평균이 0.94에 분포하여 청년들의 사회적 관계망은 평균 이상 괜찮다고 볼 수 있다. 두 번째로 청년세대가 현재 우리나라가 학벌(학력)중심사회라고 생각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설문 14번 (1)~(3)번을 조사도구로 활용하였다. ‘대학은 반드시 나와야 한다’, ‘한국사회에서 학력은 중요하다’, ‘한국사회에서 학벌은 중요하다’라는 내용으로 점수의 해석은 문항 총점이 높을수록 학벌(학력)중심사회라고 느끼는 것으로 간주되는데, <표 IV-3>를 보면 평균이 11.52에 분포하여 청년들이 학벌(학력)이 중요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는 2017년부터 ‘블라인드 채용’이 확대되었으나 여전히 청년세대는 학벌중심사회라는 인식이 강하다고 볼 수 있다.

세 번째, 정부의 신뢰도는 ‘정부 또는 지자체에서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 졸업을 앞둔 청년세대를 위한 지원이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는지를 묻는

문항으로 문항 총점이 높을수록 청년세대가 정부에 대한 신뢰도가 높다고 볼 수 있다. 그 결과 평균이 5.68에 불과한 것으로 보아 정부에 대한 신뢰가 ‘보통’ 수준에 불과하다고 볼 수 있다. 최근 정부는 청년 세대의 취업지원 등 위해 다양한 지원책을 제시하고 있음에도 청년들은 정부에 대한 높지 않은 것으로 보아, 청년세대를 위한 정부의 지원 대책의 인식 및 실효성 등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넷째, 사회적 참여 수준은 사회적으로 문제가 발생되었을 때, 반대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지 알아본 문항이다. 간접적으로는 인터넷에 글을 올리거나, 서명하기, 리본이나 스티커 등을 착용/부착하는 것과 직접적으로 집회 및 시위, 항의 전화하기'라는 내용으로 구성하였으며, 점수의 해석은 문항 총점이 높을수록 사회적인 문제에 대해 적극 참여하고 의견을 표명한다고 볼 수 있다. 청년들에게 5가지 방법에 대해 참여할 의향이 있는지 살펴본 결과, 평균이 14.31로 보통 수준에서 약간 못 미치는 것으로 확인됐다.

표 1-13 주요 변수의 기술통계량

구 분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개인 요인	성별	.54	.499	0	1
	출신대학교 소재지	.52	.499	0	1
	결혼유무	.36	.482	0	1
	외모 중요도	4.10	.665	1	5
	주관적 정신건강 수준	15.41	4.44	1	25
사회 요인	사회관계망	.94	.237	0	1
	학벌중심사회	11.52	1.82	3	15
	정부의 신뢰도	5.68	1.42	2	10
	사회적 참여	14.31	4.46	5	25
	정치적 효능감	9.67	2.25	3	15
경제활동		.70	.45	0	1

마지막으로 청년의 정치적 효능감을 파악하기 위해 ‘정치적 문제에 대한 이해 및 참여 능력, 가치관과 신념 이 다른 사람을 포용할 수 있는 능력, 선거 및 캠페인

참여를 통해 정치 발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능력(김형주 외, 2018)' 등 3개의 질문을 통해 알아보았다. 기존에 알려진 바에 따르면 청년세대가 기성세대보다 투표율 저조, 낮은 정치 참여 등의 태도를 보여 왔다. 하지만 이번 결과에서는 청년들의 정치관심은 평균 수준보다는 약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M = 9.67$).

3) 연구모형 검증

이 연구는 로지스틱 회귀분석(Logistic regression) 방법을 통해 청년의 경제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지 검증하고자 한다. 분석결과 개인적 요인에서는 성별($p = .000$), 출신대학교 소재지($p < .05$), 결혼 유무($p = .000$)가, 사회적 요인에서는 사회관계망($p < .05$)과 학벌중심사회라는 인식($p < .01$), 정치적 효능감($p < .05$)이 청년의 경제활동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4〉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성별에서 남자는 여자보다 경제활동이 1.7배($\beta = 1.741$)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출신대학교 소재지가 수도권일 때 역시 1.2배($\beta = 1.269$)배의 증가율을 보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결혼을 한 경우에는 경제활동이 3배($\beta = 3.165$) 이상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청년의 경제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적 요인 중에서는 결혼을 한 요인이 출신대학교 소재지보다 경제활동에 더 높은 영향을 준다고 볼 수 있다. 반면, 청년이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외모의 중요도와 주관적인 정신건강 상태는 경제활동을 적극적으로 이끌어 내는데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사회적 요인 중에서는 사회적 관계망이 없는 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보다 경제활동을 1.9배($1/\exp(\beta) = 1.855$)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학벌중심사회라고 인식하는 수준이 낮을수록 경제활동이 1.1배($1/\exp(\beta) = 1.079$)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정치적 효능감이 높을수록 경제활동이 약 1배($\exp(\beta) = 1.059$) 높아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즉, 청년의 경제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요인 중에서는 정치적 효능감 요인이 다른 요인보다 경제활동에 더 높은 영향을 준다고 볼 수 있다.

이 연구의 가설검증을 통해 도출된 결과에 대한 적합도를 최종적으로 살펴보면 $\chi^2 = 160.401(df = 10, p = .000)$ 로서 최종 로지스틱 회귀모형이 적합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추정된 모델의 설명력을 보여주는 Cox & Snell $R^2 = .075$, Nagelkerke $R^2 = .108$ 로 이 연구에서 사용된 개인·사회적 요인이 청년의 경제활동의 변화에 미치는 설명력은 7.5%~10.8%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연구 모형의 정확성은 70.7%이다.

표 1-14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구 분		β	S.E.	Wals	$\exp(\beta)$
개인 요인	성별	.555***	.103	29.211	1.741
	출신대학교 소재지	.238*	.103	5.340	1.269
	결혼유무	1.152***	.118	94.667	3.165
	외모 중요도	.078	.078	1.007	1.081
	주관적 정신건강 수준	.011	.011	.917	1.011
사회 요인	사회관계망	-.618*	.246	6.332	.539
	학벌중심사회	-.076**	.029	6.924	.927
	정부의 신뢰도	-.005	.036	.021	.995
	사회적 참여	.010	.013	.516	1.010
	정치적 효능감	.057*	.026	4.961	1.059
상수항		.448	.576	.606	1.565
χ^2		160.401($df = 10, p < .001$)			
-2 Log Likelihood(-2LL)		2304.001			
Cox & Snell R^2		.075			
Nagelkerke R^2		.108			
Correct Predictions		70.7			

* 주: * $p < .05$, ** $p < .01$, *** $p < .001$

5. 결론 및 정책 제언

1) 주요결과 요약

본 연구는 20~39세 청년의 개인 요인과 사회 요인이 경제활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개인 요인은 성별, 대학 소재지, 결혼 유무, 외모 중요도, 주관적 정신건강 수준이며, 사회 요인은 사회관계망, 학벌중심사회, 정부에 대한 신뢰도, 사회적 참여 수준, 정치적 효능감이다. 본 연구 모형을 분석하기 위해 로지스틱 회귀분석(Logistic Regression)을 실시하였으며 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개인 요인으로는 성별, 출신대학교 소재지, 결혼 유무가 청년의 경제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보다는 남성이, 학교 소재지가 수도권일수록 경제활동이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결혼을 한 경우는 하지 않은 경우보다 경제활동이 3배 이상 높아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 결과는 앞서 살펴본 선행연구와 일치한다. 최요한(2018)의 연구에서는 남성보다 여성이 미취업일 가능성이 높으며, 김수혜(2018)의 연구에서는 수도권 소재 대학 졸업자들일수록 안정적인 일자리 진입 가능성이 높았다. 주휘정과 김민석(2018)의 연구에서도 결혼지위 또한 경제활동 참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사회 요인에서는 사회관계망, 학벌중심사회에 대한 인식, 정치적 효능감이 유의미하게 분석되었다. 사회적 관계망이 적을수록, 학벌중심사회 인식 수준이 낮을수록 청년의 경제활동 참여가 높아졌다. 이는 기존의 선행연구와는 다른 결과를 보여주는 것이다. 문재영과 정기수(2018)의 연구에서 사회적 지지는 청년의 취업 전략 구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으며 이는 본 연구 결과와는 다르다. 문재영과 정기수(2018)의 연구에서는 청년의 경제활동 참여 전 취업 전략 구축에 사회적 지지가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본 연구 결과와 차이가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현 사회가 학벌중심사회라고 인식하는 수준이 낮을수

록 경제활동 참여는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학벌에 대한 지나친 추구가 경제활동 참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수도권 출신 대학 졸업자의 경제활동 참여 증가와 학벌중심 사회에 대한 인식이 낮을수록 경제활동 참여가 감소하는 연구 결과는 상반된 결과로 볼 수 있지만, 청년들의 인식이 학벌중심 사회에서 전공 및 경력 중심 사회로 전환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사회적 관계망이 적을수록 청년이 스스로 생활을 책임져야 하는 부담이 증가하므로 경제활동 참여에 더 적극적으로 임하게 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2) 정책 제언

본 연구 결과를 토대로 청년의 경제활동 참여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적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학, 특히 비수도권 대학의 취업지원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수도권 출신 청년일수록 경제활동 참여가 높아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현재 청년 고용환경이 열악한 실정이므로 비수도권 대학을 졸업한 청년일 경우 경쟁에서 밀려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비수도권 대학이 취업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산업에 특화된 교육을 실시하거나, 현재 산업의 흐름을 반영한 다양한 취업 지원 정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청년이 지원할 수 있는 직장이 수도권이나 대도시에 밀집되어 있는 현실 속에서 비수도권 대학 졸업자들이 취업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비수도권 대학의 취업지원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둘째, 청년의 자기효능감, 내적 힘을 증진시킬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정치적 효능감은 청년의 경제활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는데, 청년 자신이 사회에 관심을 가지고 변화시킬 수 있다고 믿는 힘은 자신이

가진 내적 힘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는 청년의 자기효능감과 연결된다. 자기효능감은 개인이 가진 정서적 특성이지만 가족, 친구, 사회 환경의 지대한 영향을 받는다. 청년이 실패 경험을 지속할 경우 자기효능감, 정치적 효능감은 낮아지게 된다. 치열한 경쟁이 작용하는 취업현장에서 청년의 실패 경험은 내적 효능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는 청년을 둘러싼 고용환경의 변화와도 연결된다. 일상생활 및 고용현장에서 청년이 성공 경험을 할 수 있도록 고용환경을 청년 친화적으로 변화시킬 필요성이 있다. 청년에게 제공하는 취업지원 프로그램 또한 청년이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방향으로 구축되어야 한다. 일례로 서울시, 경기도의 경우 청년층의 경제활동 참여 촉진을 위해 청년모임 플랫폼, 청년기본소득 정책을 마련하고 있다(최석현, 김정훈, 김재신, 2018). 이는 청년들에게 구직 동기를 높이고 심리적 자신감을 회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의 효과성을 심도 있게 분석하여 청년이 경제활동 참여를 기피하고 구직을 포기하지 않도록 청년의 내적 역량강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청년의 경제활동 참여를 위한 통합적 맞춤형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청년의 경제활동 참여는 청년의 개인 및 사회적 특성에 따라 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곧 청년의 경제활동 참여는 청년 개개인의 특성에 따라 달라지며, 청년의 욕구 또한 매우 다양함을 추측해 볼 수 있다. 곧 청년이 학교를 졸업·중퇴한 후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단선적 도식으로는 청년의 경제활동 참여를 촉진하는 정책을 마련하기 힘들다. 고용환경의 불안정성, 양질의 일자리보다 낮은 질의 일자리, 주거 문제, 학자금 대출 등의 채무 등은 청년의 경제활동 참여 욕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청년의 경제활동 참여를 위해 개개인의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통합 지원 체계를 구축해야 하며, 이는 정부부처간의 연계가 반드시 필요하다(김지경, 정연순, 이계백, 2015).

본 연구는 개인요인, 사회요인이 청년의 경제활동 참여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분석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러나 종속변수로 사용한 경제활동 참여를

“지난 주 수입을 목적으로 1시간 이상 일한 경험”으로 정의하였기 때문에, 상용직 뿐만 아니라 일용직, 아르바이트와 같은 일시 노동도 포함하여 분석하였다. 청년의 경제활동 참여 정책을 세우기 위해서는 고용 안정성, 충분한 보수수준과 같은 일자리의 질이 중요하다. 향후 연구에서는 청년이 진입하는 일자리의 질과 관련된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II. 청년의 사회참여에

관한 연구

: 에코세대와 Z세대 비교

- 1. 서론
- 2. 이론적 배경
- 3. 연구방법
- 4. 연구결과
- 5. 결론 및 시사점

1. 서론

우리나라의 교육은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하는데 목적이 있다. 따라서 초·중·고 교육과정에서 추구하는 인간상, 학교급별 교육목표 등에 민주시민 자질 함양 관련 내용을 명시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민주시민의 역량을 민주주의의 기본원리와 핵심가치에 대한 지식과 이해, 타인의 권리와 존엄성을 존중하고 다원성을 인정하는 시민적 관용, 공공생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실천하는 시민적 효능감, 사회·정치적 문제를 객관적으로 파악하는 비판적 사고력, 대화와 토론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과 기술, 약자를 보호하고 정의와 상생의 원칙에 따른 협력과 연대로 정의(교육부, 2018)하고, 교육한다. 특히 대표적 민주시민 역량인 사회참여는 구성원의 적극적 사회 참여와 소통을 반영하는 것으로, 민주주의를 실천하는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책임지는 행위로 강조된다.

기존에는 구성원의 사회참여를 확인하는 지표로 투표율이 많이 활용되었으나, 기술의 발달과 새로운 세대의 등장 등 급변하는 사회 변화에 따라 사회참여의 다양한 행태가 등장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사회참여는 투표행위, 선거활동, 공동체적 행위와 같은 ‘관습적 사회참여’와 가두시위 혹은 항의 행위 등과 같은 ‘비관습 사회참여’로 구분된다(송경재, 2013). 이러한 사회참여는 오프라인상의 참여와 온라인상의 참여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으며(신

2) 이 장은 김동심(한신대학교), 한상윤(연세대학교)이 집필하였음

두철, 2009), 세대에 따라 사회참여 형태의 차이가 나타난다.

중장년층이 오프라인상의 관습적인 사회참여가 높았다면, 청년층은 온라인상의 비관습적인 사회참여가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다(신두철, 2009). 오프라인 사회참여의 대표적 행위인 투표 참여는 청년층이 다른 연령층에 비해 낮은 편이다. 실제로 19대 대통령의 선거투표율을 확인해 보면 40대 74.9%, 50대 78.6%, 60대 84.1%, 70대 81.8%인데 반하여, 30대 전반 74.3%, 20대 후반 74.9% 등과 같이 20~30대의 청년세대는 다른 세대보다 투표율이 낮다(통계청, 2018b). 그러나 빠른 정보통신의 발달로 인한 사회참여 형태의 다양화는 온라인상에서 SNS를 활용한 사회참여 등 청년층의 활발한 사회참여 환경을 만들었다. 대표적인 온라인 사회참여 행위인 국민청원의 영향력에 대하여 20대 76.4%, 30대 88.8%, 40대 86.4%, 50대 80.8%가 인지하고 있음에서도(세계일보, 2018.9.30.), 청년층이 온라인상의 사회참여에 다른 세대에 비하여 더 적극적임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온라인에서의 사회참여는 오프라인에서의 사회참여에도 큰 영향을 미치며, 연령 또한 다양한 사회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로 강조된다(조진만, 2011). 최근 청년은 온라인에서 이루어지는 클라우드 펀딩 등을 통해 오프라인에서의 배지, 팔찌 등과 같은 것으로 자신의 사회적 의견을 적극적으로 표출하는 사회참여활동을 한다. 중장년층과 달리 빠른 기술변화에 따른 정보화를 기반으로 청년은 투표참여 외에도 다양한 형태로 일상생활속의 사회참여를 하고 있다. 사회의 중추적 원동력인 청년의 이러한 사회참여는 민주주의 가치 확산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청년을 대상으로 이러한 다면화된 사회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밝혀내고자 한다. 최근 다양한 사회참여의 유형이 등장함에 따라, 이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개인 및 사회수준의 변인을 찾는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본 연구는 청년의 다층적 차원의 사회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학벌주의, 정치효능감 및 행복을 선정하였다.

먼저, 학벌주의는 학벌이 이익집단의 네트워크로 존재하고 폐쇄적인 경로를 통해 유지되는 것으로, 학벌이 능력과 동일시되어 많은 교육을 받고 특정학교에 다니는 것이 사회적 성공과 직결되는 구조를 지니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의미한다(손종현, 김부태, 2016). 학벌주의는 학력으로 개인의 능력을 대변하는지에 대한 문제, 학벌에 따라 차별화된 사회적 보상이 가능한지에 대한 문제, 학벌이 사회적 기득권으로 작용하여 세습화되거나 제도화됨으로써 불합리적이고 비민주적인 사회계층 구조가 고착화 될 수 있다는 문제 등으로 비판받고 있다(박휴용, 2018). 학벌주의 개선에 대한 사회구성원의 인식은 크나, 변화하지 않는 높은 교육열은 학벌주의가 얼마나 공고한지 입증해주고 있다. 뿌리박힌 학벌주의가 긍정적으로 개선될 것인지에 대해 묻는 것은, 구성원으로서의 개인의 긍정적 사회변화의 신념을 확인해 볼 수 있는 지표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사회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학벌주의를 선정하여 이들 간의 관계를 확인하고자 한다.

정치효능감은 정치 및 사회 변화가 가능하고, 개개인이 변화를 이끄는 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믿는 정도로, 자신의 정치적 행동이 정치 과정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한 개인의 신념을 의미한다(Campbell, Gurin, & Miller, 1954). 정치효능감은 다수의 연구에 의해 실증적으로 정치 참여에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알려져 있으며, 20대의 낮은 투표율에 대해서 낮은 정치효능감을 원인으로 밝히고 있기도 하다(신경아, 김정은, 한미정, 2018). 그러나 사회참여는 단순히 투표행위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청년층의 경우, 온·오프라인의 서명이나, SNS, 팔찌 착용 등을 통해 다층적 차원의 사회참여를 하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 사회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서의 정치효능감을 살펴보고자 한다.

행복은 자신의 삶에 대한 주관적 평가로, 최근 개인의 행복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사회 주요 요소인 정치와의 관련성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행복한 사람이 타인의 문제에 관심이 많아 낮은 사람을 도우려 하며, 투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정치에 참여할 가능성이 높음을 밝히고

있다(Flavin & Keane, 2012). 행복한 삶을 기반으로 정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시민이 많아질수록 성숙한 민주사회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두 변인 간의 관계를 살펴보는 것은 의미가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20대, 30대 청년의 행복은 다른 세대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남에도 불구하고(김미곤, 2017), 국민 전체의 행복 수준은 다른 국가와 비교하여 봤을 때 156개국 중 54위(SDGs, 2019), OECD국가와 비교하여서는 34개국 중 32위에 머무르고 있다. 또한 최근 20대 청년의 우울증과 공황장애 환자 수가 증가하고 있으며, 그 증가추세는 다른 세대보다도 더 빠른 속도이다(김지경 외, 2018). 청년의 일상의 취업스트레스를 기반으로 한 불안감은 경제적 어려움, 갈등 등을 불러일으키고, 우울, 공황장애 그리고 자살까지 이어지는 정신건강상의 문제를 만들어 낸다. 이러한 상황에서 청년의 행복이 사회참여에 어떤 영향력을 미칠지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본 연구는 청년을 에코세대와 Z세대를 구분하여 사회참여, 학벌주의, 정치 효능감 및 행복의 차이를 확인하려 한다. 발달 단계상으로 청년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으나, 에코세대와 Z세대는 엄연히 구분되는 특성을 가진 집단이다. 에코세대는 1955년~1963년에 태어난 베이비붐세대의 자녀들로서, 1979년에서 1994년도에 태어난 세대이다. 이들은 IMF 경제위기 이후에 대학 시절을 보내고, 실업, 결혼, 출생 등의 사회 문제를 접근해야 함을 처음으로 논의하게 된 세대이다. 반면, Z세대는 태어나서부터 디지털기기를 기반으로 한 지식정보화시대를 살아간 세대로 1995년 이후 출생자이다. 이들 대부분은 현재 대학생으로, 에코세대부터 이어져 온 사회문제가 심화된 세대이다. 이러한 세대에 의한 차이 연구는 한 세대가 나이가 증가하면서 변화하는 연령효과와 구분되어야 한다. 동일한 사회경제구조 하에서 삶을 영위해오는 특정 연령집단이 공유하는 경험에 의한 차이(이영민, 2010)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서는 세대별로 특성을 밝혀내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청년을 에코세대와 Z세대로 구분하고, 두 집단의 차이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종합하여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두 개의 연구문제를 논의하는 데 목적이 있다. 첫째, 청년의 학벌주의, 정치효능감 및 행복은 사회참여에 영향을 미치는가? 둘째, 에코세대와 Z세대의 사회참여, 학벌주의, 정치효능감 및 행복은 차이가 있는가? 이다. 이를 바탕으로 향후 청년의 사회참여를 함양하고, 각 변인별 차이에 따른 정책, 교육 등 사회 전반의 개입점에 대한 논의의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2. 이론적 배경

1) 사회참여

일반적으로 사회참여란,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대인관계 혹은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상황에 영향을 미치는 활동을 의미한다(McBride, 2003). 김대환(1997)은 참여를 사회의 보통 구성원이 의사결정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거나 영향을 미치고자 하는 행위라고 정의하였다. 또한 사회참여를 생산적 활동 혹은 타인과의 관계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보기도 하는데, 즉 사회적 관계를 적극적으로 지속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Rowe & Kahn, 1997). 한편 사회참여를 크게 두 가지 개념으로 나누어 보기도 하는데 투표 및 선거 등의 관습적 참여와 시위나 항의 등의 비관습적 참여로 구분하여 보기도 한다(송경재, 2013). 사회참여를 협의로 해석하여 투표나 캠페인 등의 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것으로 정의하거나 광의로 해석하여 정치 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형태의 시민 활동에 참여하는 것으로 보기도 한다(김한나, 2016). 이 외에도 사회참여는 다수의 연구에서 매우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는데, 이는 사회참여가 사회라는 큰 범주 안에서 시민참여, 혹은 정치참여 등 비슷한 참여의 개념들과 구분 없이 쓰여 왔기 때문이다(김대건, 2018).

이와 같은 사회참여는 사회적 자본의 축적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며 다양한 사회적 자본, 즉 온라인상의 사회적 참여 경험, 밋지나 리본 등의 의견을 표현하는

경험, 서명이나 집회 및 시위 참여 등의 경험들이 복합적이고 다층적으로 축적된 개념이다(김준홍, 2012). 또한 현재의 사회참여는 현대 사회의 기술 발전과 더불어 오프라인을 벗어나 SNS 등 온라인 공간으로까지 그 반경을 넓히고 있다. 특히 웹 2.0시대에 살고 있는 청년세대의 특징은 모바일과 인터넷을 표현수단으로 삼으며, 이를 통한 사회비판의식을 가지고 있다는 점으로 사회참여는 기존의 투표, 집회, 시위 등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SNS, 홈페이지, 블로그 등을 통한 의견 표출과 함께 온라인 서명 등으로 다차원화 되고 있다(이창호, 정의철, 2008). 이러한 온라인 시민참여와 관련된 사이버 공간은 신 거버넌스의 주요 통로일 뿐 아니라 필수적 공간으로써 앞으로의 사회 참여에 있어 매우 중요한 변화의 공간으로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다(민병익, 이시원, 2009).

이에 본 연구에서는 사회참여를 SNS를 활용한 참여, 뱃지나 리본 등의 부착 등을 통한 참여, 온·오프라인 서명 참여, 집회 및 시위 참여, 항의 전화를 통한 참여와 같이 선거참여와 같은 관습적 참여가 아닌 일상생활 속에서 이루어 질 수 있는 비관습적 참여로 정의하고, 청년이 인지하고 있는 개개인의 사회참여에 대한 적극성에 대한 인식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2) 사회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1) 학벌주의와 사회참여

학벌주의란, 우리 사회에서의 학벌의 중요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사회의 계급 의식과 계급 갈등의 특징적 단면을 바라보게 해주는 개념이다(이건만, 2007). 또한 우리나라의 강한 교육열로 인한 부정적 결과로 우리 사회에서 살아가기 위한 가장 큰 경쟁력 중 하나로 학벌을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학력이 임금, 결혼, 직장 등 사회적 지위를 결정한다는 인식을 의미한다(강인원, 전성일, 2003). 김태준 (2003)은 학력을 중요한 사회적 가치로 인정하는 가치관 혹은 사고체계로, 이는

학력이 그 사람의 능력을 판단하는 데 절대적인 기준이라고 생각하는 고정관념이나 편견이라고 정의하였다. 이러한 학벌주의를 두고 김동춘(2001)은 ‘현대판 신분 계급제’라고도 이야기하였다.

이렇듯 학벌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 사회가 경직되었음을 의미하며, 정부 및 국가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므로 이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참여에 대한 욕구가 높아지게 된다(정용교, 이화경, 2012). 그러므로 다수의 연구에서 학벌주의가 심할수록 사회참여가 높아진다는 결과를 보고하고 있다. 이지호(2017)의 연구는 사회경제적 불만 가설을 기반으로 사회가 공정하지 않고, 격차가 심하며 계층 이동 가능성이 닫혀있다고 생각할수록 집회에 참여할 가능성이 높음을 보고하였다. 김태준(2003)은 19-65세 성인을 대상으로 그들의 학력주의 성향과 함께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았다. 학력주의 성향은 세대 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저연령층, 즉 청년 세대의 경우 학력보다는 능력 위주의 사회를 지향하고 있고 학벌주의의 비합리적 신념에 대한 부정적 감정의 표출과 함께 변화를 위한 참여 의향이 높음이 확인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학벌주의가 청년의 사회참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구체적으로 파악함으로써 청년의 사회참여 함양을 위한 개입방안을 제시하고, 에코세대 및 Z세대별 이에 따른 차이 및 특성을 확인하고자 한다.

(2) 정치효능감과 사회참여

정치효능감이란, 정치적 활동이나 정치 개입에 있어 자기 확인 혹은 스스로의 정치적 능력감으로 정의된다(안형기, 신범순, 2006). 이는 자신이 정치적 의사 결정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필요한 자원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내적 효능감과 정부가 시민의 요구에 얼마나 반응하는가에 대한 개인의 태도를 의미하는 외적 효능감, 두 가지 개념으로 나누어 볼 수도 있다(이지호, 2017).

다수의 연구에서 이와 같은 정치효능감은 사회참여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일관되게 보고하고 있다. 박노일과 한정호(2008)는 블로그 이용자 812명을 대상으로 정치효능감과 사회정치참여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정치효능감이 높을수록 사회참여에 적극적이라는 결과를 밝혔다. 송경재(2013)의 연구에서는 이메일 패널을 활용하여 1,052명을 대상으로 시민참여의향에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였는데 본인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적극적이고 긍정적일수록, 즉 사회적 자본이 축적될수록 시민참여의향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지인과 박세정(2015)의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여성의 사회참여가 부진한 원인을 찾는데 있어 관련 정책 제정 시, 실제 여성의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는 점을 문제로 지적하였다. 이는 여성의 낮은 정치효능감이 부진한 사회참여로 이어진 것을 보여주는 결과로 정책결정과정에서 있어 충실한 의견 수렴이 있어야만 사회 참여를 높일 수 있음을 제안하였다. 그리고 안형기와 신범순(2006)은 총 2,138명의 네티즌을 대상으로 정치효능감과 정치참여욕구를 살펴본 결과, 정치효능감이 높은 경우, 정치참여욕구 또한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이창호와 정의철(2008)의 연구에서는 청소년들이 자발적이고 주체적으로 사회에 대한 의견을 표현함에 있어 자신감을 가짐으로써 사회에 대한 의사표현을 적극적으로 함을 보고하였다. 즉, 네티즌,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대다수의 연구에서 정치효능감이 높을수록 사회참여가 또한 높아진다는 다수의 연구 결과와 일치하는 결과를 보여주었다.

위의 선행연구 결과와 같이 정치효능감은 사회참여에 있어 매우 중요하게 살펴보아야 할 요인으로, 본 연구에서는 청년의 세대별 정치효능감의 차이를 알아보고 이에 따른 사회참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3) 행복과 사회참여

행복의 정의는 여러 연구에 의해 다양하게 내려지고 있다. 여러 연구의 행복에

대한 정의를 정리하자면 행복은 기쁜 상태, 정적인 정서를 가진 상태에서 삶의 만족감을 경험하는 것을 의미한다(Argyle, 2001). 또한 행복은 우리가 우리의 삶을 긍정적으로 느끼고 평가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이양호, 지은주, 권혁용, 2013). 그렇기에 이는 웰빙, 주관적 안녕감 혹은 삶의 만족도 등과 비슷한 의미로 사용되기도 한다(전경숙, 정태연, 2009).

행복 혹은 주관적 안녕감, 삶의 만족도가 사회참여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연구는 다수 이루어졌는데 연구 결과는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다. 행복이 사회참여에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한 연구로는 정명은, 김미현과 장용석(2014)의 연구가 있는데, 이 연구에서는 2005년부터 2012년까지 조사된 서울 서베이 자료를 활용하여 행복과 사회자본 간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행복한 개인들로 구성된 사회일수록 더욱 적극적으로 사회에 참여하고, 지역 공동체를 이뤄 함께 사회통합을 이루어 나가려는 노력을 하는 경향이 있음을 밝혔다. 국외에서도 Flavin과 Keane(2012)이 주로 행복이 종속변수, 사회참여가 독립변수로 다루어지는 한계를 지적하면서 미국의 국립미국선거연구(American National Election Study, ANE)의 데이터를 통해 자신의 삶을 행복하게 삶을 만족하고 있는 사람이 투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반면 행복이 사회참여에 부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한 연구로는 장승진(2011)의 연구가 있는데, 2009년 제7차 한국종합사회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한국인들이 느끼는 삶의 만족도가 사회참여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삶의 만족도가 낮을수록 즉 행복하지 않을수록 사회 및 정치에 대한 참여 의향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사회가 불평등하다고 느끼고, 잘못된 정책이 시행되고 있다고 느끼기 때문이며 이에 대한 불만이 사회참여로 표출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와 같이 행복은 사회참여에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이나, 이에 대한 정적, 부정적 영향력은 연구별로 다소 다른 결과를 보고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에코세대 및 Z세대의 세대별 행복을 비교하고, 청년의 행복이 사회참여에 있어 어떤 영향력을 보이는지 확인하여 청년 사회참여 함양을 위한 시사점을 제공하고 자 한다.

3) 에코세대와 Z세대

우리나라의 청년세대는 일명 P세대라고 불린다. P는 사회참여, 즉 Participation의 약자로 적극적인 사회참여로 사회 패러다임의 변화를 일으키는 세대라는 의미이다. 인터넷이 급속도로 발달하면서 사회참여에 대한 인식 및 형태 또한 빠르게 변화했으며, 2002년 월드컵,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가장 최근의 대통령 탄핵 촉구 촛불 집회에 이르기까지 청년들의 사회참여는 대규모로 조직적으로 이루어졌다. 더하여 사회참여에 대한 성과를 거둠으로써 사회참여가 다른 세대와는 다른 양상을 띄고 있다(이창호, 정의철, 2008). 이러한 현재의 청년세대는 또 크게 두 세대로 구분되는데 에코세대와 Z세대이다.

에코세대는 베이비붐 세대의 자녀들로 그 후속 세대라는 의미로 메아리 세대, 즉 에코라고 명명되었다(박덕배, 2012). 일반적으로 1979년에서 1992년에 태어난 세대들로, 세부 출생연도는 각 연구별로 조금씩 다르게 설정되기도 한다. 에코세대는 비교적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환경에서 성장한 세대로 높은 수준의 교육을 받고 문화나 유행에 민감하며 사회에 비교적 관심이 많은 세대이다(여관현, 박민진, 2014). 이는 생애 중 2002월드컵, 디지털 문화 발달 등의 기쁨과 IMF와 글로벌 경제 위기 등의 절망을 모두 겪어본 세대이기 때문이기도 하다(이성훈, 최민섭, 2015).

Z세대는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로 출생부터 모바일을 비롯한 디지털 환경 속에서 성장하였다. 이들은 디지털 환경을 통한 사회 참여에 능숙하며, 자유주의적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고 정체성이 복잡하다(오수연, 2018). 또한 매우 개인적이고

독립적이며, 인종, 성별, 종교 등에 편견 없는 세대이다(박혜숙, 2016). 다만 세계 경제가 어려운 시기에 아르바이트, 취업 등에서 어려움을 겪다 보니 전 세계적으로, 예외 없이 한국의 Z세대 또한 사회적 무기력증이 심각한 상황이다. 이에 대충 먹고 살자, 방법이 없다 등의 무기력증과 절망감은 사회 참여나 정치 참여에 있어 에코세대에 비하여 적극적이지 못한 측면이 있다(뉴스위크, 2016.06.27.).

이와 같이 세대는 같은 시기에 태어나 비슷한 성장 경험과 가치관을 공유하는 사람들로(이은희, 김경자, 이성림, 유현정, 차경욱, 이영애 외, 2015), 현재는 같은 청년이지만 에코세대와 Z세대는 각기 다른 세대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 즉 삶의 질과 생활상, 주거여건, 가치관 등 사회 특성이 상이하다. 그러므로 이들 각 세대 간의 특성을 파악하여 정책을 살펴보고 마련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윤혜진, 김영문, 김은희, 2016).

그러나 현상 분석에 있어 세대 특성을 감안하여 본 대부분의 기존연구는 베이비붐세대 관련 연구에 집중되어 있다(김미령, 권순재, 박충선, 2012; 임연옥, 박재연, 윤현숙, 2011). 그리고 세대 간 특징을 비교해서 본 연구 또한 베이비붐세대와 다른 세대 간의 비교에 한정되어 있다. 강철희, 황지민 및 이경혜(2015)의 연구에서는 자원봉사행동에 있어 세대 간 차이의 존재 유무를 분석하면서 베이비붐세대와 그 이전, 이후 세대와의 비교 결과를 보고하였다. 강상경(2012)은 세대 간의 삶의 만족도 및 관련 요인의 차이를 보는데, 마찬가지로 베이비붐세대와 이전, 이후 세대를 비교함으로써 세대별 효과적인 개입 방안을 제안하였다. 또한 여관현과 박민진(2014)은 세대 간 사회 특성을 비교 분석하는 데 있어 베이비붐세대와 에코세대를 함께 봄으로써 각 세대별 특성에 대응하는 서울시의 지역정책을 연구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선행연구에서 많이 이루어진 베이비붐세대와의 비교가 아닌, 현재 우리나라 청년 세대인 에코세대와 Z세대, 두 세대를 비교함으로써 우리나라 청년의 사회참여에 대한 특징을 세분화하여 규명하고자 한다.

3.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2018년도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 자료를 활용하였다.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는 2018년 7월 30일부터 9월 5일까지 약 5주간 실시되었고, 조사 시점 국내에 거주하는 전국 17개 시, 도의 만 15~39세의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하였다.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는 청년들의 가치관 및 삶에 대한 실태를 파악함과 동시에 청년 대상 정책 및 제도 수립, 실천적 개입 방안 마련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가능한 국가승인통계 조사이다. 조사를 위한 표본설계에서는 2016년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결과를 표본추출틀로 활용하여 300개의 표본조사구를 추출하였고, 표본추출은 층화2단추출법을 적용하였다. 1차 추출단위는 조사구이고, 2차 추출단위는 가구 및 만 15~39세 청년이다. 표본배분방식은 층화비례배분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 중 중·고등학생용 조사가 이루어진 만15~18세를 제외하고, 청년용 조사가 이루어진 만 19~39세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청년용 총 조사인원은 2,641명이었다. 이 중 불성실한 응답자 147명을 제외한 총 2,494명을 최종 연구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청년을 세대로 구분하였다. 에코세대는 1978-1992년생, Z세대는 1993-2000년생까지로 정의하여 살펴보았다. 에코세대는 총 1,880명, Z세대는 총 614명이 연구대상으로 이들의 일반적 특성은 표 II-1과 같다. 전체 성별의 비율은 남자 49.6%(1,237명), 여성 50.4%(1,257명)이고 세대별로도 에코세대는 여성 50.4%(948명), Z세대는 여성 50.3%(309명)이다. 학력은 Z세대가 현재 대학생이 많기 때문에 대부분이 고등학교 졸업 학력을 가지고 있으며, 에코세대는 대학교 졸업 이상이 72.1%(1,355명)로 나타났다.

표 II-1 세대별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예코세대	Z세대	전체
		명수(%)	명수(%)	명수(%)
성별	남자	932(49.6)	305(49.7)	1,237(49.6)
	여자	948(50.4)	309(50.3)	1,257(50.4)
학력	중학교 졸업	6(0.3)	2(0.3)	8(0.3)
	고등학교 졸업	519(27.6)	468(76.2)	987(39.6)
	대학교 졸업 이상	1,355(72.1)	144(23.5)	1,499(60.1)
전체		1,880(75.4)	614(24.6)	2,494(100.0)

2) 측정도구

본 연구를 위하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2018년도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 자료 설문 문항을 활용하였다.

(1) 학벌주의

학벌주의는 총 3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우리 사회에서 대학 졸업의 필수성, 우리 사회에서 학력의 중요성, 우리 사회에서 학벌의 중요성으로 구성되었다(예: 한국 사회에서 어느 학교를 나왔는지는 중요하다). 본 문항은 5점 Likert 척도(1 = 전혀 그렇지 않다, 2 = 그렇지 않다, 3 = 보통이다, 4 = 그렇다, 5 = 매우 그렇다)가 사용되었다.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2요인으로 이루어져 묶음지표를 활용하였으며, KMO값은 .67, Bartlett 구형성 검정치는 1,932.82($p = .00$)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Cronbach의 α 는 .75이다.

(2) 정치효능감

정치효능감은 총 3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정치적 문제 이해 및 참여에 대한 효능감, 가치관이나 신념이 다른 사람에 대한 포용 및 이해에 대한 효능감, 정치 발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효능감으로 구성되었다(예: 나는 정치적 문제를 이해하고 참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본 문항은 5점 Likert 척도(1 = 전혀 그렇지 않다, 2 = 그렇지 않다, 3 = 보통이다, 4 = 그렇다, 5 = 매우 그렇다)가 사용되었다.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2요인으로 이루어져 묶음지표를 활용하였으며, KMO값은 .70, Bartlett 구형성 검정치는 2,374.49($p = .00$)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Cronbach의 α 는 .80이다.

(3) 행복

행복은 총 5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밝고 즐거운 기분, 차분하고 편안함, 활동적이고 활기참, 피로 정도와 상쾌함, 일상의 흥미로움 등으로 구성되었다(예: 나는 밝고 즐거운 기분임을 느낀다). 본 문항은 6점 Likert 척도(0 = 절대로 그렇지 않다, 1 = 때때로 그렇다, 2 = 2주의 절반 이하는 그렇다, 3 = 2주의 절반 이상은 그렇다, 4 = 대부분 그렇다, 5 = 항상 그렇다)가 사용되었다.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2요인으로 이루어져 묶음지표를 활용하였으며, KMO값은 .88, Bartlett 구형성 검정치는 6,309.36($p = .00$)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Cronbach의 α 는 .88이다.

(4) 사회참여

사회참여는 총 5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의견을 제시하기 위한 SNS를 활용한 참여, 뱃지나 리본 등의 부착 등을 통한 참여, 온·오프라인 서명 참여, 집회

및 시위 참여, 항의 전화를 통한 참여 등으로 구성되었다(예: 집회 및 시위에 참여하기). 본 문항은 5점 Likert 척도(1 = 절대로 참여하지 않음, 2 = 아마도 참여하지 않음, 3 = 보통이다, 4 = 아마도 참여함, 5 = 확실히 참여함)가 사용되었다.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2요인으로 이루어져 묶음지표를 활용하였으며, KMO값은 .82, Bartlett 구형성 검정치는 6,411.28($p = .00$)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Cronbach의 α 는 .87이다.

3) 자료 분석방법

우리나라 청년의 세대에 따른 학벌주의, 정치효능감, 행복 및 사회참여 간의 인과적 구조 관계 및 차이를 살펴보기 위하여 통계적 모형을 선정하였고, 연구모형에서 각 잠재변수들은 측정변수를 이용하여 수학적으로 측정되는 잠재변수로 설정되었다.

첫째, 학벌주의, 정치효능감, 행복 및 사회참여를 측정하기 위해 사용된 연구도구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검증하였다. 먼저, 신뢰도 검증을 위해 문항내적일관성 계수인 Cronbach의 α 를 구하였다.

둘째, 탐색적 요인분석(Exploratory Factor Analysis, EFA)을 통해 데이터가 요인분석에 적절한지 판단하기 위해 KMO 값과 Bartlett의 구형성 검정치를 구하였다. KMO값은 관측된 상관계수들의 값과 편상관계수들의 값을 비교하는 것이며, Bartlett 구형성 검정치는 변수들간의 상관관계를 통해 공통요인이 존재하는지 확인하는 것으로 p 값의 유의성을 확인하였다. KMO 값과 Bartlett의 구형성 검정치를 확인한 후,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단요인으로 판명된 학벌주의, 정치효능감, 행복 및 사회참여는 묶음지표(item parcel)를 사용하여 측정변인을 설정하였다. Sass와 Smith(2006)은 묶음지표를 사용하게 되면 잠재변인을 측정하는 측정변인의 수를 줄일 수 있고 측정오차를 줄일 수 있어, 개별문항 사용

과 비교하여 구조방정식의 가정 조건인 다변량정규성을 충족시킬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하였다.

셋째, 통계적 모형은 AMOS를 사용하여 구조방정식모형의 측정변수에 대한 다변량정규분포성을 검증하였고, 측정변수별 왜도와 첨도는 기술통계분석결과 정규분포 조건을 만족하였다.

넷째, 측정변수간의 상관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학벌주의, 정치효능감, 행복 및 사회참여 간의 상관 분석을 실시하였다. 모든 변수간의 상관은 .05수준에서 모두 유의한 것을 확인하였다.

다섯째, 측정모형의 부합도와 측정도구의 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해 확인적 요인 분석(Confirmatory Factor Analysis, CFA)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표본 크기에 민감한 χ^2 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부합도를 TLI, CFI 및 RMSEA를 기준으로 사용하였다. 먼저, 절대부합지수인 RMSEA는 값이 .05 이하이면 근사 부합도(close fit), .05 ~ .08이면 수용할만한 부합도(reasonable fit), .10 이상이면 부적절한 부합도라고 해석할 수 있다(Browne & Cudeck, 1993). TLI는 0에서 1사이의 값을 가지며, 1에 가까운 값을 가지면, 모형의 부합도가 좋다고 판단한다. 대부분 .900 미만은 안 좋은 부합도(poor fit), .900 이상은 괜찮은 부합도(fair fit), .950 이상은 좋은 부합도(good fit)라고 해석한다(김수영, 2016). CFI는 .950이상의 값을 가져야 한다(Hu & Bentler, 1999).

여섯째, 잠재평균 분석을 위해서는 단계적으로 형태동일성(configural invariance), 측정동일성(metric invariance) 및 절편동일성(structural invariance)의 제약이 성립되어야 한다. 형태동일성은 요인의 구성이 집단 간 동일한지, 측정동일성은 집단간 요인 적재치가 동일한지, 절편동일성은 개념 평균이 같은지를 확인하는 과정이다. 동일성 검증을 위해서 모형간의 CFI와 RMSEA 부합도의 차이를 활용하였으며, 표본이 300명 이상인 경우, CFI는 .010 이하, RMSEA는 .015 이하이면 동일성 제약이 성립 한다(Chen, 2007).

3가지 동일성 제약을 확보한 이후에는 추정된 잠재평균의 상대적인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Cohen(1988)의 효과 크기를 사용하였다. p 값을 통한 잠재평균의 유의성은 관찰된 현상이 기존에 알려진 확률분포와 비교하여 볼 때 어느 정도로 희귀하게 발생하는지에 대한 확률적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효과 크기는 실제 연구된 데이터에서 비교하려는 집단 사이의 차이를 직접적으로 기술해 준다는 장점이 있다(남상건, 2015). 두 집단의 표준편차를 고려하여, 집단 평균 차이를 표준화한 Cohen(1988)의 효과 크기를 산출하기 위해서는 개념 간의 공분산을 제약하는 과정인 요인분산동일성(factor covariance invariance)이 검증되어야 한다. 표 II-2처럼 구해진 Cohen의 효과 크기는 값이 .200 이하면 작은 수준, .500를 기준으로 .200에서 .800사이는 중간 수준, .800 이상이면 큰 수준으로 해석된다.

표 II-2 Cohen의 효과크기 계산식

$$\text{효과크기}(d) = \frac{\text{잠재변인간의 평균 차이}}{\text{공통의 표준편차}}$$

그리고 이를 통하여 세대별 즉, 에코세대 및 Z세대의 변수들 간 평균의 차이가 있는지 평균값 차이의 유의미성을 검증하는 잠재평균분석을 실시하였다. 잠재평균 분석은 집단 간의 측정모형이 동일한 속성을 측정하고 있는가를 살펴보고, 잠재변수의 추정미지수의 집단 간 차이를 비교하는 것으로써 잠재변인의 평균 차이의 유의성을 분석한다. 전통적으로 집단 간 차이를 분석하는 t -검증(t -test), ANOVA(Analysis Of VAriance), MANOVA(Multivariate Analysis of VAriance) 등은 측정오차에 의해 영향을 받기 때문에, 측정오차를 통제하여 잠재변수의 평균을 비교하는 잠재평균 분석이 보다 정확한 방법이다(김주환, 홍세희, 김민규, 2009). 모든 변수들 간의 직접효과는 유의수준 .05에서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하였다.

4. 연구결과

1) 기술통계 및 상관분석결과

구조방정식모형에서 각 측정변수들이 정상분포를 이루지 않을 경우, 다변량정규성의 가정을 충족시킬 수 없고 그 결과 왜곡된 추정치를 얻게 되어 정확한 통계적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에 수집된 자료에 대한 다변량정규성을 확인하기 위해 평균과 표준편차, 왜도 및 첨도를 검토하였다.

다음 표 II-3과 같이 에코세대와 Z세대인 청년층을 모두 포함한 변수들의 평균은 최소 2.56에서 최고 3.86, 표준편차는 최소 .70에서 최고 1.04이었으며, 왜도는 절대값 최소 .03에서 최대 .73, 첨도는 절대값 최소 .31에서 최고 .70의 값을 보였다. 측정변수의 표준왜도가 3보다 작고 표준첨도의 절대값이 10보다 작으면 구조방정식 모형 하에서의 정상분포 조건이 충족되므로(Kline, 2015), 본 연구에서의 구조방정식 모형검증에서 다변량정규성의 기본가정이 만족되었다고 할 수 있다. 행복을 제외한 변수들의 최소값은 1.00, 최대값 5.00으로 나타났다. 행복은 최소값 0.00, 최대값은 5.00으로 나타났다.

또한 에코세대와 Z세대 청년 모두의 학별주의, 정치효능감, 행복 및 사회참여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모두 유의수준 .05에서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표 II-3 측정변수의 상호상관행렬 및 기술통계치

(N = 2,494)

측정변수	1	2	3	4	5	6	7	8
1	-							
2	.63*	-						
3	.12*	.11*	-					
4	.11*	.12*	.65*	-				
5	.11*	.07*	.08*	.13*	-			
6	.11*	.04*	.06*	.10*	.78*	-		
7	.12*	.12*	.41*	.48*	.12*	.07*	-	
8	.10*	.12*	.30*	.36*	.09*	.10*	.67*	-
평균	3.71	3.86	3.19	3.18	3.16	2.89	3.01	2.56
표준편차	.70	.78	.87	.77	.91	1.04	.90	.93
왜도	-.73	-.54	-.47	-.52	-.49	-.43	-.40	.03
첨도	.58	.45	-.46	.35	-.31	-.54	-.67	-.70

* 주: 1) * $p < .05$
2) 1: 학벌주의A, 2: 학벌주의B, 3: 정치효능감A, 4: 정치효능감B, 5: 행복A, 6: 행복B, 7: 사회참여A, 8: 사회참여B

2) 측정모형의 검증

연구모형인 구조회귀모형의 모형추정가능성과 부합도를 검증하기 전에 2단계 모형추정가능성 확인절차(Kline, 2015)에 따라 최대우도추정법(Maximum Likelihood, ML)에 의한 측정모형의 부합도를 추정하였다. 부합도 검증결과는 표 II-4와 같다.

$\chi^2 = 55.490$ ($p < .05$)로 나타나 측정모형이 수집된 자료에는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χ^2 검증법은 표본의 크기, 다변량정규분포, 측정변수의 수 등에 민감하다는 단점이 있으므로 χ^2 검증법과 함께 다른 부합도 지수들을 함께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Hair, Black, Babin, & Anderson, 2009). 이에 따라 TLI, CFI, RMSEA를 함께 고려하여 측정모형의 부합도를 분석하였다.

표 II-4 측정모형의 부합도 검증결과

(N = 2,494)

구분	χ^2	p	df	TLI	CFI	RMSEA (90% 신뢰구간)
측정모형	55.490	.000	18	.990	.994	.033 (.024~.042)
기준값				> .900	> .950	< .08

* 주: RMSEA가 < .05이면 좋은 부합도(close fit), < .08이면 괜찮은 부합도(reasonable fit), > .10이면 나쁜 부합도(Browne & Cudeck, 1993)

측정모형의 TLI는 .990, CFI는 .994, RMSEA는 .033(.024 ~ .042)으로 기준값과 비교할 때 좋은 부합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본 연구에서 수집한 자료를 통해 각 잠재변인이 신뢰할 만하며, 타당하게 측정되었음을 의미한다. 이에 따른 측정모형의 경로계수 추정치 결과는 다음 표 II-5와 같다. 각각의 잠재변수에 대한 측정변수가 .71이상으로 기준인 .50이상임이 확인되었다.

표 II-5 측정모형의 경로계수 추정치

(N = 2,494)

잠재변수	측정변수	요인 부하량	표준요인 부하량	표준오차	t
학벌주의	학벌주의A	1.000	.841	.111	9.109*
	학벌주의B	1.011	.746		
정치효능감	정치효능감A	1.000	.741	.036	26.440*
	정치효능감B	.951	.878		
행복	행복A	1.000	.997	.018	61.279*
	행복B	1.118	.778		
사회참여	사회참여A	1.000	.942	.050	25.433*
	사회참여B	1.275	.711		

* 주: * $p < .05$

3) 구조모형의 검증

통계적 모형을 구성하는 측정모형의 모든 부합도 지수가 부합도 기준을 충족시키는 것으로 나타났고, 구조모형의 추정가능성이 이론적으로 확인되었기 때문에 최대우도추정법을 통해 연구모형의 부합도를 추정하였다. 연구모형이 수집된 자료에 부합하는지를 살펴본 구체적 결과는 표 II-6과 같다. 부합도 지수를 확인한 결과 구조모형의 부합도는 $\chi^2 = 101.492$ ($p < .05$)로 나타났으나, TLI = .982, CFI = .989, RMSEA = .043(.044 ~ .062)으로 나타남에 따라 양호한 모형으로 판단할 수 있다.

표 II-6 구조모형의 부합도 검증결과

(N = 2,494)

구분	χ^2	p	df	TLI	CFI	RMSEA (90% 신뢰구간)
구조모형	101.492	.000	18	.982	.989	.043 (.035~.051)
기준값				> .900	> .950	< .08

우리나라 청년의 세대에 따른 학벌주의, 정치효능감, 행복 및 사회참여 간의 영향력을 검증하기 위해 구조모형 경로계수의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한 결과는 표 II-7과 같다. 첫째, 학벌주의가 사회참여에 미치는 영향력은 $\beta = .065$ ($t = 2.881$, $p < .05$)로 유의한 것으로 밝혀졌다. 둘째, 정치효능감이 사회참여에 미치는 영향력은 $\beta = .585$ ($t = 25.183$, $p < .05$)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행복이 사회참여에 미치는 영향력은 $\beta = .046$ ($t = 2.239$, $p < .05$)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7 구조모형의 경로계수 추정치

(N= 2,494)

변수간 경로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표준오차	t	p
사회 참여 의향	←	학벌주의	.084	.065	.029	2.881*	.004
	←	정치효능감	.667	.585	.026	25.183*	.000
	←	행복	.041	.046	.018	2.239*	.025

*p<.05, **p<.01, ***p<.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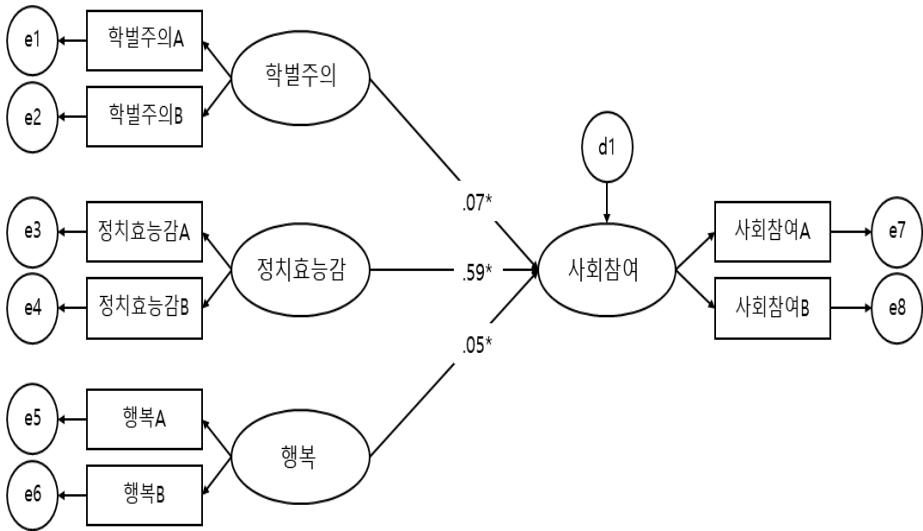


그림 II-1. 구조모형의 표준화 경로계수

* 주: *p<.05

4) 세대에 따른 잠재평균 비교

(1) 동일성 검증

잠재평균 분석은 평균값을 직접 비교하는 ANOVA에 비해 각 변인 간 측정오차를 고려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연구방법으로 잠재평균 분석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형태동일성, 측정동일성 및 절편동일성이 성립되어야 한다(Hong, Malik, & Lee, 2003). 그리고 잠재평균에 따른 효과 차이를 보기 위한 요인분산동일성 검증이 필요하다. 이에 이들을 단계별로 검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단계적으로 각 동일성 검증 모형의 적합도 지수를 표 II-8과 같이 살펴본 결과, 이전 모형에 비하여 나빠지지 않은 것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위의 결과들을 종합해보면 모든 동일성의 가정이 성립됨을 알 수 있다.

표 II-8 동일성 검증에 대한 부합도 지수

구분	χ^2	p	df	TLI	CFI	RMSEA (90%신뢰구간)	Δ TLI	Δ RMSEA
(모형 1) 형태동일성	95.01	.00	30	.983	.991	.029 (.023~.036)	-	-
(모형 2) 측정동일성	99.05	.00	34	.985	.991	.028 (.021~.034)	.002	.001
(모형 3) 절편동일성	123.83	.00	42	.985	.989	.028 (.022~.034)	.000	.000
(모형 4) 요인분산 동일성	129.46	.00	46	.986	.989	.027 (.022~.033)	.001	.001
기준값				> .900	> .950	< .08	$\leq$.010	$\leq$.015

(2) 잠재평균 비교

잠재평균 분석을 위한 형태동일성, 측정동일성 및 절편동일성이 모두 만족되어 에코세대와 Z세대 간의 학별주의, 정치효능감, 행복 및 사회참여에 대한 잠재평균을 비교하였다. 잠재평균 분석은 상수 1을 각 요인에 대한 독립변수로 사용하여, 여기에서 추정되는 회귀계수가 요인의 평균인 잠재평균이 되는 것이다(홍세희, 황매향, 이은설, 2005). 본 연구에서는 에코세대를 참조집단으로 하여 그 집단의 잠재평균을 0으로 고정하고, Z세대의 잠재평균을 추정하였다. 결과는 다음 표 II-9와 같다.

이렇게 산출된 잠재변수의 평균 차이가 어느 정도 큰 차이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Cohen(1998)의 효과 크기(d)를 산출하였다. 이를 위해서는 두 집단에서 산출된 잠재변인의 분산이 동일한 경우에 공통표준편차를 사용하기 때문에 요인분산동일성 검증을 하여야 한다. 요인분산동일성은 절편동일성모형과 각 요인 간 동일화 제약을 가한 모형 간에 부합도 차이검증을 실시하여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다면 요인분산동일성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 있다. 표 II-8과 같이 부합도 차이를 살펴본 결과, TLI의 차이값은 .001, RMSEA의 차이값은 .001로 CFI의 변화량이 .010 이하, RMSEA의 변화량이 .015 이하로 요인분산동일성이 성립되었다.

다음 표 II-9와 같이 요인분산동일성이 확보되어 잠재평균 차이의 유의성을 확인하였다. 학별주의($p > .05$), 행복($p > .05$) 및 사회참여($p > .05$)는 두 집단 간의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며, 정치효능감($p < .05$)은 에코세대와 Z세대 간의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이 밝혀졌다. 정치효능감을 에코세대의 잠재평균을 0으로 보았을 때, Z세대가 -.086으로 나타나 에코세대가 유의하게 높았다.

잠재평균의 유의성을 확인하고, 잠재평균의 상대적인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다음 표 II-9의 효과 크기 값은 공통 잠재평균의 표준편차를 사용하여 계산하였다. Cohen이 제시한 기준에 따르면 d 값이 .200 이하면 작은 수준, .500면 중간

수준, .800 이상이면 큰 수준으로 해석된다. 정치효능감($d = .189$)은 작은 수준의 효과 크기를 갖는 것으로 밝혀졌다.

표 11-9 에코세대와 Z세대의 잠재평균과 효과 크기

잠재변인	에코세대 ($n = 1,880$)		Z세대 ($n = 614$)		전체 평균	표준 편차	효과 크기
	잠재 평균	평균	잠재 평균	평균			
학벌주의	0.000	3.765	-.031	3.735	3.758	.032	-
정치효능감	0.000	3.209	-.086*	3.119	3.187	.034	.189
행복	0.000	3.031	.057	3.113	3.051	.057	-
사회참여	0.000	2.824	.026	2.833	2.825	.026	-

* 주: * $p < .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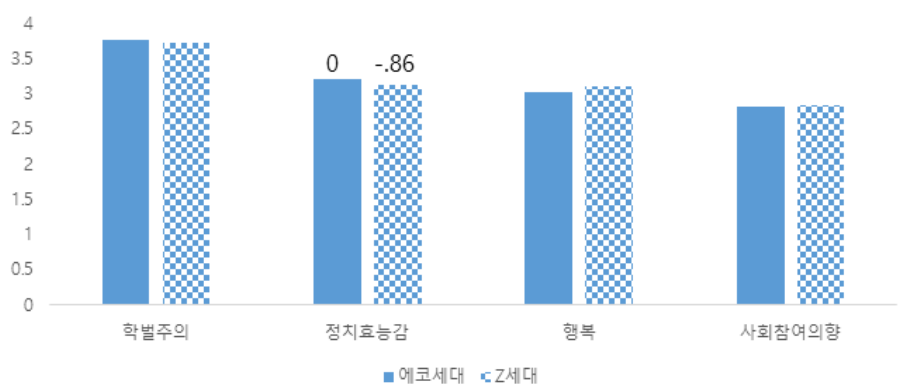


그림 11-2. 에코세대와 Z세대의 차이

* 주: 차이가 유의한 정치효능감만 잠재평균 수치를 제시함.

5. 결론 및 시사점

본 연구는 청년의 사회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학벌주의, 정치효능감 및 행복을 선정하여 이들 간의 관계를 살펴보고, 특히 청년 내에서도 에코세대와 Z세대의 사회참여, 학벌주의, 정치효능감 및 행복이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2018년도 청년 사회·경제실태 조사 데이터의 청년 2,494명(에코세대 1,880명, Z세대 614명)의 자료를 활용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본 연구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청년의 사회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학벌주의, 정치효능감 및 행복 간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영향 변인으로 선정한 변인 모두가 사회참여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는 청년이 우리 사회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교육과 학벌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느낄수록, 정치효능감이 높을수록, 현재의 삶에 행복감을 강하게 느낄수록 적극적으로 사회참여를 하고자 한다는 것이다.

먼저, 학벌주의는 사회참여에 정적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다. 기존연구(김태준, 2003; 이지호, 2017)의 학벌주의의 심각성에 대해 높게 인식할수록 적극적 사회참여를 하고 있다는 결론과 일치하는 결과이다. 앞으로의 사회가 현재 공고한 학벌주의가 변화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을수록 높은 사회참여를 하고 있다는 것의 의미하는 바가 크다. 미래사회에 대해 부정적 인식을 하고 있지만, 본인이 사회참여를 통해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신념을 가지고 사회참여를 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는 보다 사회가 긍정적으로 변화하는데 청년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음을 확인한 결과이다. 경직된 사회임을 확인할 수 있는 대표적 지표인 학벌주의는 반드시 사라져야 할 관행으로, 능력 중심 사회로 변화할 수 있도록 초·중고 교육에서부터 변화된 가치관을 심어줘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높은 정치효능감을 가진 청년이 적극적으로 사회참여를 하고 있음이 밝혀졌다. 이는 기존의 다양한 연구결과(박노일, 한정

호, 2008; 송경재, 2013; 이지인, 박세정, 2015)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정치효능감을 높이기 위해서는 민주시민에 대한 올바른 교육과 지속적 교육이 필요하다(가상준, 2007). 민주시민교육은 아직 법령이 마련되어 있지 않지만, 「평생교육법」, 「법교육지원법」, 「환경교육지원법」, 「경제교육지원법」, 「통일교육지원법」을 바탕으로 제한적으로 지원할 수 있고(정하윤, 2014; 조찬래, 이한규, 조지현, 김자영, 2011), 일부 자치조례에 의해 민주시민교육이 추진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다. 이런 법안을 바탕으로 청년에게 다양한 민주시민교육을 제공한다면, 정치효능감을 증진시킬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실제적인 변화에 참여한 경험은 정치효능감을 높게 만들어 낼 수 있다(가상준, 2008). 실제로 2016-2017년 사이의 촛불집회는 청년들로 하여금 스스로가 변화의 원동력이 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를 위해서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문제기반학습(Problem Based Learning, PBL)을 통해 민주시민교육을 제공함으로써 청년의 사회참여의 성공 경험을 제공할 수 있다. 지역에 기반한 민주시민교육은 교육대상과 문제 사이의 거리를 좁힐 수 있으며, 국제 국가적 차원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정치의 문제들이 지역에서 미시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점에서 규모가 작은 정치 현상과 과정을 관찰할 수 있는 기회이다(이태동, 2016). 다양한 형태의 민주시민교육을 통해 청년의 정치효능감이 증진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할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정책적 지원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높은 행복감을 가지고 있는 청년일수록 사회참여에 적극적임이 확인되었다. 기존연구(장승진, 2011; 정명은, 김미현, 장용석, 2014; Flavin & Keane, 2012)에서 다양한 대상을 대상으로 행복과 사회참여와의 관계가 상이하게 나타났는데, 본 연구에서는 청년을 대상으로 행복이 사회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사회참여를 늘리기 위해서는 청년이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함을 알 수 있다. 청년의 행복을 논의할 때 다른 세대와의 차별적인 특징은 청년은 생활 전반에 명확한 목표를 가지고,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는

확신이 행복감에 있어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한승헌, 임다혜, 강민아, 2017). 그러나 우리나라 청년은 다른 어느 세대보다도 취업, 주거, 결혼, 출생 등과 관련된 전반적 삶의 요소가 불안정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박미석, 박미려, 2014). 불안정한 삶에서 목표를 이룰 수 없을 것이라는 계속되는 좌절감은 청년을 결코 행복할 수 없게 만들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우리나라 청년들이 보다 안정적인 사회망 속에서 개인의 행복을 추구하고, 사회의 발전을 위한 참여를 할 수 있도록 청년을 위한 다양한 사회보장제도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둘째, 청년을 위한 다양한 정책과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수혜자인 청년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Gonzalez-Zapata & Heeks, 2015). 따라서 본 연구는 이러한 청년세대의 특성을 보다 구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두 번째 연구문제로 청년을 에코세대와 Z세대로 구분하여, 학벌주의, 정치효능감, 행복 및 사회참여의 차이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정치효능감만이 유의한 세대별 차이를 가지고 있는 것이 확인되었다.

정치효능감은 Z세대보다 에코세대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운석(2017)의 연구에서 우리나라의 정치효능감은 연령이 증가할수록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청년층만을 대상으로 에코세대와 Z세대간의 차이를 본 결과, Z세대보다 연령이 높은 에코세대가 더 높은 정치효능감을 가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세대에 대한 이해가 나이가 증가하면서 변화하는 연령효과와 구분된 동일한 사회경제구조 하에서 삶을 영위해오는 특정 연령집단이 공유하는 경험에 의한 차이로 접근해야 함을 확인한 결과이다. 에코세대는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 반대 촛불집회,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집회, 2016년 박근혜 대통령 퇴진 촛불집회 등과 같은 적극적 정치 참여에 의한 사회 변화를 청소년기서부터 체득해온 세대이다. 촛불집회로 표출된 정치적 불만이 정치효능감을 높이고 정치적 참여를 촉발시켰으며, 이 과정이 정치 인식 형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쳐(김혜성, 2017), 에코세대가 Z세대보다 높은 정치효능

감을 가지게 된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Z세대는 아직 정치효능감을 경험할 수 있는 경험이 예코세대에 비해 많지 않았고, 정치관 형성에 가족, 친구, 친척 순으로 영향을 받는 청소년기의 시기(이현직, 조아미, 2017)를 벗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아 비교적 낮은 정치효능감이 나타났지만, SNS의 발달 등과 같은 Z세대에게 친화적인 환경변화는 이들의 정치효능감을 높일 기회를 다양하게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학벌주의, 행복 및 사회참여는 세대에 따른 차이가 유의하지 않았다. 대학입학률 감소, 대학의 역할 축소와 같은 환경 변화가 일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벌주의에 대한 인식은 세대가 달라도 그대로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우리사회가 아직도 학력 및 학벌을 성공과 출세의 조건으로 인식하며 추구하고 있지만, 이와 동시에 이러한 인식 자체가 문제가 있음을 인식하고 있는 결과이다(김부태, 2011). 김성훈(2014)은 학벌주의를 해결하기 위한 대학체제개혁, 사회체제개혁, 교육체제개혁을 논의하고 있으며, 대학 학벌 문제의 심각성을 사회적으로 직접 환기시키고, 학벌 문제의 극복을 위한 사회적 노력을 촉발시킨다는 전략적 관점에서는 대학 체제 개혁론이 더 효과적이며, 대표적 대안으로 국립대 통합네트워크, 상위학교 정원축소, 대학서열체제 개혁 필요 등이나 현실성을 고려한 선택을 강조하고 있다. 이상의 논의처럼 우리나라의 뿌리 깊은 관행인 학벌주의는 미래사회의 국가통합과 발전을 위해 필히 해결되어야 할 문제이다.

एको세대와 Z세대 간의 행복의 차이가 없다는 것은 두 세대 모두 취업, 결혼, 출생, 주거의 다양한 문제를 겪고 있고, 이러한 문제들이 장기화됨에 따라 낮은 행복감으로 나타나는 결과로 사료된다. 예코세대는 79-92년생까지 약 10년의 격차를 가지고 있는데, 초기 예코세대인 79-82년생들은 이제 후기 청년들로 장년에 진입하는 세대로, IMF 이후 사회에 진출한 이들로부터 청년 실업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등장하였다. 시간의 흐름에 의해 이런 문제는 자연적으로 해결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고착화되었다. 실제로 비경제활동인구도 20-29세가 2008년 222천명에서 이들이 10년 뒤의 30-39세가 된 후에도 183천명으로 단 17%만이

감소된 것으로 확인된다(통계청, 2019). 이들은 곧 만 39세 기준의 청년 정책의 수혜를 받을 수 없게 된다. 주거, 취업, 결혼, 출생 등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정책이 연령을 기준으로 하여 수혜를 받지 못하게 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 따라서 청년 문제가 등장하게 된 에코세대부터는 청년 정책을 단순히 연령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닌 그들의 삶에 기본적 문제를 지속적으로 지켜볼 수 있도록 정책이 점검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기존 연구에 의하면 나이가 증가할수록 사회참여가 증가하고 있는 경향과 달리 사회참여가 세대에 따라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것은 에코세대의 낮은 사회참여나 Z세대의 적극적 참여로 해석할 수 있다. 에코세대는 아직 발단 단계에서 취업, 주거 등의 기본생활 문제에 대한 해결이 완료되지 못함에 따른 낮은 사회참여, Z세대는 지속된 청년 문제를 더 이상 개인의 탓으로 보지 않고 큰 목소리로 사회의 해결을 요구하기 위한 사회적 참여가 증가하여 이들 간의 차이가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생각된다. 적극적 사회참여를 위한 생활과 관련된 청년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에코세대와 Z세대 각각의 다양한 맞춤형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다.

본 연구는 청년의 사회참여에 대한 학벌주의, 정치효능감 및 행복이 미치는 영향력을 확인함으로써 청년의 사회참여를 위한 정책 및 교육에 있어서의 기초자료와 시사점을 제공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특히 다층적 차원으로 투표 이외의 개인이 삶에서 실천할 수 있는 사회참여를 다루고, 청년을 대상으로 사회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통합적으로 다루었다는 점에서 이전 연구들과의 차별성을 가지고 있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패널데이터를 활용함으로써 관련된 청년의 사회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학벌주의, 정치효능감 및 행복만 제한되어 살펴보다 다양한 변인을 살펴보지 못하였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향후 연구에서는 소득, 학력 등의 사회경제적 요인과 사회참여와의 관계를 제시함으로써 보다 청년의 사회참여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를 진행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본 연구는 청년의 삶에 대해 횡단연구로 진행되었다. 청년의 사회참여의 변화 양상을 종단적으로 연구한다면, 보다 내실 있는 연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청년 대상의 민주시민교육의 필요성을 확인하였으나, 초·중·등 교육에서 다루는 학생이 아닌 사회인을 대상으로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향후에는 청년 대상의 민주시민교육의 방향을 논의할 수 있는 연구가 진행된다면 청년의 보다 적극적인 사회참여를 함양하는 데 발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Ⅲ. 청년 세대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 1. 서론
- 2.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 3. 연구방법
- 4. 연구결과
- 5. 논의 및 결론

1. 서론

유엔 산하 자문기구인 SDSN(The Sustainable Development Solution Network)이 발표한 ‘2019 세계행복보고서(World Happiness Report)’에서 2016년~2018년 행복 순위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한국은 조사대상국 156개국 중 54위를 기록하였다. 이 보고서에서는 1인당 국내총생산, 사회적 지원, 건강기대수명, 삶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 타인에 대한 관대함, 정부와 사회의 부패 수준에 대한 인식을 행복 수준을 측정하는 지표로 활용하였으며, 한국은 상대적으로 사회적 지원, 자유, 부패인식에서 행복 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Helliwell, Layard, & Sachs, 2019).

우리나라 헌법 제10조에서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장 기본적인 국민의 권리이자 국가가 국민을 위해 보장해야 할 의무로 본 것이다. 복지국가를 표방하는 국가들 대다수는 국민의 행복 수준을 높이기 위해 삶의 질 또는 웰빙(well-being) 수준 향상이라는 목표 하에 각종 정책을 입안하고 추진함으로써 국민들이 행복을 추구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며(윤강재, 김계연, 2010), 우리나라도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3) 이 장은 정제영(이화여자대학교), 선미숙(이화여자대학교)이 집필하였음

그러나 우리 사회에서 경제·사회적 양극화 현상은 점점 심화 되고 있으며 최근 회자되고 있는 ‘수저론’ 이나 ‘헬조선’이라는 용어는 계층적 상향 이동 가능성에 대한 비관적 인식이 확산되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다(정제영, 2017.03.21.). 특히, 청년실업이 급증함에 따라 청년 세대가 겪는 고충이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다. 청년 세대를 일컫는 수식어로 아르바이트 인생과 저임금 청년들의 힘든 삶을 표현한 ‘88만원 세대’부터 시작하여 연애, 결혼, 출산을 포기한 ‘삼포세대’, 여기에 취업, 주거, 인간관계뿐만 아니라 심지어 꿈과 희망까지 포기한다는 의미를 담은 ‘N포 세대’와 같은 신조어가 등장하는 등 청년 세대가 체감하는 불안감과 불안정성이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다.

OECD(2014)는 “한국은 그동안 가장 젊은 나라였지만, 향후 50년 이내 가장 늙은 나라로 변화할 것이다.”라고 전망하였다. 전체 인구에서 65세 이상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7% 이상 14% 미만이면 고령화사회(Aging society), 14% 이상 20% 미만이면 고령사회(Aged society), 20% 이상이면 초고령사회(Post-aged society)로 구분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2018년 고령화사회에 진입하였고, 2026년에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United Nations, 2017). 이처럼 본격적인 초고령사회로의 진입 및 출산률 저하 등 인구구조의 변화는 2005년 8.2명이 노인 1명을 부양했던 것에서 2020년 4.6명, 2050년 1.4명으로 노인부양 인구의 감소로 이어질 것이라 예측되고 있다. 고령화 추세는 거스를 수 없는 전 세계적인 현상이며, 우리 사회는 급격히 늘어나는 노년층과 반대로 심각하게 줄어들고 있는 미래세대 간의 불균형으로 인한 사회구조의 변화 및 세대 간 갈등 심화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청년 세대는 미래 우리 사회를 이끌어갈 주역으로 이들이 삶에 무기력해지고 결혼과 출산마저 포기하는 분위기를 반전시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청년 세대가 역동성을 잃으면 노동력 뿐만 아니라 소비시장까지 동시에 사라지게 되고, 결국 청년 세대의 가치를 깨닫지 못한 나라는 쇠락할 것이다(박종훈, 2013). 청년 세대의 행복,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사회적 노력과 대응이 필요한 시기이다. 행복에 관한 연구가 1990년대 이후 활발하게 진행되어 왔으나 청년 세대의 행복에 관한 실증적 연구는 청소년층이나 노년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또한 세대 간의 비교를 통해 청년 세대의 행복에 대해 논의한 연구는 일부 있었으나, 청년 세대를 중점적으로 다룬 연구는 많지 않다(손연정, 2018). 청년 세대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청년의 범위가 제각각이고 다소 포괄적으로 설정함으로써 청년 세대 내 차이를 포착하는데 한계가 있었다(한승헌, 임다혜, 강민아, 2017).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 결과를 활용하여 청년 세대의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연령대별로 구분하여 탐색해 보고자 하였다.

2.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1) 청년 세대 연령 구분

청년 세대의 구분 기준에 대해서는 다양하게 논의되고 있다. 20대만을 청년으로 한정하여 분석한 연구가 있는가 하면, 20~30대를 포괄하거나 10대까지도 포함하여 청년 세대로 보기도 한다. 학자에 따라서는 청년 세대의 범위를 연령 구분에서 벗어나 육체 및 정신적 발달과정을 바탕으로 정의하기도 한다(안홍순, 2016).

경기침체로 인한 청년실업이 급증함에 따라 청년들의 실업이 경제성장의 장애요소가 되거나 사회불안의 요인이 될 우려가 제기되어 청년미취업자에 대한 취업 기회 제공 및 취업 능력 제고를 통해 지속적인 경제발전과 사회 안정에 기여하기 위해 2004년 「청년실업해소특별법」이 제정되었다. 2009년 법 제명의 변경을 통해 현재는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으로 시행되고 있다. 이 법 시행령 제2조에서는 청년의 나이를 ‘만 15세 이상 29세 이하’로 규정하고 있으며, 법 제5조(공공기관의 청년 미취업자 고용 의무) 1항에 따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하는 경우

에는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고 단서 조항을 두고 있다. 해당 법률에 따르면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에 해당하는 연령층을 청년세대로 볼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정부의 사업에 따라서는 만 39세까지도 청년에 포함하고 있으며,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도 만15세부터 39세 청년을 대상으로 실시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청년 세대를 만 15세~39세로 규정하고, 이들의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2) 청년 세대의 행복에 관한 선행연구

행복이란 매우 주관적이고 상대적인 성격을 가지기 때문에 개념에 대한 정의가 다양하고, 측정하기가 쉽지 않다. 행복에 대한 정의는 긍정심리학 분야에서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지만 아직 합의된 정의는 없다(Pavot & Diner, 1993; Seligman & Csikszentmihalyi, 2000; 류정희, 이명자, 2007; 서봉연, 김경식, 2016). 개인이 지각하는 행복은 개인의 내적·심리적 특성뿐만 아니라 외적·환경적인 특성 등 매우 다양한 특성들에 의해 영향을 받고 있다(김지경, 2018). 행복 수준을 측정하기 위해 과거에는 소득과 같은 경제적인 측면을 강조하였으나 최근에는 소득 외에 다양한 지표를 고려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경제성장과 이에 따른 소득수준의 향상은 국민을 행복하게 할 것이라 여겨져 왔으나 Easterlin(1974)은 미국의 경우 2차 세계대전 이후 1인당 국민소득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행복하다고 느끼는 국민의 비율이 30% 내외에 불과하며, 그 비율이 거의 변화하지 않는다고 발표하였다. 즉 경제성장에도 불구하고 행복감이 증대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러한 현상을 ‘이스터린의 역설(Easterlin Paradox)’이라 한다(Easterlin, 1974; 이재열, 2015).

행복의 수준을 측정하기 위해 소득 수준을 활용하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가장

대표적인 지표로 유엔개발계획(UNDP: 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의 인간개발지수(HDI: Human Development Index)를 들 수 있다. 인간개발지수에서는 인간의 생존과 발전에 필요한 기본요소로 건강한 삶(a long and health life), 지식(knowledge), 품위 있는 생활 수준(a decent standard of living)을 꼽고 있으며 이를 평균 수명, 성인문자해독률, 취학률, 1인당 국내총생산의 네 가지 지표로 환산하여 지수화하여 측정하고 있다. 인간개발지수는 행복을 개인의 능력 계발 차원까지 확장시켰다는 데 그 의미가 있다(윤강재, 김계연, 2010).

개인의 행복을 측정하고자 했던 대표적인 시도로 Diener(1984)의 주관적 안녕감(subjective well-being)을 꼽을 수 있다. 주관적 안녕감이란 개인이 주어진 삶의 상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어떠한 경험을 하는가를 의미하는 것으로 기존에 수입, 주거상태, 건강 등 삶의 경제적 측면과 신체적 조건만을 고려하여 삶의 질을 평가했던 사회지표운동의 한계를 지적하면서 주관적 안녕감에 관한 연구가 시작되었다(류정희, 이명자, 2007). 주관적 안녕감은 삶에 대한 태도를 의미하는 것으로 인지적이고 정서적인 요소를 포괄하고 있다. 인지적 요소는 삶의 만족도(life satisfaction)을 의미하며, 정서적 요소는 일상생활의 경험에 대한 긍정적 혹은 부정적 정서 반응을 의미한다(Diener, 1984; 류정희, 이명자, 2007).

개인의 행복, 삶의 질 등을 측정하기 위하여 긍정심리학 분야에서는 주관적 안녕감 이외에도 심리적 안녕감(psychological well-being)과 사회적 안녕감(social well-being)에도 주목하고 있다. 심리적 안녕감은 삶의 질에 영향을 준다고 생각되는 심리적 측면들의 합으로 심리적 안녕감의 관점에서 삶의 질이 높다는 것은 개인이 한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얼마나 잘 기능하고 있는가를 의미하기도 한다(Ryff, 1989). 사회적 안녕감은 사회적 통합(social integration), 사회적 수용(social acceptance), 사회적 기여(social contribution), 사회적 실현(social actualization), 사회적 응집력(social coherence) 등 사회에 속해있는 개인이 얼마나 잘 기능할 수 있는지에 대한 평가를 의미한다(Keyes, 1998). 그동

안 주관적 안녕감과 심리적 안녕감에 관한 연구가 주로 진행되어 왔으며, 사회적 안녕감에 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류정희, 이명자, 2007).

행복과 관련된 변인들은 인구사회학적 요인을 포함하는 객관적인 요소와 개인의 정서적 요소로 구분할 수 있다(서봉언, 김경식, 2016). 연령, 사회적 지위, 경제적 수준 등 인구사회학적 요인은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논의되고 있고, 인구사회학적 요인들은 개인의 주관적 경험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연구되고 있다(서봉언, 김경식, 2016; 우문식, 2012; Peterson, 2006; Ryff & Heidrich, 1997). 심리·정서적 특성이 행복에 영향을 미친다는 주장과 관련하여 Smith(1961)는 행복한 사람은 기질적 특성으로 긍정적인 사고를 하고 정서적으로 안정되어 있다고 하였으며, Costa와 McCrae(1980)의 연구에서도 행복한 사람은 개인의 성격적 특성으로 인해 다른 사람들보다 경험을 긍정적으로 해석하기 때문에 행복하다고 보았다(서봉언, 김경식, 2016에서 재인용). 신체적 건강도 행복과 관련이 있다는 연구결과가 제시되었으며(김의철, 박영신, 2006; Cohen & Pressman, 2006; Lyubomirsky, King, & Diener, 2005), 문화자본 및 사회자본이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논의되기도 한다(서우석, 2015; 한세희, 김연희, 이희선, 2010; Gundelach & Kreiner, 2004). 행복과 관련된 대부분의 연구들에서 연령, 학력, 소득 등의 인구사회학적 요인과 정서적 요인을 주요한 변인으로 고려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청년 세대의 행복과 관련하여 국내에서 수행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이명숙(2015)은 2010년에 실시된 한국종합사회조사(KGSS : Korean General Social Survey)를 활용하여 청년 세대의 행복감과 정서적 안녕에 미치는 건강, 사회적지지, 삶의 기대요인의 상대적 영향을 분석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행복에 관한 연구가 경제적 관점을 벗어나 문화적 맥락에서 개인의 가치관, 욕구, 동기 등 개인심리요인들이 고려되어야 한다고 보고 가족과 지인의 지지, 전문가지지, 삶의 부적기대 등을 독립변수로 활용하였다. 연구 결과, 청년 세대와 중년세대가 모두 노년

세대에 비해 주관적 행복감과 정서적 안녕감이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났고, 청년 세대의 경우에는 중층과 상층의 행복감과 정서적 안녕감이 하층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행복감에서 성별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으며, 건강 및 삶의 기대 등 개인적 요인과 사회관계적 요인의 상대적 중요성에 대한 분석에서 청년들의 주관적 행복감을 높이는 것은 가족과 지인의 지지 변인으로 나타난 반면, 삶에 대한 부정적 기대와 건강 문제는 행복감을 유의미하게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명숙, 2015).

2010년에 실시한 한국종합사회조사(KGSS) 자료를 활용한 또 다른 연구로 한승헌 등(2017)의 연구에서는 청년 세대의 불안정성(precariousness)과 행복에 대해 분석하였는데 주관적 건강상태와 가구 소득수준, 사회적지지 변수를 활용하여 '자원의 결핍, 불확실성, 통제권한의 부재' 등 세 가지 차원의 불안정성이 청년 세대의 행복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 보았다. 이 연구에서는 청년 세대를 저연령집단(만 19세~26세), 고연령 집단(만 27세~34세)로 구분하여 연령집단별 차이가 있는지 분석하였는데, 자원의 결핍, 불확실성과 통제권한의 부재 모두 청년들의 행복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고, 그 중에서 통제권한의 부재가 청년들의 행복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고 밝혔다. 주관적 건강상태와 소득수준, 사회적지지 모두 통제권한의 부재를 통해서만 행복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연령별 분석에서는 고연령 집단에서만 소득수준이 행복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한승헌 외, 2017).

서봉언과 김경식(2016)은 한국교육고용패널(KEEP : Korean Education & Employment Panel) 데이터를 활용하여 청년의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결과, 자아개념, 직무만족, 건강, 대인신뢰 및 주변 안전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라 하였다. 특히, 자아개념이 가장 두드러지게 영향력이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개인의 행복 수준이 객관적이 측정 가능한 변인보다는 사건이나 환경을 긍정적인 방식으로 경험하게 하는 개인의 경향성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이라고 보았다. 직무만족이 높을수록, 건강하다고 인식할수록

행복하다고 응답할 가능성이 높게 나타났으며, 사회자본의 영향력은 남성의 경우 대인신포, 여성은 주변 안전이 유의미한 변인이라 밝혔다(서봉언, 김경식, 2016).

김지경(2018)은 한국노동패널(KLI : Korean Labor & Income Panel Study) 자료를 활용하여 청년 세대 삶의 인식 수준과 행복 영향 요인을 분석하였다. 성별, 연령, 가구소득, 취업여부, 학력, 종사상 지위, 정규직 여부, 월소득 등의 객관적 요인과 성격특성 및 통제 소재, 상호성, 삶의 만족도 등을 주관적 요인으로 분석에 활용하였다. 특히, 개인의 삶의 인식과 행복의 수준을 가늠하는데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심리·정서적 요인을 성격특성으로 보고, 개방성(Openness to experience), 성실성(Conscientiousness), 외향성(Extraversion), 친화성(Agreeableness), 정서불안정성(Neuroticism)으로 대표되는 ‘OCEAN 모델’, 즉 Big5 성격특성에 주목하여 분석하였다는 특징이 있다. 이 연구에 따르면 청년 세대의 삶의 인식수준과 행복의 정도를 평가하는데 작동되는 기제와 요인은 상이하며, 집단에 따라 서로 다른 요인이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삶의 인식수준과 행복의 정도에는 사회·인구학적 특성과 같은 객관적 요인보다는 심리·정서 등 주관적인 요인이 더 큰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취업 청년 집단에서는 일자리 만족도가 가장 큰 영향력을 보였다고 밝혔다(김지경, 2018).

손연정(2018)은 청년 세대의 범위를 대학생과 대학 졸업 후 1~2년이 경과한 20대 청년으로 한정하여 대학 졸업 전후 변화를 중심으로 청년 세대의 행복 결정 요인을 분석하였다. 이 연구에 따르면 청년의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인구학적 요인으로는 연령과 채무 여부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으며, 가치관 측면에서 개인보다는 집단을 선호할수록, 건강 측면에서는 규칙적인 운동을 하는 경우 행복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행복을 위한 요건을 충분히 갖추었는지에 대한 주관적인 평가에서는 마찬가지로 연령과 채무 여부는 행복 요건 충족도를 낮추고, 결혼 및 부모의 경제적 수준은 행복 요건 충족도를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 세대를 대학생, 신규 졸업자, 졸업 후 1~2년이 경과한 기졸업자의 세

가지 하위집단으로 구분하여 집단별 행복 영향요인을 분석한 결과, 행복 수준에서는 기졸업자 집단에서 재학생 및 신규 졸업자에 비해 가치관과 같은 주관적 요인이 인구경제학적 특성보다 중요한 요인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행복 요건을 충족하는지에 대해서는 기졸업자 집단에서 경제적 요인의 영향력이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손연정, 2018).

청년 세대의 행복에 관한 연구는 중년층이나 노년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이는 인구구조의 변화와 관련되어 있는데 전체 인구대비 청년 세대가 차지하는 비중이 점점 줄어들고, 노년층의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청년층은 노년층에 비해 정치적으로 중요성이 크지 않은 집단으로 분류되고, 연구에서도 다른 연령 집단에 비해 주목을 받지 못하였다(김민정, 조공호, 2009; 한승헌 외, 2017). 또한, 국내에서 수행된 행복에 대한 연구들은 세대 구분을 광범위하게 하는 경향이 있다. 청소년기 연구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급을 모두 포함하거나 성인기 연구는 성인 초기와 후기를 모두 포괄하여 수행한 연구가 많다. 그렇다 보니 사회적·경제적 독립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20~30대 청년 세대와 이미 가족을 이룬 장년 세대를 구분하지 않고 행복에 대한 연구를 수행한 연구도 다수 있어 청년 세대의 고유한 특성을 밝히지 못한 한계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청년 세대를 만15세~39세로 규정하고, 이들의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연령별로 세부적으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3. 연구방법

1) 분석 자료

본 연구에서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2018년 청년 사회·경제실태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청년 세대의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였다. 2018년 청년 사회·경제실태조사는 조사 시점인 2018년에 국내에 거주하는 전국 17개 시·도의

만15~39세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한다. 2018년 최종 조사 결과 총 3,133명의 자료가 수집되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고등학교와 대학을 다닌 경험이 있는 응답자를 대상으로 주요 분석 변인 가운데 한 경우라도 결측치(missing value)가 포함되어 있는 사례는 분석에서 제외하고 총 1,954명의 응답을 분석하였다(김형주 외, 2018).

청년 세대의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행복 수준과 행복 요건 충족을 종속변수로 설정하여 분석에 활용하였다. 첫째, ‘행복 수준’은 응답자의 주관적 안녕감을 측정한 문항으로 지난 2주간 일상생활에서 ‘나는 밝고 즐거운 기분을 느낀다, 나는 차분하고 편안함을 느낀다, 나는 활동적이고 활기참을 느낀다, 나는 잠에서 깨었을 때 피로가 다 가시고 상쾌했다, 나의 일상은 흥미로운 것들로 가득차 있다’는 문항들에 대해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 전혀 그렇지 않다(1)에서 항상 그렇다(5)라고 응답한 결과를 합친 변수이다. 둘째, ‘행복 요건 충족’은 행복한 삶을 위해 가장 중요한 조건을 충분히 갖추었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 5점 척도로 응답한 결과를 활용하였다.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독립변수는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개인의 정서적 특성을 반영하는 사회적 경험 및 인식을 변수로 활용하였다. 개인의 성격적 특성 및 정서적 특성에 따라 사회적인 경험과 인식에 대해 얼마나 긍정적으로 반응하는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첫째,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나타내는 변수로 성별, 연령, 부모의 소득 수준, 부모의 학력, 경제적 어려움, 신체적 건강 변수를 활용하였다. ‘성별’의 경우, 남자를 1로, 여자를 0으로 코딩하였으며, ‘연령’은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연속변수로 투입하였다. ‘부모의 소득 수준’은 부모님의 소득 수준에 응답하도록 한 문항에 최하 1에서 최상 10으로 코딩된 연속변수이며, ‘부모의 학력’은 초등학교 졸업은 6, 중학교 졸업은 9, 고등학교 졸업은 12, 2~3년제 대졸은 14, 4년제 대졸은 16, 석·박사학위 이상은 18로 코딩하여 아버지의 학력과 어머니의 학력을 합한 값을 변수로 사용하였다. ‘경제

적 어려움’은 지난 1년간 ‘돈이 없어서 임대료, 대출금, 관리비 등 주거관련 비용을 지불하지 못했다, 돈이 없어서 집의 냉/난방을 유지하지 못했다. 돈이 없어서 예상치 못한 지출이 발생했을 때 비용을 지불하지 못했다, 돈이 없어서 규칙적인 식사를 하지 못했다, 돈이 없어서 휴일에 놀러가지 못하거나 사고 싶은 것을 사지 못했다’는 문항에 예라고 응답한 경우 1, 아니오라고 응답한 경우 0으로 코딩하여 5개 문항에 대한 응답을 합한 값을 활용하였다. ‘신체적 건강’은 ‘귀하는 신체적으로 건강하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문항에 대해 5점 척도로 응답한 결과를 활용하였다.

둘째, 개인의 정서적 특성을 반영하는 사회적 경험 및 인식 변수는 교육만족도, 정치적 효능감, 교육관행 인식, 사회적 지원 인식 변수로 구성하였다. ‘교육만족도’는 ‘나는 대학(고등학교) 교육에 만족한다, 나는 대학(고등학교) 교육이 앞으로 나의 인생을 살아가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대학(고등학교) 교육이 취업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에 대해 5점 척도로 응답한 결과의 평균값이며, ‘정치적 효능감’은 ‘나는 정치적 문제를 이해하고 참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나는 가치관이나 신념이 다른 사람을 포용하고 이해할 수 있다, 나는 선거나 캠페인 참여 등을 통해 정치발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문항에 5점 척도로 응답한 결과의 평균값을 변수로 활용하였다. ‘교육관행 인식’은 우리 사회의 교육관행에 대한 인식을 묻는 문항으로 ‘대학은 반드시 나와야 한다, 한국 사회에서 교육을 어디까지 받았는지는 중요하다, 한국 사회에서 어느 학교를 나왔는지는 중요하다’ 대해 5점 척도로 응답한 평균값으로 우리 사회에서 학력이 얼마나 중시되는지에 대한 개인의 인식을 나타내는 변수이다. ‘사회적 지원 인식’은 ‘우리 사회는 고등학교 졸업자에게 적절하게 대우하고 있다, 우리 사회는 대학 졸업자에게 적절하게 대우하고 있다, 기성세대는 고등학교 졸업을 앞둔 청년 세대의 안정적인 사회진출과 정착을 위해 적절한 배려를 하고 있다. 기성세대는 대학 졸업을 앞둔 청년 세대의 안정적인 사회진출과 정착을 위해 적절한 배려를 하고 있다.

정부 또는 지자체에서는 고등학교 졸업을 앞둔 청년 세대를 위한 지원이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정부 또는 지자체에서는 대학 졸업을 앞둔 청년 세대를 위한 지원이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다’에 대해 5점 척도로 응답한 결과의 평균값으로 청년 세대가 인식하는 사회적 대우 및 배려, 지원을 의미하는 변수라 할 수 있다.

분석에 사용된 변수들의 기술통계는 다음 표 Ⅲ-1과 같다.

표 Ⅲ-1 분석에 사용된 변수들의 기술통계

구 분	전체 (n = 1,954)		10대 (n = 268)		20대 (n = 689)		30대 (n = 997)	
	M	SD	M	SD	M	SD	M	SD
종속변수								
행복 수준	15.74	4.39	16.31	4.22	15.65	4.55	15.64	4.32
행복 요건 충족	3.28	0.83	3.25	0.87	3.21	0.84	3.34	0.80
독립변수								
성별(남자=1)	0.52	0.50	0.63	0.48	0.48	0.50	0.51	0.50
연령	29.21	6.92	17.71	1.01	25.44	2.85	34.90	3.21
부모 소득	6.25	1.36	6.31	1.33	6.38	1.27	6.14	1.41
부모 학력	25.77	3.65	27.48	3.40	26.38	3.30	24.89	3.70
경제적 어려움	0.32	0.64	0.34	0.62	0.36	0.66	0.29	0.62
신체적 건강	4.17	0.62	4.22	0.64	4.16	0.68	4.17	0.57
교육만족도	3.42	0.68	3.40	0.65	3.44	0.70	3.40	0.67
정치적 효능감	3.23	0.75	2.95	0.73	3.23	0.74	3.31	0.75
교육관행 인식	3.82	0.64	3.79	0.71	3.80	0.66	3.84	0.61
사회적 지원 인식	2.91	0.61	3.06	0.58	2.92	0.61	2.86	0.62

행복 수준 전체 평균은 15.74로 나타났으며, 10대 청년들의 행복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행복 요건 충족에 대한 인식은 평균 3.28로 보통 수준으로 인식하였으며, 30대가 10대나 20대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성별 분포를 살펴보면, 남자가 52%, 여자가 48%로 비슷한 비율로 나타났으며, 10대에서는 남자의 비율이 63%로 다소 높게 나타났다. 응답자의 연령 평균은 약 29세로 나타났으며, 부모의 소득 수준은 6.25로 중간 이상으로 응답하였다. 부모의 학력은 아버지와 어머니의 학력을 교육연한으로 환산하여 합산하였는데

전체평균은 약 25.8년으로 나타났으며, 10대의 경우 약 27.5년, 20대는 약 25.4년, 30대는 약 24.9년으로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부모의 학력 수준이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경제적 어려움을 경험한 정도는 0에서 5의 분포에서 0.32로 나타나 낮은 수준이었으며, 신체적 건강은 4점 이상으로 대체로 건강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에 대한 만족도 및 정치적 효능감은 보통 수준보다 조금 높게 나타났으며, 우리 사회에서 학력이 중요하다고 인식하는지를 보여주는 교육관행 인식은 3.82로 다소 높게 나타났으며, 10대 3.79, 20대 3.80, 30대 3.84로 연령이 높아질수록 학력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사회적으로 청년 세대를 위한 지원이나 대우가 적절한지에 대한 사회적 지원 인식 수준은 2.91로 보통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10대 3.06, 20대 2.92, 30대 2.86으로 연령이 높아질수록 사회적 지원에 대해 다소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경향을 나타냈다.

2) 분석 방법

청년 세대의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청년 세대의 행복 수준 및 행복 요건 충족에 대한 인식을 종속변수로 설정하고,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개인적 경험에 대한 인식, 사회에 대한 인식을 반영하는 변수를 독립변수로 활용하였다.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보여주는 요인과 사회적 경험 및 인식을 나타내는 요인들의 각 영향력의 크기를 알아보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Y_i = \beta_0 + \sum_{i=1}^n \beta_i X_i (\text{인구·사회학적 특성}) + \sum_{j=1}^m \beta_j X_j (\text{사회적 경험 및 인식}) + \epsilon$$

Y_i = 행복수준, 행복요건충족

X_i = 성별, 연령, 부모소득, 부모학력, 경제적 어려움, 신체적 건강

X_j = 교육만족도, 정치적 효능감, 교육관행인식, 사회적 지원인식

청년 세대의 행복 영향 요인은 SPSS 22.0을 활용하여 분석하였으며, 독립변수 간 상호 영향력의 문제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상관관계 분석 및 다중공선성 진단 검사를 실시한 결과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없음을 확인하였다. 독립변수 간 상관관계는 다음 표 III-2와 같다.

표 III-2 독립변수 간 상관관계

	1	2	3	4	5	6	7	8	9	10
1. 성별	-									
2. 연령	-.038*	-								
3. 부모 소득	.000	-.122***	-							
4. 부모 학력	.009	-.360***	.404***	-						
5. 경제적 어려움	.018	-.047*	-.150***	-.073***	-					
6. 신체적 건강	.102***	-.113***	.160***	.128***	-.083***	-				
7. 교육만족도	-.016	.024	.212***	.106**	-.146***	.124***	-			
8. 정치적 효능감	.038*	.095***	.133***	.067***	.049*	.008	.040*	-		
9. 교육관행 인식	-.022	-.015	.103***	.109***	.048*	.102***	.295***	.123***	-	
10. 사회적 자원 인식	.007	-.059**	.156***	.069***	-.067**	-.057**	.281***	-.016	.020	-

* 주: * $p<.05$, ** $p<.01$, *** $p<.001$

4. 연구결과

1) 청년 세대의 행복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청년 세대의 행복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다음 표 III-3과 같다. 인구사회학적 특성만 고려한 모형 1에서는 부모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신체적으로 건강하다고 인식할수록 행복 수준과 긍정적인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경제적 어려움을 겪은 경험은 행복 수준과 부정적인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경험 및 인식 변수를 추가로 투입한 모형2에서도 모형1과 마찬가지로 부모의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신체적으로 건강하다고 인식할수록 행복 수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경제적 어려움 경험은 행복 수준과 부정적인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수록, 정치적 효능감이 높을수록, 사회적 지원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일수록 행복 수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준화 회귀계수를 통해 청년 세대의 행복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의 영향력 크기를 비교해 보면, 교육만족도, 사회적 지원 인식, 부모 소득 수준, 경제적 어려움, 정치적 효능감 순으로 그 영향력이 높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이 연구모형에서 인구사회학적 특성 변수는 청년 세대의 행복 수준에 대한 분산을 7.5%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개인의 정서적 특성 변수는 추가적으로 약 10.5% 청년 세대의 행복 수준에 대한 설명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3 청년 세대의 행복 수준 영향 요인 분석

	모형1			모형2		
	<i>B</i>	<i>SE</i>	β	<i>B</i>	<i>SE</i>	β
(상수)	9.158	1.125		2.134	1.234	
성별(남자=1)	-.071	.193	-.008	-.051	.182	-.006
연령	-.011	.015	-.018	-.014	.014	-.021
부모 소득 수준	.570	.076	.176***	.339	.074	.105***
부모 학력	.029	.029	.024	-.004	.028	-.003
경제적 어려움	-.938	.152	-.136***	-.701	.145	-.102***
신체적 건강	.705	.157	.100***	.655	.150	.093***
교육만족도				1.686	.151	.260***
정치적 효능감				.394	.124	.067**
교육관행 인식				-.164	.150	-.024
사회적 지원 인식				1.063	.157	.148***
	adj <i>R</i> ² = .075			adj <i>R</i> ² = .179		
	<i>R</i> ² 변화량 = .104					

* 주: ** $p < .01$, *** $p < .001$

다음으로 청년 세대를 연령대별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는 표 III-4, 5, 6과 같다. 10대 청년 세대의 행복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결과, 모형1에서는 부모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행복 수준과 긍정적인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경제적 어려움을 겪은 경험은 행복 수준과 부정적인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형2에서는 부모의 소득 수준의 영향력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

타나지 않았으며, 경제적 어려움 경험은 여전히 행복 수준과 부정적인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경험 및 인식 변수와 관련해서는 교육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수록, 사회적 지원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일수록 행복 수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준화 회귀계수를 통해 10대 청년 세대의 행복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의 영향력 크기를 비교해 보면, 교육만족도, 사회적 지원 인식, 부모 소득 수준 순으로 그 영향력이 높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이 연구모형에서 인구사회학적 특성 변수는 청년 세대의 행복 수준에 대한 분산을 5.4%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회적 경험 및 인식 변수는 추가적으로 약 10.3% 정도 10대 청년 세대의 행복 수준의 분산을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4 10대 청년 세대의 행복 수준 영향 요인 분석

	모형1			모형2		
	<i>B</i>	<i>SE</i>	β	<i>B</i>	<i>SE</i>	β
(상수)	10.247	4.920		4.686	4.850	
성별(남자=1)	.581	.531	.067	.439	.503	.050
연령	.246	.251	.059	.098	.240	.024
부모 소득 수준	.378	.209	.119 ⁺	.289	.201	.091
부모 학력	-.019	.079	-.015	-.031	.075	-.025
경제적 어려움	-1.463	.415	-.214 ^{***}	-1.002	.411	-.147 ⁺
신체적 건강	-.009	.401	-.001	.173	.387	.026
교육만족도				1.790	.399	.274 ^{***}
정치적 효능감				.009	.336	.002
교육관행 인식				-.336	.354	-.056
사회적 지원 인식				1.116	.440	.155 ⁺
	adj <i>R</i> ² = .054			adj <i>R</i> ² = .157		
	<i>R</i> ² 변화량 = .103					

* 주: ⁺ $p < .1$, ^{*} $p < .05$, ^{***} $p < .001$

다음으로 20대 청년 세대의 행복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결과, 모형1에서는 부모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신체적으로 건강하다고 인식할수록 행복 수준과 긍정적인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경제적 어려움을 겪은 경험은 행복 수준과 부정적인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형2에서는 부모의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신체적으로 건강하다고 인식할수록 행복 수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연령이 높아질수록, 경제적 어려움 경험은 행복 수준과 부정적인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수록, 정치적 효능감이 높을수록, 사회적 지원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일수록 행복 수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준화 회귀계수를 통해 20대 청년 세대의 행복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의 영향력 크기를 비교해 보면, 교육만족도, 사회적 지원 인식, 정치적 효능감, 부모 소득 수준, 신체적 건강, 경제적 어려움, 연령 순으로 그 영향력이 높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이 연구모형에서 인구사회학적 특성 변수는 20대 청년 세대의 행복 수준에 대한 분산을 약 8.4% 정도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회적 경험 및 인식 변수는 추가적으로 약 12.4% 20대 청년 세대의 행복 수준에 대한 분산을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5 20대 청년 세대의 행복 수준 영향 요인 분석

	모형1			모형2		
	<i>B</i>	<i>SE</i>	β	<i>B</i>	<i>SE</i>	β
(상수)	9.504	2.373		1.076	2.427	
성별(남자=1)	-.224	.334	-.025	-.022	.313	-.002
연령	-.084	.059	-.053	-.097	.055	-.061 ⁺
부모 소득 수준	.718	.141	.201 ^{***}	.449	.134	.126 ^{**}
부모 학력	.029	.054	.021	-.010	.050	-.007
경제적 어려움	-.821	.254	-.120 ^{**}	-.598	.243	-.087 [*]
신체적 건강	.808	.249	.121 ^{**}	.693	.233	.104 ^{**}
교육만족도				1.554	.252	.239 ^{***}
정치적 효능감				.931	.215	.152 ^{***}
교육관행 인식				-.092	.253	-.013
사회적 지원 인식				1.292	.270	.172 ^{***}
	adj <i>R</i> ² = .084			adj <i>R</i> ² = .206		
	<i>R</i> ² 변화량 = .124					

* 주: ⁺ $p < .1$, ^{*} $p < .05$, ^{**} $p < .01$, ^{***} $p < .001$

마지막으로 30대 청년 세대의 행복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결과, 모형1에서는 연령이 높을수록, 부모의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신체적으로 건강하

다고 인식할수록 행복 수준과 긍정적인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경제적 어려움을 겪은 경험은 행복 수준과 부정적인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형2에서는 연령의 영향력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으며, 부모의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신체적으로 건강하다고 인식할수록 행복 수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경제적 어려움 경험은 행복 수준과 부정적인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경험 및 인식 가운데 교육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수록, 사회적 지원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일수록 30대 청년 세대의 행복 수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준화 회귀계수를 통해 30대 청년의 행복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의 영향력 크기를 비교해 보면, 교육만족도, 사회적 지원 인식, 부모 소득 수준, 경제적 어려움, 신체적 건강 순으로 그 영향력이 높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이 연구모형에서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30대 청년 세대의 행복 수준에 대한 분산을 약 7.4% 정도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회적 경험 및 인식은 약 9.1% 정도 추가적으로 30대 청년의 행복 수준에 대한 분산을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6 30대 청년 세대의 행복 수준 영향 요인 분석

	모형1			모형2		
	<i>B</i>	<i>SE</i>	β	<i>B</i>	<i>SE</i>	β
(상수)	5.910	2.110		.691	2.228	
성별(남자=1)	-.280	.268	-.032	-.278	.255	-.032
연령	.071	.042	.052 ⁺	.055	.040	.041
부모 소득 수준	.566	.101	.185 ^{***}	.331	.099	.108 ^{**}
부모 학력	.039	.039	.033	.006	.037	.005
경제적 어려움	-.862	.214	-.124 ^{***}	-.672	.205	-.097 ^{**}
신체적 건강	.772	.239	.102 ^{**}	.649	.232	.086 ^{**}
교육만족도				1.712	.217	.265 ^{***}
정치적 효능감				.214	.173	.037
교육관행 인식				-.128	.222	-.018
사회적 지원 인식				.849	.217	.121 ^{***}
	adj <i>R</i> ² = .074			adj <i>R</i> ² = .165		
	<i>R</i> ² 변화량 = .091					

* 주: ⁺ $p < .1$, ^{**} $p < .01$, ^{***} $p < .001$

2) 청년 세대의 행복 요건 충족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청년 세대의 행복 요건 충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다음 표 III-7과 같다. 인구사회학적 특성만 고려한 모형1에서는 연령이 높을수록, 부모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신체적으로 건강하다고 인식할수록 행복 요건 충족에 대한 인식과 긍정적인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경제적 어려움을 겪은 경험은 행복 요건 충족 인식에 부정적인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의 정서적 특성을 반영한 사회적 경험 및 인식 변수를 추가로 투입한 모형2에서도 모형1과 마찬가지로 연령이 높을수록, 부모의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신체적으로 건강하다고 인식할수록 행복 요건 충족 인식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경제적 어려움 경험은 행복 요건 충족 인식과 부정적인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경험 및 인식 변수 가운데 교육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수록, 사회적 지원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일수록 행복 요건 충족 인식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교육관행에 대한 인식, 즉 우리 사회에서 학력이 중요하다고 인식할수록 개인의 행복 요건 충족 인식 수준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준화 회귀계수를 통해 청년 세대의 행복 요건 충족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의 영향력 크기를 비교해 보면, 교육만족도, 부모 소득 수준, 경제적 어려움, 사회적 지원 인식, 연령, 신체적 건강 순으로 영향력의 크기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모형에서 인구사회학적 특성 변수는 청년 세대의 행복 요건 충족 인식에 대한 분산을 약 4.1% 정도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회적 경험 및 인식 변수는 추가적으로 약 1.9% 정도 청년 세대의 행복 요건 충족 인식에 대한 분산을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7 청년 세대의 행복 요건 충족 인식 영향 요인 분석

	모형1			모형2		
	<i>B</i>	<i>SE</i>	β	<i>B</i>	<i>SE</i>	β
(상수)	2.153	.216		1.758	.249	
성별(남자=1)	-.012	.037	-.007	-.014	.037	-.008
연령	.010	.003	.080**	.010	.003	.085***
부모 소득 수준	.075	.015	.122***	.058	.015	.095***
부모 학력	.002	.006	.007	.000	.006	-.002
경제적 어려움	-.142	.029	-.109***	-.116	.029	-.089***
신체적 건강	.094	.030	.070**	.100	.030	.075**
교육만족도				.125	.031	.102***
정치적 효능감				.018	.025	.016
교육관행 인식				-.083	.030	-.064**
사회적 지원 인식				.115	.032	.085***
	adj R^2 = .041			adj R^2 = .060		
	R^2 변화량 = .019					

* 주: ** $p < .01$, *** $p < .001$

다음으로 청년 세대를 연령대별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는 다음 표 III-8, 9, 10과 같다. 10대 청년 세대의 행복 요건 충족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결과, 모형1에서는 부모 소득 수준만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부모의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행복한 삶을 위해 가장 중요한 조건을 충족하고 있다는 인식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경험 및 인식 변수를 추가로 투입한 모형2에서는 부모의 소득 수준이 미치는 영향력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나지 않았으며, 정치적 효능감이 높을수록, 사회적 지원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일수록 행복한 삶을 위해 중용한 조건을 충족했다는 인식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준화 회귀계수를 통해 10대 청년 세대의 행복 요건 충족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의 영향력 크기를 비교해 보면, 사회적 지원 인식, 정치적 효능감 순으로 그 영향력이 높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이

연구모형에서 인구사회학적 특성 변수는 10대 청년 세대의 행복 요건 충족 인식에 대한 분산을 약 1.5%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회적 경험 및 인식 변수는 추가적으로 약 3.3% 정도 10대 청년 세대의 행복 요건 충족 인식에 대한 분산을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8 10대 청년 세대의 행복 요건 충족 인식 영향 요인 분석

	모형1			모형2		
	<i>B</i>	<i>SE</i>	β	<i>B</i>	<i>SE</i>	β
(상수)	1.880	1.029		.910	1.056	
성별(남자=1)	.061	.111	.034	.028	.110	.016
연령	.055	.053	.064	.031	.052	.036
부모 소득 수준	.087	.044	.134*	.058	.044	.090
부모 학력	-.014	.017	-.057	-.018	.016	-.070
경제적 어려움	-.119	.087	-.085	-.100	.089	-.072
신체적 건강	.059	.084	.044	.109	.084	.081
교육만족도				.061	.087	.045
정치적 효능감				.134	.073	.114 ⁺
교육관행 인식				.026	.077	.021
사회적 지원 인식				.250	.096	.169*
	adj <i>R</i> ² = .015			adj <i>R</i> ² = .048		
	<i>R</i> ² 변화량 = .033					

* 주: ⁺ $p < .1$, * $p < .05$

다음으로 20대 청년 세대의 행복 요건 충족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결과, 모형1에서는 부모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행복 요건 충족 인식과 긍정적인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경제적 어려움을 겪은 경험은 행복 요건 충족 인식과 부정적인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형2에서는 모형 1과 마찬가지로 부모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행복 요건 충족 인식과 긍정적인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경제적 어려움을 겪은 경험은 행복 요건 충족 인식과 부정적인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경험 및 인식 변수 가운데 교육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수록 행복 요건 충족 인식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교육 관행 인식은 행복 요건 충족 인식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준화 회귀계수를 통해 20대 청년 세대의 행복 요건 충족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의 영향력 크기를 비교해 보면, 부모의 소득 수준의 영향력이 가장 크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교육만족도, 교육관행 인식, 경제적 어려움 순으로 그 영향력이 높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이 연구모형에서 인구사회학적 특성 변수는 20대 청년 세대의 행복 요건 충족 인식에 대한 분산을 약 3.2% 정도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회적 경험 및 인식 변수는 추가적으로 약 1.1% 정도 20대 청년 세대의 행복 요건 충족 인식에 대한 분산을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9 20대 청년 세대의 행복 요건 충족 인식 영향 요인 분석

	모형1			모형2		
	<i>B</i>	<i>SE</i>	β	<i>B</i>	<i>SE</i>	β
(상수)	2.505	.452		2.402	.494	
성별(남자=1)	-.014	.064	-.008	-.008	.064	-.005
연령	.012	.011	.040	.013	.011	.044
부모 소득 수준	.105	.027	.158***	.092	.027	.139**
부모 학력	-.012	.010	-.047	-.013	.010	-.053
경제적 어려움	-.133	.048	-.105**	-.103	.049	-.081*
신체적 건강	.025	.047	.020	.024	.047	.020
교육만족도				.126	.051	.105*
정치적 효능감				.035	.044	.030
교육관행 인식				-.129	.051	-.100*
사회적 지원 인식				.043	.055	.031
	adj R^2 = .032			adj R^2 = .043		
	R^2 변화량 = .011					

* 주: * $p < .05$, ** $p < .01$, *** $p < .001$

마지막으로 30대 청년 세대의 행복 요건 충족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결과, 모형1에서는 부모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부모의 학력이 높을수록,

신체적으로 건강하다고 인식할수록 행복 요건 충족 인식과 긍정적인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경제적 어려움을 겪은 경험은 행복 요건 충족 인식과 부정적인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형2에서는 부모 학력의 영향력은 유의미하지 않았으며, 부모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신체적으로 건강하다고 인식할수록 행복 요건 충족 인식과 긍정적인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경제적 어려움을 겪은 경험은 행복 요건 충족 인식과 부정적인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경험 및 인식 변수 가운데 교육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수록, 사회적 지원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일수록 행복 요건 충족 인식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교육관행 인식은 행복 요건 충족 인식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 III-10 30대 청년 세대의 행복 요건 충족 인식 영향 요인 분석

	모형1			모형2		
	<i>B</i>	<i>SE</i>	β	<i>B</i>	<i>SE</i>	β
(상수)	1.615	.399		1.389	.437	
성별(남자=1)	-.051	.051	-.032	-.050	.050	-.031
연령	.013	.008	.051	.010	.008	.041
부모 소득 수준	.057	.019	.100**	.036	.019	.064 ⁺
부모 학력	.012	.007	.056 ⁺	.009	.007	.043
경제적 어려움	-.142	.040	-.110***	-.123	.040	-.095**
신체적 건강	.167	.045	.118***	.174	.046	.123***
교육만족도				.145	.043	.120**
정치적 효능감				-.015	.034	-.014
교육관행 인식				-.092	.044	-.070 [*]
사회적 지원 인식				.133	.043	.102**
	adj <i>R</i> ² = .048			adj <i>R</i> ² = .075		
	<i>R</i> ² 변화량 = .027					

* 주: ⁺ $p < .1$, ^{*} $p < .05$, ^{**} $p < .01$, ^{***} $p < .001$

표준화 회귀계수를 통해 30대 청년 세대의 행복 요건 충족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의 영향력 크기를 비교해 보면, 신체적 건강의 영향력이 가장 크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교육만족도, 사회적 지원 인식, 경제적 어려움, 교육관행 인식, 부모의 소득 수준 순으로 영향력의 크기가 높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이 연구모형에서 인구사회학적 특성 변수는 30대 청년 세대의 행복 요건 충족 인식에 대한 분산을 약 4.8% 정도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회적 경험 및 인식 변수는 추가적으로 약 2.7% 정도 30대 청년 세대의 행복 요건 충족 인식에 대한 분산을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연구결과 종합

청년 세대의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분석결과를 종합하면 다음 표 III-11과 같다. 부모의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신체적으로 건강하다고 인식할수록, 교육만족도가 높을수록, 정치적 효능감이 높을수록, 사회적 지원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할수록 행복 수준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경제적 어려움에 대한 경험은 행복 수준을 낮추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행복한 삶을 위해 필요한 조건을 갖추었는지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결과, 연령이 높을수록, 부모의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신체적으로 건강하다고 인식할수록, 교육 만족도가 높을수록, 사회적 지원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할수록 행복 요건을 충족하였는지에 대한 인식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경제적 어려움에 대한 경험 정도와 우리 사회에서 학력이 중요하다고 인식할수록 본인이 행복에 중요한 조건을 충족했다고 인식하는 수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의 소득 수준과 신체적 건강, 교육만족도, 사회적 지원에 대한 인식은 청년 세대의 행복 수준과 행복 요건 충족 인식에 공통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으며, 경제적 어려움은 공통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

으로 확인되었다. 정치적 효능감은 청년 세대의 행복 수준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나, 행복 요건 충족 인식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이 높을수록 본인이 행복한 삶을 위해 중요한 조건을 갖추었다고 인식하는 경향이 나타났으며, 우리 사회에서 학력이 중요하다고 느끼는 교육 관행에 대한 인식은 행복 수준에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나 행복 요건 충족 인식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표 III-11 청년 세대의 행복 수준 및 행복 요건 충족 인식 영향 요인 분석

	행복 수준			행복 요건 충족 인식		
	<i>B</i>	<i>SE</i>	β	<i>B</i>	<i>SE</i>	β
성별(남자=1)	-.051	.182	-.006	-.014	.037	-.008
연령	-.014	.014	-.021	.010	.003	.085**
부모 소득 수준	.339	.074	.105**	.058	.015	.095**
부모 학력	-.004	.028	-.003	.000	.006	-.002
경제적 어려움	-.701	.145	-.102**	-.116	.029	-.089**
신체적 건강	.655	.150	.093**	.100	.030	.075*
교육만족도	1.686	.151	.260**	.125	.031	.102**
정치적 효능감	.394	.124	.067*	.018	.025	.016
교육관행 인식	-.164	.150	-.024	-.083	.030	-.064*
사회적 지원 인식	1.063	.157	.148**	.115	.032	.085**

* 주: ***p* < .01, ****p* < .001

청년 세대의 행복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하위 연령별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는 다음 표 III-12와 같다. 연령별로 행복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다소 다르게 나타났는데 우선 공통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경제적 어려움과 교육만족도, 사회적 지원 인식을 꼽을 수 있다. 경제적 어려움 경험은 청년 세대의 행복 수준에 공통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20대의 경우, 특징적으로 연령이 높을수록 행복 수준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정치적 효능감은 20대 청년들의 행복 수준을 높이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10대 청년들에게는 부모의 소득과 신체적 건강이 행복 수준을 높이는 유의미한 변수로 영향을

미치지 않았지만, 20대와 30대의 경우 부모의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신체적으로 건강하다고 인식할수록 행복 수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 III-12 청년 세대의 행복 수준 영향 요인 분석 종합

구 분	전체(β)	10대(β)	20대(β)	30대(β)
성별(남자=1)				
연령			-.061 ⁺	
부모 소득 수준	.105 ^{***}		.126 ^{**}	.108 ^{**}
부모 학력				
경제적 어려움	-.102 ^{***}	-.147 [*]	-.087 [*]	-.097 ^{**}
신체적 건강	.093 ^{***}		.104 ^{**}	.086 ^{**}
교육만족도	.260 ^{***}	.274 ^{***}	.239 ^{***}	.265 ^{***}
정치적 효능감	.067 ^{**}		.152 ^{***}	
교육관행 인식				
사회적 지원 인식	.148 ^{***}	.155 [*]	.172 ^{***}	.121 ^{***}

* 주: ⁺ $p < .1$, ^{*} $p < .05$, ^{**} $p < .01$, ^{***} $p < .001$

청년 세대가 행복한 삶을 위해 중요한 조건을 충족했다고 인식하는지에 대한 행복 요건 충족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하위 연령별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는 다음 표 III-13과 같다. 연령별로 행복 요건 충족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다소 다르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10대와 20대, 30대에 공통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나타나지 않았다. 10대의 경우, 정치적 효능감이 높을수록, 사회적 지원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일수록 행복 요건 충족 인식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지원에 대한 긍정적 인식은 30대에서도 행복 요건 충족 인식을 높이는 요인으로 확인되었다. 20대와 30대에게는 공통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다수 나타났는데, 부모의 소득 수준과 교육만족도는 행복 요건 충족 인식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경제적 어려움과 교육관행 인식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확인되었다. 신체적 건강은 30대에서만 행복 요건 충족 인식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13 청년 세대의 행복 요건 충족 인식 영향 요인 분석 종합

구 분	전체(β)	10대(β)	20대(β)	30대(β)
성별(남자=1)				
연령	.085***			
부모 소득 수준	.095***		.139**	.064 ⁺
부모 학력				
경제적 어려움	-.089***		-.081 [*]	-.095**
신체적 건강	.075**			.123***
교육만족도	.102***		.105 [*]	.120**
정치적 효능감		.114 ⁺		
교육관행 인식	-.064**		-.100 [*]	-.070 [*]
사회적 지원 인식	.085***	.169 [*]		.102**

* 주: ⁺ $p < .1$, ^{*} $p < .05$, ^{**} $p < .01$, ^{***} $p < .001$

5.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청년 세대의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2018년 청년 사회경제 실태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연령별로 청년 세대의 행복과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였다.

행복을 주관적 안녕감 수준을 측정한 행복 수준과 행복한 삶을 위한 조건을 충족하였는지에 대한 행복 충족 인식의 두 가지 변수로 구분하여 분석하였으며, 청년 세대의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기 위한 독립변수로는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개인의 정서적 특성을 반영하는 사회적 경험 및 인식 변수를 활용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청년 세대의 행복 수준과 행복 요건 충족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전체적으로 유사한 경향을 나타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인구사회학적 특성 가운데 부모의 소득 수준과 신체적 건강은 청년 세대의 행복 수준과 행복 요건

충족 인식을 높이는 긍정적인 변인으로 나타났으며, 경제적 어려움은 청년 세대의 행복 수준과 행복 요건 충족 인식에 모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나타났다. 청년 세대의 취업 관문이 점점 좁아지고 실업률이 높아지면서 청년 세대를 경제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정책들이 추진되고 있는데 이처럼 경제적 어려움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 추진은 청년 세대의 행복을 높이기 위한 바람직한 방향이라 할 것이다. 다만, 이러한 정책들이 일회적인 미봉책에 그쳐서는 안 되며, 청년 세대가 자립할 수 있는 근본적인 지원책을 강구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사회적 경험 및 인식 변수 가운데 교육만족도와 사회적 지원에 대한 인식은 청년 세대의 행복 수준과 행복한 삶을 위한 요건 충족 인식에 모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나타났는데, 특히 교육만족도의 영향력 크기가 높게 나타나 주목할 만하다. 이는 청년 세대가 본인들이 경험한 고등학교 및 대학에서의 교육 경험이 만족할만한 수준이고, 앞으로의 인생을 살아가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인식할수록 행복감을 느낀다는 것으로 청년 세대의 행복을 증진시키기 위해 교육의 질을 제고하고 교육 수요자들의 교육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또한, 우리 사회 및 기성세대, 정부 또는 지자체가 청년 세대를 적절하게 대우하고 있는지, 안정적인 사회진출과 정착을 위해 배려하고 지원하는지에 대한 인식은 행복 수준 및 행복 요건 충족 인식에 긍정적인 변인으로 나타나 청년 세대를 위한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한 제도적 노력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다.

둘째, 청년 세대의 행복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연령별로 다소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대의 경우, 10대와 30대와는 달리 연령이 높아질수록 행복 수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20대가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에 진입하기 위한 시기를 맞이하기 때문에 연령이 높아질수록 취업에 대한 스트레스 등으로 인해 행복 수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유추해 볼 수 있다. 부모의 소득 수준은 20대와 30대의 행복 수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10대의 행복 수준에는 유의미한 영향을 나타내지

않았는데 상대적으로 10대의 경우 아직 미성년이라 부모의 소득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가 없거나 부모의 보호 아래 있기 때문에 부모 소득에 영향을 크게 받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신체적 건강은 20대와 30대 청년 세대에서 행복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나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건강과 행복의 상관관계가 높아짐을 확인할 수 있다.

셋째, 청년 세대의 행복 요건 충족 인식에도 연령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복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결과와 마찬가지로 부모의 소득 수준은 20대와 30대의 행복 요건 충족 인식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10대에서는 유의미한 영향을 나타내지 않았다. 교육관행 인식, 즉 우리 사회가 학력을 중요하게 평가하는지에 대한 인식의 경우에도 10대에서는 유의미한 영향을 나타내지 않았으나 20대와 30대에서는 행복 요건 충족 인식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대와 30대는 본격적인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시기로 사회에 진입하거나 이미 진출하여 사회생활을 경험하는 세대로서 학력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10대보다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것을 보여준다. 신체적 건강은 30대에서만 행복 요건 충족 인식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청년 세대의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별 차이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을 시도할 필요가 있다. 우리 사회가 학력이 중요시되는 사회라고 교육 관행에 대해 인식하는 것은 청년 세대의 행복 수준에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지만, 행복한 삶을 위한 요건을 충족했는지 인식하는 수준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도 이러한 차이가 나타났는데 청년 세대는 하나의 특성으로 규정하여 설명하기 어려운 복합적인 특성을 보이는 세대이므로, 청년 세대 하위 연령별로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심층 분석을 통해 연령별 특성에 맞는 적절한 맞춤형 지원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결과를 해석하는데 있어서 고려해야 할 점은 데이터의 제한점이다. 본 연구의 분석에 이용된 자료는 연구자가 연구 목적을 위해 별도로 설계한 자료가

아니라 기존에 수집된 조사 자료를 활용한 것이어서 청년 세대의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 했다는 한계가 있다. 또한, 횡단면 자료 분석의 한계를 가지고 있어 향후 패널 데이터 등 개인의 이질적 특성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자료를 활용하여 보다 심층적인 분석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 ————— 참고문헌

참고문헌

- 가상준 (2007). 정치효능감 및 신뢰감 함양을 통한 민주시민교육. **한국민주시민교육학회보**, 12-1, 109-127.
- 강상경 (2012). 삶의 만족도와 관련요인의 세대 간 차이에 대한 탐색적 연구 : 한국복지패널 자료를 이용한 베이비 붐 세대와 이전 및 이후 세대 간 비교. **사회복지연구**, 43(4), 91-119.
- 강인원, 전성일 (2003). 학벌주의가 학부모들의 인식수준과 사교육의도에 미치는 영향. **소비자학연구**, 14(1), 141-157.
- 강철희, 황지민, 이경혜 (2015). 베이비붐 세대 자원봉사행동에의 영향요인 탐색 연구: 이전세대 및 이후세대와의 비교분석. **한국사회복지조사연구**, 43, 41-71.
- 고용노동부(각 년도). 청년 고용동향, e-나라지표 웹사이트 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_eDetail.do?idx_cd=1495에서 2019년 6월 10일 인출.
- 교육부 (2018). **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한 종합계획**. 세종: 교육부 민주시민교육과.
- 구혜란, 구서정 (2019). 우울한 청년, 불안한 장년의 나라: 연결망 접근을 통해 본 세대별 마음의 형상(形象). **한국사회학**, 53(2), 253-292.
- 김기현, 배상률, 성재민 (2018). **청년 핵심정책 대상별 실태 및 지원방안 연구 I** (연구보고 18-R17).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김대건 (2018). 소득분위에 따른 중고령층의 사회참여 영향요인 연구. **인문사회과학연구**, 60, 65-87.

- 김대환 (1997). 참여의 철학과 참여민주주의, 참여사회연구원 (편). **참여민주주의와 한국사회**(pp.15-48). 서울: 창작과 비평사.
- 김동춘 (2001). 독립된 지성은 존재하는가. 서울: 삼인.
- 김미곤 (2017). **행복지수 개발에 관한 연구** (연구보고서(수시) 2017-05). 세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김미령, 권순재, 박충선 (2012). 베이비붐세대의 정보활용이 정보화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노인복지연구**, 57, 113-136.
- 김민정, 조금호 (2009). 취업준비생의 경제적 스트레스와 진로태도 성숙도가 무망감과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23(4), 47-62.
- 김부태 (2011). 한국 학력·학벌주의 인식체계 분석. **교육학연구**, 49(4), 25-54.
- 김성훈 (2014). 대학 학벌이 대졸자의 첫 취업 성과에 미치는 영향. **교육과학연구**, 45(4), 1-20.
- 김소라 (2019). 청년층 구직단념자 현황. **노동리뷰**, 170, 59-61.
- 김수영 (2016). **구조방정식 모형의 기본과 확장**. 서울: 학지사.
- 김수혜 (2018). 대졸 청년층의 취업준비 활동이 노동시장 진입에 미치는 영향: 정규직 취업 여부와 시점을 중심으로. **교육문화연구**, 24(6), 303-325.
- 김수혜 (2019). 한국과 영국 니트족 유입 영향요인에 대한 탐색적 비교연구: PIAAC 자료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청소년연구**, 30(1), 185-217.
- 김의철, 박영신 (2006). 한국 사회에서 삶의 질을 구성하는 요인들에 대한 탐구. **한국심리학회지: 문화 및 사회문제**, 12(5), 1-28.
- 김정숙 (2018). 대졸 청년의 노동시장이행 수준이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 **한국교육학연구**, 24(1), 93-117.
- 김주환, 홍세희, 김민규 (2009). **구조방정식모형으로 논문 쓰기**.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 김준홍 (2012). 청소년의 미디어이용이 사회정치적 참여의향에 미치는 영향과 기대교육수준의 조절효과. **미디어와 교육**, 2(2), 69-95.

- 김지경 (2018). 청년세대 삶의 인식 수준과 행복도의 영향요인. **한국사회정책**, 25(3), 209-245.
- 김지경, 이윤주, 이민정 (2018). 20대 청년 심리·정서 문제 및 대응방안 연구 (연구보고 18-R05).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김지경, 정연순, 이계백 (2015). 20대 청년, 후기청소년정책 중장기 발전전략 연구: 4년제 일반대학 재학 및 졸업자를 중심으로 (연구보고 15-R08).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김태준 (2003). 성인의 학력주의 성향 해소를 위한 심리 기제. **교육심리연구**, 17(3), 131-148.
- 김한나 (2016). 정치참여의 다양성과 심리적 조건: 내적효능감과 정부신뢰를 중심으로. **한국정치연구**, 25(1), 81-110.
- 김형주, 임지연, 유설희 (2018). 청년 사회·경제 실태 및 정책방안 연구 III (연구보고 18-R06).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김혜성 (2017). 탄핵이후 대학생의 정치인식에 대한 유형연구. **주관성연구**, 37, 51-72.
- 남상건 (2015). 효과크기의 이해. **한양의학리뷰**, 35(1), 40-43.
- 뉴스위크 (2016.06.27.). 한국의 밀레니엄 세대 '의욕 상실'. 뉴스위크 웹사이트 <http://newsweekkorea.com/?p=3565>에서 2019년 6월 5일 인출.
- 류정희, 이명자 (2007). 청소년의 심리적, 사회적 안녕감: 그 구조 및 주관적 안녕감과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학교**, 4(1), 55-77.
- 문재영, 정기수 (2018). 대학생의 기업체 예비학습 만족도와 사회적 지지가 취업전략에 미치는 영향: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청소년학연구**, 25(1), 365-389.
- 민병익, 이시원 (2009). 전자정부에서 시민참여의 특성 -기초자치단체 웹사이트 온라인 주민참여를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 25(4), 155-175.
- 박노일, 한정호 (2008). 블로그 쓰기와 사회정치참여에 관한 연구 -정치효능감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언론학보**, 52(2), 282-302.

- 박덕배 (2012). 현안과 과제 : 금융위기 이후 주택 정책의 효과와 시사점. 현대경제연구원 웹사이트 <http://www.hri.co.kr/board/reportView.asp>에서 2019년 6월 30일 인출.
- 박미석, 박미려 (2014). 에코부머의 근로빈곤에 관한 연구. *Family and Environment Research*, 52(1), 87-101.
- 박미희, 홍백의 (2014). 청년층의 노동시장 이행 유형과 그 결정요인. *사회복지정책*, 41(4), 21-49.
- 박수명 (2013). 청년계층의 사회적 배제에 관하여: 고용, 실업, 비정규직 관점에서, *한국정책연구*, 13(3), 113-131.
- 박은영 (2015). 청년기 지적장애인의 고용유지 결정요인: 직업훈련 프로그램 참여자의 개인적 요인을 중심으로.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5(4), 519-529.
- 박종훈 (2013). 지상 최대의 경제 사기극, 세대전쟁. 경기: (주)북이십일 21세기북스.
- 박진우, 김다은 (2018). 거버넌스 활성화를 위한 탐색적 연구: 청년들의 참여 인식을 중심으로, 김형주, 임지연, 유설희(편), *청년 사회·경제 실태 및 정책방안 연구 III - 전년도 공개데이터 심층분석 보고서* (연구보고 18-R06-1) (pp. 55-118).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박혜숙 (2016). 신세대 특성과 라이프 스타일 연구 -Z세대를 중심으로. *인문사회* 21, 7(6), 753-767.
- 박홍철, 이주형 (2013). 청년층 고용의 지역격차 및 경쟁력 분석에 관한 연구, *한국산학기술학회 논문지*, 14(7), 3253-3262.
- 박휴용 (2018). 학력 개념의 세 층위를 통해 분석한 학벌주의와 교육열. *교육사상연구*, 32(3), 97-128.
- 변금선 (2018). 학교에서 노동시장으로 이행의 계층화: 1970-90년대 출생코호트 비교. *한국사회복지학*, 70(3), 113-137.
- 서봉언, 김경식 (2016). 한국 청년의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성별 차이를 중심으로. *교육사회학연구*, 26(3), 91-115.

- 서우석 (2015). 문화여가활동이 경제적 빈곤층의 행복과 사회자본 형성에 미치는 영향. **문화정책논총**, 29(1), 266-296.
- 서운석 (2017). 한국·대만사회의 국민정체성 인식 변화에 대한 비교. **공공사회연구**, 7(2), 5-38.
- 세계일보 (2018.9.30.). 靑 국민청원 순기능 vs 역기능...사전검토제 필요. 세계일보 웹사이트 <http://www.segye.com/newsView/20180928001681>에서 2019년 6월 10일 인출.
- 손연정 (2018). 청년 세대 행복 결정요인 분석-대학 졸업 전후 변화를 중심으로. 김형주, 임지연, 유설희(편), **청년 사회·경제 실태 및 정책방안 연구 III - 전년도 공개데이터 심층분석 보고서** (연구보고 18-R06-1) (pp. 1-21).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손종현, 김부태 (2016). 한국 학력·학벌기반 연줄사회의 실재성과 그 이데올로기적 성격. **열린교육연구**, 24(2), 147-174.
- 송경재 (2013). 사회적 자본과 한국의 시민참여. **한국정당학회보**, 12(2), 221-244.
- 신경아, 김정은, 한미정 (2018). 대학생들의 투표 참여 의도를 이끄는 요인에 대한 탐색적 연구-정치 대화와 투표자 우대 제도, 내재적·외재적 정치 효능감을 중심으로. **홍보학연구**, 22(5), 1-29.
- 신두철 (2009). 시민교육과 정치참여에 대한 고찰. **한국시민윤리학회보**, 22(2), 159-164.
- 안형기, 신범순 (2006). 정치참여 결정요인으로서의 인지적 효능감 -네터즌의 투표행위를 중심으로. **한국정책과학학회보**, 10(1), 27-49.
- 안홍순 (2016). 청년세대를 위한 사회적 형평성 제고 방안. **사회복지정책**, 43(3), 59-83.
- 양승광 (2017). 청년고용정책 관련 법률에 관한 소고: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을 중심으로. **법학논총**, 37, 87-109.

- 여관현, 박민진 (2014). 베이비붐 세대와 에코세대의 사회특성에 대응한 서울시
지역정책 연구, **한국지방자치연구**, 16(2), 31-55.
- 오수연 (2018). Z세대를 주목하라. **마케팅**, 52(1), 57-62.
- 오재호, 이현우, 천영석 (2018). 경기도 청년정책 현황과 방향 (정책연구
2018-35). 수원: 경기연구원.
- 우문식 (2012). 행복의 관점과 인구 통계적 차이에 관한 연구. **복지행정연구**, 28, 51-72.
- 윤강재, 김제연 (2010). OECD 국가의 행복지수 산정 및 비교. **보건복지포럼**,
159, 86-98.
- 윤혜진, 김영문, 김은희 (2016). 세대별 여가 인식, 활동 그리고 행복의 관계.
관광레저연구, 28(12), 353-370.
- 이건만 (2007). 한국사회의 학벌주의와 계급갈등: 학벌자본의 이론화를 향해. **교
육사회학연구**, 17(4), 63-85.
- 이명숙 (2015). 청년세대의 행복감과 정서적 안녕에 미치는 건강, 사회적지지,
삶의 기대요인의 상대적 영향 분석. **청소년학연구**, 22(7), 179-199.
- 이상욱, 권철우, 남윤미 (2018). 기업의 청년층과 고령층 고용결정요인 분석. **사회
과학연구**, 57(1), 133-165.
- 이성훈, 최민섭 (2015). 에코세대의 스마트홈 특성가치가 이용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부동산학연구**, 21(1), 103-131.
- 이승윤, 백승호, 김미경, 김윤영 (2017). 한국 청년노동시장의 불안정성 분석. **비
판사회정책**, 54, 487-521.
- 이승윤, 이정아, 백승호 (2016). 한국의 불안정 청년노동시장과 청년 기본소득
정책안. **비판사회정책**, 52, 365-405.
- 이시균, 양수경 (2012). 초기 노동시장 경험이 향후 청년고용 성과에 미치는 효과,
동향과 전망, 84, 222-250.
- 이양호, 지은주, 권혁용 (2013). 불평등과 행복: 한국의 사례. **한국정치학회보**,
47(3), 25-43.

- 이영민 (2010). 20대의 정치의식 특성과 정치성향의 형성경로. **사회연구**, 19(1), 9-43.
- 이울경 (2017). 청년고용촉진특별법상 청년할당제의 법적 쟁점. **노동법연구**, 43, 143-170.
- 이은희, 김정자, 이성림, 유현정, 차경욱, 이영애, 이준영 (2015). 세대별 가계경제 구조 비교분석. **소비자정책교육연구**, 11(2), 197-227.
- 이재열 (2015). 사회의 질, 경쟁, 그리고 행복. **아시아리뷰**, 4(2), 3-29.
- 이지인, 박세정 (2015).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여성노동정책 변동에 관한 연구: 여성노동관련법 제정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지방자치연구**, 17(1), 56-78.
- 이지호 (2017). '박근혜 촛불', 누가 왜 참여했나: 참여행동 모형과 참여태도 모형의 비교. **한국정치연구**, 26(2), 75-103.
- 이창호, 정의철 (2008). 촛불문화제에 나타난 청소년의 사회참여 특성에 대한 연구. **언론과학연구**, 8(3), 457-491.
- 이태동 (2016). 지역기반 시민정치교육의 지향, 방법론, 활성화 구조에 대한 연구: '마을학개론'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정치연구**, 25(2), 119-143.
- 이현직, 조아미 (2017). 대학생의 정치사회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청소년학연구**, 24(8), 247-272.
- 임연옥, 박재연, 윤현숙 (2011). 베이비 붐 세대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비판사회정책**, 33, 7-44.
- 장승진 (2011). 행복의 정치경제학: 소득불평등에 대한 인식이 한국인들의 삶의 만족도에 끼치는 영향. **한국정당학회보**, 10(2), 43-66.
- 장효진 (2017). 직업훈련이 청년의 노동시장 진입과 첫 일자리의 질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연구. **한국정책학회보**, 26(3), 203-236.
- 전경숙, 정태연 (2009). 한국 청소년의 행복을 결정하는 요인들.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15(1), 133-153.
- 전병주 (2013). 청년 실업자의 사회적 배제가 심리적 복지감에 미치는 영향: 고용 정책에 대한 신뢰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 29(4), 197-224.

- 정명은, 김미현, 장용석 (2014). 서울시민의 행복과 사회자본 관계 분석: 행복한 시민, 따뜻한 지역공동체. **서울도시연구**, 15(1), 163-186.
- 정용교, 이화경 (2012). 지방대학생의 입장에서 바라본 학벌주의 실태와 대안. **중등교육연구**, 60(1), 699-724.
- 정제영 (2017.03.21.). 차기정부 핵심과제는 교육복지 정책. 헤럴드경제 웹사이트 http://biz.heraldcorp.com/view.php?ud=20170321000337&ACE_SEARCH=1에서 2019년 7월 1일 인출.
- 정주호, 조민호 (2018). 청년고용정책의 효과성 평가 연구: 중소기업 청년인턴제와 공공기관 청년인턴제를 중심으로.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29(2), 57-81.
- 정하운 (2014). 한국 민주시민교육의 제도화 과정과 쟁점. **미래정치연구**, 4(1), 31-53.
- 정현상 (2016). 청년층 경제활동상태 선택요인. **노동리뷰**, 140, 69-82.
- 조진만 (2011). 정보화가 정치참여에 미치는 효과: 경험적 분석. **한국정치학회보**, 45(5), 273-296.
- 조찬래, 이한규, 조지현, 김자영 (2011). **각국의 민주시민교육 제도 및 관련법안연구**. 경기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주휘정, 김민석 (2018). 청년층의 결혼 이행 여부에 대한 경제적 배경 요인의 영향. **사회적경제와 정책연구**, 8(2), 59-88
- 채창균 (2018). 청년고용대책의 방향과 과제. 제47차 **한국진로교육학회 2018년 추계학술대회 자료집: 청년 고용, 진로교육에서 길을 찾다**, 15-36.
- 최석현, 김정훈, 김재신 (2018). 새로운 청년고용전략. **이슈 & 진단**, 332, 1-23.
- 최요한 (2018). 청년층 비정규직의 고용형태 이행확률의 추정. **노동정책연구**, 18(4), 31-50.
- 통계청 (2011). 2012년 5월 경제활동인구조사: 청년층 및 고령층 부가조사 결과 보도자료. 통계청 웹사이트 http://kostat.go.kr/portal/korea/kor_nw/1/3/1/index.board?bmode=read&aSeq=249284에서 2019년 6월 10일 인출.

통계청 (2012). 2012년 5월 경제활동인구조사: 청년층 및 고령층 부가조사 결과
 보도자료. 통계청 웹사이트 http://kostat.go.kr/portal/korea/kor_nw/1/3/1/index.board?bmode=read&aSeq=258983에서 2019년 6월 10일 인출.

통계청 (2013). 2014년 5월 경제활동인구조사: 청년층 및 고령층 부가조사 결과
 보도자료. 통계청 웹사이트 http://kostat.go.kr/portal/korea/kor_nw/1/3/1/index.board?bmode=read&aSeq=307448에서 2019년 6월 10일 인출.

통계청 (2014). 2014년 5월 경제활동인구조사: 청년층 및 고령층 부가조사 결과
 보도자료. 통계청 웹사이트 http://kostat.go.kr/portal/korea/kor_nw/1/3/1/index.board?bmode=read&aSeq=328458에서 2019년 6월 10일 인출.

통계청 (2015). 2015년 5월 경제활동인구조사: 청년층 및 고령층 부가조사 결과
 보도자료. 통계청 웹사이트 http://kostat.go.kr/portal/korea/kor_nw/1/3/1/index.board?bmode=read&aSeq=347513에서 2019년 6월 10일 인출.

통계청 (2016). 2016년 5월 경제활동인구조사: 청년층 및 고령층 부가조사 결과
 보도자료. 통계청 웹사이트 http://kostat.go.kr/portal/korea/kor_nw/1/3/1/index.board?bmode=read&aSeq=355178에서 2019년 6월 10일 인출.

통계청 (2017). 2017년 5월 경제활동인구조사: 청년층 부가조사 결과 보도자료.
 통계청 웹사이트 http://kostat.go.kr/portal/korea/kor_nw/1/3/1/index.board?bmode=read&aSeq=361691에서 2019년 6월 10일 인출.

통계청 (2018a). 2018년 5월 경제활동인구조사: 청년층 부가조사 결과 보도자료.
 통계청 웹사이트 http://kostat.go.kr/portal/korea/kor_nw/1/3/1/index.board?bmode=read&aSeq=368927에서 2019년 6월 10일 인출.

통계청 (2018b). 선거투표율. 국가지표체계 웹사이트 <http://www.index.go.kr/unify/idx-info.do?idxCd=4268>에서 2019년 5월 23일 인출.

통계청 (2019). 경제활동인구조사_연령/활동상태별(쉬었음) 비경제활동인구.
 KOSIS 국가통계포털 웹사이트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DA7147S&vw_cd=MT_ZTITLE&list_id=B14&seqN

- o=&lang_mode=ko&language=kor&obj_var_id=&itm_id=&conn_path=MT_ZTITLE에서 2019년 5월 26일 인출.
- 통계청 (각 년도). 장래인구추계_성 및 연령별 추계인구(1세별, 5세별)/전국. KOSIS 국가통계포털 웹사이트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PA001&conn_path=I2에서 2019년 6월 10일 인출.
- 한세희, 김연희, 이희선 (2010). 사회자본과 주관적 안녕감의 관계: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한국행정학보**, 44(3), 37-59.
- 한승헌, 임다혜, 강민아 (2017). 한국 청년의 삶의 불안정성(precariousness)과 행복: 불확실성과 통제권한 부재의 매개효과. **한국사회정책**, 24(2), 87-126.
- 행정안전부 (각 년도). 주민등록인구현황_행정구역(읍면동)별/5세별 주민등록인구(2011년~). KOSIS 국가통계포털 웹사이트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04005N&conn_path=I2에서 2019년 6월 10일 인출.
- 홍세희, 황매향, 이은설 (2005). 청소년용 여성 진로장벽 척도의 잠재평균분석. **교육심리연구**, 19(4), 1159-1177.
- 황덕순, 주진우, 최봉, 이병희, 이주환, 정경은, 우상범 (2016). 서울시 청년 고용 정책 평가와 정책과제. 서울: 서울연구원.
- Argyle, M. (2001). *The psychology of happiness*. New York, NY: Taylor & Francis Inc.
- Bracke, P., van de Straat, V., & Missinne, S. (2014). Education, mental health, and education-labor market misfit.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55(4), 442-459.
- Browne, M. W., & Cudeck, R. (1993). Alternative ways of assessing model fit. In K. A. Bollen & J. S. Long (Eds.), *Testing structural equation models* (pp. 136-162). Newbury Park, CA: Sage.

- Campbell, A., Gurin, G., & Miller, W. E. (1954). *The voter decides*. Evanston, IL: Row, Peterson, & Co.
- Chen, F. F. (2007). Sensitivity of goodness of fit indexes to lack of measurement invariance.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14(3), 464-504.
- Cohen, J. (1988). *Statistical power analysis for the behavioral sciences*. Hillsdale, NJ: Lawrence.
- Cohen, S., & Pressman, S. D. (2006). Positive affect and health. *Current Direction Psychological Science*, 15(3), 122-125.
- Costa, P. T., & McCrae, R. R. (1980). Influence of extraversion and neuroticism on subjective well-Being: Happy and unhappy peopl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8(4), 668-678.
- Diener, E. (1984). Subjective Well-being. *Psychological Bulletin*, 95(3), 542-575.
- Easterlin, R. A. (1974). Does Economic Growth Improve the Human Lot?. In Paul, A. D., & Melvin, W. R. (Eds.), *Nations and Households in Economic Growth: Essays in Honor of Moses Abramovitz* (pp. 89-125). New York: Academic Press, Inc.
- Flavin, P., & Keane, M. J. (2012). *Life satisfaction and political participation: Evidence from the United States*. *Journal of Happiness Studies*, 13(1), 63-78.
- Gonzalez-Zapata, F., & Heeks, R. (2015). The multiple meanings of open government data: Understanding different stakeholders and their perspectives. *Government Information Quarterly*, 32(4), 441-452.
- Gundelach, P., & Kreiner, S. (2004). Happiness and life satisfaction in advanced European countries. *Cross-Cultural Research*, 38(4), 359-386.

- Hair, J. F., Black, W. C., Babin, B. J., & Anderson, R. E. (2009). *Multivariate data analysis*(7th ed.). Upper Saddle River, NJ: Pearson Education, Inc.
- Helliwell, J. F., Layard, R., & Sachs, J. D. (2019). *World Happiness Report 2019*. New York: Sustainable Development Solutions Network.
- Hong, S., Malik, M. L., & Lee, M. K. (2003). Testing configural, metric, scalar, and latent mean invariance across genders in sociotropy and autonomy using a non-Western sample. *Educational and Psychological Measurement*, 63(4), 636-654.
- Hu, Li-tze., & Bentler, P. M. (1999). Cutoff Criteria for Fit Indexes in Covariance Structure Analysis: Conventional Criteria Versus New Alternatives.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 Multidisciplinary Journal*, 6(1), 1-55.
- Keyes, C. L. M. (1998). Social well-being. *Social Psychology Quarterly*, 61(2), 121-140.
- Kline, R. B. (2015). *Principles and practice of structural equation modeling*(4th ed.). New York, NY: Guilford Publications.
- Lyubomirsky, S., King L., & Diener, E. (2005). The benefits of frequent positive affect: Does happiness lead to success? *Psychological Bulletin*, 131(6), 803-855.
- McBride, A. M. (2003). *Asset-ownership among low-income and low-wealth individuals: Opportunity, stakeholding, and civic engagement*.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Washington University.
- Naafs, S. (2013). Youth, Gender, and the Workplace-Shifting Opportunities and Aspirations in an Indonesian Industrial Town. *The Annals of the American Academy of Political and Social Science*, 646(1), 233-250.

- OECD (2014). *Society at a Glance 2014*. Retrieved July 1, 2019, from https://read.oecd-ilibrary.org/social-issues-migration-health/society-at-a-glance-2014_soc_glance-2014-en#page1.
- OECD (2019). Youth not in employment, education or training(NEET), Retrieved June 10, 2019, from <https://data.oecd.org/youthinac/youth-not-in-employment-education-or-training-neet.htm>.
- Pavot, W., & Diner, E. (1993). Review of the Satisfaction with Life Scale. *Psychological Assessment*, 5(2), 164-172.
- Peterson, C. (2006). *A primer in positive psychology*.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Rowe, J. W. & Kahn, R. L. (1997). Successful aging. *The Gerontologist*, 37(4), 433-440.
- Ryff, C. D. (1989). Happiness is everything, or is it? Explorations on the meaning of psychological well-being.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7, 1069-1081.
- Ryff, C. D., & Heidrich, S. M. (1997). Experience and well-being: Explorations on domains of life and how they matter. *International Journal of Behavioral Development*, 20(2), 193-206.
- Salmela-Aro, K. & Nurmi (2007). Self-esteem during university studies predicts career characteristics 10 years later.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70(3), 463-477.
- Sass, D. A., & Smith, P. L. (2006). The effects of parceling unidimensional scales on structural parameter estimates in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13(4), 566-586.
- SDGs. (2019). World Happiness Report 2019. New York, NY: SDGs.

- Seligman, M. E. P., & Csikszentmihalyi, M. (2000). Positive psychology: An introduction. *American Psychologist*, 55(1), 5-14.
- Smith, H. C. (1961). *Personality adjustment*. New York: McGraw-Hill Book Company.
- United Nations (2017). *World Population Ageing 2017* (ST/ESA/SER.A/408). Retrieved July 1, 2019, from <https://www.un.org/en/development/desa/population/theme/ageing/WPA2017.asp>.
- World Health Organization. (1998). WHO(Five) Well-Being Index(1998 version). Retrieved March 23, 2018, <https://www.who-5.org>
- Zuccotti, C. V., & O'Reilly, J. (2019). The impact of youth labour market experiences on later employment opportunities-What roles do ethnicity and gender play?. *Human Relations*, 72(4), 646-674.

2019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간행물 안내

기관 고유과제

- 19-R01 청소년 '일 경험' 제도 운영 실태 및 정책방안 연구Ⅱ : 대학교 실습학기제를 중심으로 / 김승경·최정원·강정환
- 19-R02 청년 사회·경제 실태 및 정책방안 연구Ⅳ / 김형주·연보라·유설희
- 19-R02-1 청년 사회·경제 실태 및 정책방안 연구Ⅳ - 전년도 공개데이터 심층분석보고서 / 김형주·연보라·유설희
- 19-R02-2 청년 사회·경제 실태 및 정책방안 연구Ⅳ - 기초분석보고서 / 김형주·연보라·유설희
- 19-R03 국가 미래인적자원으로서 재외동포청소년 성장과 지원방안 연구Ⅱ / 김경준·김정숙
- 19-R04 청소년기관의 진로체험 지원체계 구축 방안 연구 / 강경균·성윤숙·김승보·장현진
- 19-R05 청소년 체험활동 활성화를 위한 기업사회공헌 사업과의 협업 추진 방안 연구 / 임지연·황세영·김도영
- 19-R06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청년정책 개선 방안 / 김지경·변금선·전국청년정책네트워크
- 19-R07 정보기술을 활용한 위기청소년 사회서비스 확충 방안 / 김지연·이경상·노법래
- 19-R08 남북한 청소년 교류협력을 위한 중장기 전략연구 / 배상률·이정민
- 19-R09 미래지향적 청소년관련 법 정비 방안 / 김영한·서정아·권일남
- 19-R10 청소년지도자 양성시스템 재구축 방안Ⅰ : 청소년 활동분야 중심으로 / 최창욱·좌동훈·남화성·박정배
- 19-R11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지표조사 및 조성사업 연구Ⅶ / 오해섭·문호영·염유식
- 19-R12 아동·청소년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이행 연구 : 한국아동·청소년 인권실태 2019 - 총괄보고서 / 김영자·김희진·이민하·김진호
- 19-R12-1 아동·청소년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이행 연구 : 한국아동·청소년 인권실태 2019 - 심화분석보고서 / 강지영
- 19-R12-2 아동·청소년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이행 연구 : 한국아동·청소년 인권실태 2019 - 기초분석보고서 / 김영자·김희진
- 19-R13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활용한 청소년 성장지원정책 추진체계 구축방안 연구Ⅰ / 최인재·이윤주·송민경·조윤정

- 19-R14 한국 아동·청소년패널조사X - 사업보고서 / 하형석·김성은·이용해
- 19-R14-1 한국 아동·청소년패널조사X - 데이터분석보고서 / 김성은·김준엽
- 19-R15 다문화청소년 종단연구 2019 - 총괄보고서 / 양계민·장윤선·정윤미
- 19-R15-1 다문화청소년 종단연구 2019 - 기초분석보고서 / 양계민·장윤선·정윤미

협동연구과제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9-59-01 학교 밖 청소년 지역사회 지원모델 개발연구Ⅱ : 질적 패널조사를 중심으로 / 장근영·윤철경·서고운·이동훈 (자체번호 19-R16)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9-59-02 학교 밖 청소년 지역사회 지원모델 개발연구Ⅱ : 지역사회 지원 모델 개발을 위한 중소도시 지역 질적 연구 / 조아미·임정아·김남은 (자체번호 19-R16-1)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9-60-01 청년 핵심정책 대상별 실태 및 지원방안 연구 Ⅱ : 학교 졸업예정자 / 김기현·유민상·김창환·정자운 (자체번호 19-R17)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9-60-02 청년 핵심정책 대상별 실태 및 지원방안 연구 Ⅱ : 학교 졸업예정자·해외사태조사 / 김기현·유민상(자체번호 19-R17-1)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9-61-01 청소년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정책방안 연구Ⅰ / 임희진·백해정·김동식 (자체번호 19-R18)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9-61-02 청소년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정책방안 연구Ⅰ - 학생 청소년의 건강불평등 실태 분석 / 김동진·정연·채수미 (자체번호 19-R18-1)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9-61-03 청소년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정책방안 연구Ⅰ - 기초분석보고서 / 임희진·백해정 (자체번호 19-R18-2)

연구개발적립금

- 19-R52 청소년정책 재구조화 방안연구 / 김기현·최정원·변금선·이종원·이민정·정지희
- 19-R21 청소년 참여 연구사업 운영을 통한 청소년활동 활성화 및 역량 증진방안 연구 / 모상현
- 19-R21-1 청소년 참여 연구사업 운영을 통한 청소년활동 활성화 및 역량 증진방안 연구 : 10대연구소 연구사업 운영보고 / 모상현·함세정

수 시 과 제

- 19-R53 아동청소년 성보호를 위한 연령조정 방안연구 / 이정민
- 19-R54 청소년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방안 연구 / 김형주·이종원

- 19-R55 학교 밖 청소년 추정치 추계방안 연구 / 하형석·이종원·이정민
- 19-R56 2030 혁신리더 양성개발 및 평가 / 최정원·김현철·문호영·이윤주·박지숙·정은진
- 19-R57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지역기관 연계 종합지원모델 개발 / 연보라·이윤주·김현철

수탁과제

- 19-R19 포용사회 구현을 위한 이주배경아동·청소년 성장기회격차 해소방안연구 : 통계구축방안을 중심으로 / 양계민·김지연·장윤선
- 19-R20 한국 아동·청소년 삶의 질 지표 구축 방안 연구 :한국 아동·청소년의 삶의 질 지표 DB 구축 및 보고서 작성 / 유민상·이용해
- 19-R22 청소년 비즈쿨 지원사업 교육운영모형 개발 및 활성화 방안 연구 / 강경균
- 19-R23 학교폭력 예방 또래활동 프로그램(초등학교) / 성윤숙·이혜정
- 19-R24 학교폭력 예방 또래활동 프로그램(중학교) / 성윤숙·이혜정
- 19-R25 학교폭력 예방 또래활동 프로그램(고등학교) / 성윤숙·이혜정
- 19-R26 2018 학교폭력 예방 어울림 프로그램 적용효과 분석 / 성윤숙·김현수
- 19-R27 2019년 학교폭력 예방교육 컨설팅 매뉴얼 / 성윤숙·장안서
- 19-R28 학교폭력 예방 어울림 심층 프로그램 / 성윤숙·서정아·문호영·장안서
- 19-R29 2018 개정 학부모 어울림 프로그램 : 초등학교 저학년, 초등학교 고학년, 중학교, 고등학교 (24종) / 성윤숙·김현수
- 19-R30 2015 개정교육과정을 반영한 학교폭력 예방 어울림 교과 연계 프로그램 : 중학교 국어·도덕·사회 및 고등학교 국어·통합사회(5종) / 성윤숙·황세영·김성은·김현수
- 19-R31 학업중단예방 및 대안교실 프로그램 모듈 개발(중등용) 및 프로그램(5종) / 황세영·한지형
- 19-R32 청소년 특별지원 사업 활성화 방안 연구 / 김지연·서고운·김태완
- 19-R33 2019 청소년수련시설 종합평가 / 김경준·김영지·임지연
- 19-R34 서울시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 / 윤철경·최인재·김승경·김성은
- 19-R35 고양시 청소년재단 중장기 발전 계획 수립 연구 / 김영한
- 19-R36 유엔아동권리협약 이행 분석 연구 - 아동권리협약 이행 제56차 심의자료 및 권고사항(국문) / 김영지·이윤주·유설희
- 19-R36-1 유엔아동권리협약 이행 분석 연구 - 아동권리협약 이행 제56차 심의자료 및 권고사항(영문) / 김영지·이윤주·유설희
- 19-R37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서비스 개선방안연구 / 양계민·장윤선

- 19-R38 세종특별자치시 청소년정책 중장기발전 계획수립 연구용역 / 최창욱·좌동훈·문호영·남화성
- 19-R38-1 세종특별자치시 청소년정책 중장기발전 계획 / 최창욱·좌동훈·문호영·남화성
- 19-R39 소년 범죄피해자 인권보호 실태분석 및 제고방안 / 김지연·정소연·김혁·이경상
- 19-R40 2020년 청소년종합실태조사 사전 연구 / 김지경·김균희
- 19-R41 청소년 보호법 체계 개선 방안 연구 / 김지경·장근영·고은아
- 19-R42 2019년 학교 시민교육 정책 네트워크 운영 / 배상률·장근영·이정민
- 19-R43 천안시 청소년재단 설립 타당성 연구 / 최창욱·좌동훈·문호영·남화성·노자은
- 19-R43-1 천안시 청소년재단 설립 타당성 연구 요약보고서 - 천안시 청소년재단 기본구상 및 중장기 계획 - / 최창욱·좌동훈·문호영·남화성·노자은
- 19-R44 중국 청소년의 한류 인식 및 수용 실태 연구 / 배상률·문수정·장수
- 19-R45 지역아동센터 아동패널조사 2019 / 김희진·임희진·하형석·정윤미
- 19-R46 보호종료아동 주거지원 통합서비스 사업 평가지표 개발 연구 / 김지연·백해정·류정희·이상정
- 19-R47 발명교육 활성화를 위한 지역사회 연계 방안 연구 / 강경균
- 19-R48 2019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효과만족도 연구 / 서정아·조아미
- 19-R49 지역사회 기반 직업계고 운영 활성화 방안 / 강경균
- 19-R50 고등교육 고비용부담 및 양극화 현상 진단과 대안 / 김기현·김형주
- 19-R51 청년정책 체계성 강화 연구 / 변금선·김기현·하형석·이용해
- 19-R58 학업중단예방 및 대안교실 프로그램 모듈 개발(초등용) 및 프로그램(2종) / 황세영·김성은·김현수
- 19-R59 미인가 대안교육시설 실태조사 연구 / 오해섭·박지영·이지혜·임하린
- 19-R60 홈스쿨링 도입 방안 연구 / 이종태·하태욱·차상진

세미나 및 워크숍 자료집

- 19-S01 학업중단예방 및 대안교실 프로그램 모듈 시범적용 결과 발표회 및 활용방안 워크숍(1.11)
- 19-S02 2019 학교폭력예방교육 운영학교 담당자 워크숍(1.24)
- 19-S03 학교폭력예방교육 운영학교 우수사례집 -어울림 프로그램 운영(1.31)
- 19-S04 2019 학교폭력 예방교육 운영학교 담당자 연수(1차-초등학교)(2.12~13)
- 19-S05 2019 학교폭력 예방교육 운영학교 담당자 연수(1차-중학교)(2.14~15)
- 19-S06 2019 학교폭력 예방교육 운영학교 담당자 연수(1차-고등학교)(2.19~20)

19-S07	2019 학업중단예방 및 대안교실(꿈지락) 프로그램 워크숍 자료집(4.15~16)
19-S08	2019년 학교폭력 예방교육 컨설팅단 워크숍(2.22)
19-S09	제13회 청소년정책포럼(3.6)
19-S10	2019년 학교폭력 예방교육 운영학교 담당자 연수(2차) 초등학교(3.27~4.10)
19-S11	2019년 학교폭력 예방교육 운영학교 담당자 연수(2차) 중학교(3.29~4.17)
19-S12	2019년 학교폭력 예방교육 운영학교 담당자 연수(2차) 고등학교(3.29~4.17)
19-S13	제14회 청소년정책포럼(4.29)
19-S14	제15회 대한민국 청소년박람회 토크콘서트 자료집(5.24)
19-S15	2019년 대안학교(각종학교 및 특성화 중·고교) 관리자 협의회(6.4)
19-S16	2019년 대안학교(각종학교 및 특성화 중·고교) 담당자 연수(6.5)
19-S17	제20차 NYPI 직원 역량강화 콜로키움(6.10)
19-S18	제15회 청소년정책포럼(6.14)
19-S19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개원 30주년 기념 국제 컨퍼런스(6.18)
19-S20	제16회 청소년정책포럼(7.26)
19-S21	제17회 청소년정책포럼(8.28)
19-S22	제21차 NYPI 직원 역량강화 콜로키움(8.14)
19-S23	2019년 학교폭력 예방교육 컨설팅단 워크숍(8.13~14)
19-S24	2019년 미인가 대안교육시설 관리자 연수(8.22)
19-S25	2019년 미인가 대안교육시설 담당자 연수(8.23)
19-S26	2019년 학교폭력 예방교육 시도교육청 협의체 워크숍(8.26)
19-S27	제18회 청소년정책포럼:청소년지도사 양성체계 및 처우개선 방안 제1차 재구조화 포럼(9.19)
19-S28	제22회 청소년정책포럼: 2019 학업중단예방 및 대안교육 포럼(10.25)
19-S29	제19회 청소년정책포럼: 미래지향적 청소년관련 법 정비 방안(9.26)
19-S30	제20회 청소년정책포럼(9.27)
19-S31	2019년 학교폭력 예방교육 발전방안 포럼(9.26)
19-S32	제22차 NYPI 직원 역량강화 콜로키움(잠재프로파일 분석의 이론과 실제)(9.27)
19-S33	제23회 청소년정책포럼: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의 성장지원 체계 강화를 위한 지역자원 연계 방안(11.7)
19-S34	제24회 청소년정책포럼:청소년 주도적 참여기반 확대 및 활성화 방안(11.19)
19-S35	제23차 NYPI 직원 역량강화 콜로키움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정책 협력 추진 방안(11.12)

- 19-S36 제8회 한국아동·청소년패널 학술대회(11.15)
- 19-S37 제21회 청소년정책포럼: 2019 전국청소년 지표조사 결과 발표 및 청소년활동 활성화 방안(10.1)
- 19-S38 제25회 청소년정책포럼: 청소년을 위한 NPO-기업 사회공헌사업의 협업추진 방안(12.6)
- 19-S39 제24차 NYPI 직원 역량강화 콜로키움: 정책평가를 위한 이중차분법의 활용: 이중차분법의 이해와 한국아동청소년패널 데이터 이용 사례(12.2)
- 19-S40 제26회 청소년정책포럼: 한국 아동청소년의 삶의 질 현황 및 전망(12.12)
- 19-S41 제27회 청소년정책포럼: 2019년 학교폭력 예방교육 발전방안 포럼- 해외사례를 통한 국내 학교폭력 예방교육 활성화 방안 모색(12.12)
- 19-S42 고교학점제와 지역사회 청소년 체험활동 자원의 연계방안 모색을 위한 포럼(12.16)
- 19-S43 서울특별시-서울특별시교육청 공동 세미나: 서울 학교 밖 청소년 실태와 정책 진단, 그리고 미래(10.8)

학 술 지

- 「한국청소년연구」 제30권 제1호(통권 제92호)
- 「한국청소년연구」 제30권 제2호(통권 제93호)
- 「한국청소년연구」 제30권 제3호(통권 제94호)
- 「한국청소년연구」 제30권 제4호(통권 제95호)

기 타 발 간 물

- NYPI Bluenote 이슈 & 정책 113호 : 가정 밖 청소년의 실태와 자립지원 방안 연구
- NYPI Bluenote 이슈 & 정책 114호 : 제4차 산업혁명시대 대비 청소년활동정책 전략 연구
- NYPI Bluenote 이슈 & 정책 115호 : 학교 밖 청소년 지역사회 지원모델 개발연구 I
- NYPI Bluenote 이슈 & 정책 116호 : 위기청소년 교육적 선도제도 실효성 제고방안
- NYPI Bluenote 이슈 & 정책 117호 : 청소년을 위한 NPO-기업 사회공헌사업(CSR) 간 협업추진을 위한 '협업지침'과 '중추지원조직 기능·추진사항' 개발
- NYPI Bluenote 이슈 & 정책 118호 : 미래지향적 「청소년복지 지원법」 정비 방안
- NYPI Bluenote 통계 46호 : 청소년활동 참여 실태조사 연구 V
- NYPI Bluenote 통계 47호 : 청년 핵심정책 대상별 실태 및 지원방안 연구 I : 청년 니트(NEET)
- NYPI Bluenote 통계 48호 : 부모 특성과 아동·청소년 발달의 관계

연구보고 19-R02-1

청년 사회·경제 실태 및 정책방안 연구 IV - 전년도 공개데이터 심층분석보고서

인 쇄 2019년 12월 23일

발 행 2019년 12월 31일

발행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발행인 송 병 국

등 록 1993. 10. 23 제 21-500호

인쇄처 (주)아르빛 전화 044)863-0933 대표 유채란

사전 승인없이 보고서 내용의 무단전재·복제를 금함.

구독문의 : (044) 415-2125(학술정보관)

ISBN 979-11-5654-227-8 94330

979-11-5654-225-4 (세트)



연구보고 19-R02-1

청년 사회·경제 실태 및

정책방안 연구Ⅳ

- 전년도 공개데이터 심층분석보고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370 세종국책연구단지
사회정책동(D동)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6/7층
Social Policy Building, Sejong National Research Complex,
370, Sicheong-daero, Sejong-si, 30147, Korea
Tel. 82-44-415-2114 Fax. 82-44-415-2369 www.nypi.re.kr



ISBN 979-11-5654-227-8 94330
ISBN 979-11-5654-225-4 (세트)